

아름다운재단
청소년배분위원회
성과평가

아름다운재단 청소년배분위원회 성과평가

<연구진> | 이민영(고려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구지윤(고려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외래교수)

목차

I. 들어가며	007
II. 선행연구	008
1. 청소년 참여와 프로젝트 기반 학습활동	008
1) 청소년 참여의 개념	008
2) 프로젝트 기반 학습활동(Project-Based Learning; PBL)	011
2. 유스필란트로피 (Youth Philanthropy)	015
1) 개념 및 발전과정	015
2) 목적	016
3) 대표 프로그램	017
3. 청소년자문위원회 (Youth Advisory Committee)	020
1) 목적과 역할	020
2) 운영	022
3) 주요 성과	023
III. 성과평가 설계	035
1. 청소년배분위원회 활동 개요	035
1) 원칙	035
2) 목표	036
3) 구성 및 내용	037

목차

2. 평가방법	038
1) 양적연구 설계	040
2) 질적연구 설계	044
IV. 양적연구 결과	047
1. 연구 참여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047
2. 만족도 및 과정평가	048
3. 성과 평가	052
1) 사회문제해결	052
2) 리더십 생활기술	054
3) 비판적 사고성향	059
4) 종합	064
【참고】 성과지표 빈도분석 분포표	066
V. 질적연구 결과	072
1. 과정평가	072
1) 기획, 모집, 면접	073
2) 오리엔테이션	077

3) 배분위원장 만남, 영화관람 및 기관 방문	079
4) 팀 나눠 배분이슈 논의 및 배분 준비	086
5) 배분공모준비	089
6) 배분위원 워크숍	091
7) 배분준비	093
8) 배분 심사	096
9) 선정결과 안내 및 오리엔테이션	102
10) 배분 실행 및 모니터링	106
11) 결과공유회 및 최종평가회	110
12) 전체 과정과 성장	114

2. 성과평가	115
1) 청소년의 성과	115
2) 성인 멘토의 성과	125
3) 지역사회의 성과	129
4) 재단의 성과	132
5) 청소년배분위원회의 의미	136

VI. 나가며	144
---------	-----

1. 들어가며

본 연구는 아름다운재단이 기획한 청소년배분위원회 활동에 대한 성과평가를 위한 연구이다. 아름다운재단의 청소년배분위원회는 청소년들이 자신이 가진 자원과 강점으로 지역사회의 문제를 발견하고 해결해가는 과정을 통해 유예된 시민이 아닌 지금의 시민으로 청소년의 참여를 지향한다. 이는 유스필란트로피(Youth Philanthropy)를 실천하는 한 방법으로 제안되었다.

유스필란트로피는 제도적인 나눔 영역에 청소년들을 참여시키고, 청소년의 입장에서 청소년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개입하도록 기회를 제공한다. 이를 통해 지역사회 변화를 위한 청소년들의 참여를 증진시키고 청소년들이 직접적으로 기부하고 지원받는 것을 확대하며, 건강하고 민주적인 시민으로 성장해나가도록 돕는 활동이라 할 수 있다.

그동안의 아름다운재단 나눔교육에서 청소년들의 기부 혹은 모금활동을 강조하였다면, 청소년 배분위원회 활동에서는 기부된(모금한) 돈/자원을 필요한 곳에 나누는 것에 청소년의 참여와 결정을 강조하게 된다. 청소년들이 지역사회의 문제를 분석하고, 우선순위에 따라 문제들을 해결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구조를 가진다. 이러한 청소년배분위원회 활동을 통해서 청소년, 지역사회, 그리고 재단이 갖는 성과는 다음과 같다. 청소년들은 의사표현과 의사결정에 대한 신뢰, 자존감 향상, 다양한 문화와 의견을 존중, 민주시민으로서의 역량 향상, 기부와 자원봉사 등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시민참여를 목표로 한다. 지역사회는 수동적인 청소년에서 주도적인 청소년으로 청소년에 대한 관점이 변화하고, 청소년들의 지속적인 참여를 경험하게 되며, 이들과 함께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지속적인 활동이 촉진된다. 재단은 사회문제해결 방법이나 배분 방식에서 새로운 아이디어와 관점을 얻게 되고, 비영리단체와 재단의 역할에 대해 인식이 높아지며, 차세대 비영리활동가(실천가)를 양성할 수 있는 토양을 마련하게 된다.

이에 본 연구는 한국에서는 최초로 시도되는 아름다운재단 청소년배분위원회 활동이 유스필란트로피의 이론과 성과에 어떻게 연결되고, 기존의 나눔 활동들과 어떻게 차별화되어 청소년, 비영리단체, 지역사회에서 실행되는지에 대한 성과를 평가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이론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문헌고찰과 해외사례 연구를 수행하고, 성과지표와 방법을 설계하며, 측정도구를 개발하였다. 반응적 프로그램 평가방법으로 양적 사전사후측정 뿐만아니라 다양한 질적 조사방법을 고려하여 혼합방법으로 개인과 집단, 청소년과 성인, 지역사회의 변화 과정과 결과를 수집하여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한국사회에서 처음 시도된 청소년배분위원회 특성을 이해하고 현재 시민으로서 청소년의 모습을 새롭게 발견하여, 앞으로 한국적 유스필란트로피의 실천방법으로 청소년배분위원회 발전 방안을 모색하는데 기여할 것이다.

II. 선행연구

1. 청소년 참여와 프로젝트 기반 학습 활동

1) 청소년 참여의 개념

청소년 참여는 청소년들이 능동적으로 자신의 생활환경에 참여하는 기회를 의미한다고 하였다(Winter, 1997). ‘참여(participation)’는 자신의 삶에 영향을 주고,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사회에 영향을 주는 의사결정을 공유하는 과정(Hart, 1997)이다. 이는 자신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의사결정에 개입하는 것(Checkoway, 1998)이며, 자신들의 삶, 공동체 나아가 사회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의사결정 과정에 관여하는 것(천정웅, 2011)을 포함한다. 참여의 개념에서 강조하고 있는 ‘능동성’, ‘영향력의 발휘’와 ‘의사결정과정에서의 관여’를 통해 청소년들은 자신의 삶, 공동체, 사회생활에 변화를 주도하게 된다. 능동성은 청소년 자신의 판단에 따라 주체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하며, 변화를 위한 영향력 행사는 참여를 통해서 문제해결에 실제적인 영향력을 발휘되는 것을 말하며, 선택해야 하는 의사결정의 과정을 공유하고 관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황여정, 전현정, 2017).

〈표2-1〉 청소년 참여에 대한 개념적 정의와 핵심 요소

구분	청소년 참여의 개념	핵심 요소
Hart (1997)	자신의 삶에 영향을 주고,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사회에 영향을 주는 의사결정을 공유하는 과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영향력발휘 의사결정의 공유
Winter (1997)	청소년들이 능동적으로 자신의 생활환경에 참여하는 기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능동성 참여 영역으로 생활환경 강조
Checkoway (1998)	자신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의사결정에 개입하는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영향력의 발휘 의사결정에서의 개입
천정웅 (2011)	자신들의 삶과 지역공동체, 넓게는 사회생활에 영향을 끼치는 의사결정과정에서 관여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영향력의 행사 의사결정과정에서 관여

출처: 황여정, 전현정 (2017: 18) 표 1-1 재인용

청소년 참여가 지역사회에서 제대로 구현되기 위해서는 청소년에 대한 관점의 전환이 필요하다. 그동안 청소년 참여를 위한 다양한 활동과 프로그램에서 청소년들은 미래의 시민으로서 아직 시민이 안된 미성숙한 존재로 인식하고, 그들의 성장을 돕는데에 초점을 두었다. 이에 대해서 청소년은 지금 현재의 시민이며, 시민적 행동자로서 지역사회 변화의 주체로 바라보는 청소년 존재에 대한 관점의 전환이 필요하다. 청소년들은 사회에 대해 무관심하고 흥미를 느끼지 못하며, 사회구성원으로서 적절한 시민적 지식, 기술, 태도가 부족하다는 지적에 대해서, 청소년들이 가진 구조적인 문제를 들여다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청소년들에게는 사회참여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거나, 본질적인 사회구조에도 연결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우선적으로 인식해야 한다. 성인의 관점에서 청소년의 욕구 해결을 위해 '훈련과 교육' 중심의 경험 제공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기보다는, 민주주의 경험을 민주시민으로 살아가는 기회를 통해 체득하는 접근이 필요하다. 지역사회 변화의 주체로서 청소년의 활동은 그들이 얼마나 성장했는가보다는, 지역사회가 실질적으로 어떻게 변화했느냐에 성과의 초점을 두어야 한다는 것이다.

〈표2-2〉 청소년 참여에서 청소년에 대한 관점의 전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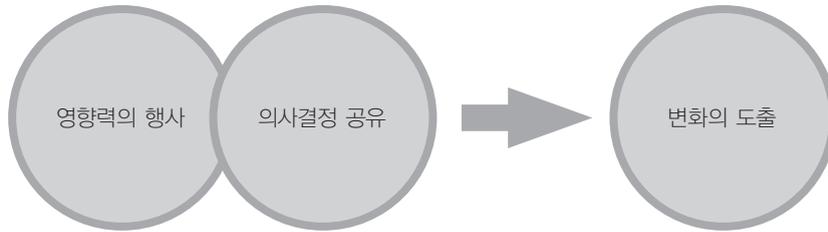
구분	준비 참여	지금 참여
청소년의 존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래 시민 • 아직 시민이 안된 존재 • 성장하고 있는 존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재 시민 • 시민적 행동자(civic actor) • 지역사회 변화의 주체
청소년의 관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에 대한 무관심, 무흥미 • 적절한 시민 지식, 기술, 태도 부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참여의 기회 주어지지 않음 • 사회구조에 연결되지 못하고 격리되어 있음
청소년의 욕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훈련과 교육 • 시민성 함양을 위한 필요한 경험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주주의 경험의 기회 제공 • 민주시민으로 살아갈 기회 제공
청소년 활동에 대한 기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년이 보여준 변화: 성과에 초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사회, 활동, 이슈에서 민주적 과정과 실질적인 변화에 초점

출처: 최윤진 (2016)에서 참조

그동안 청소년을 ‘위한’ 활동으로 기획된 활동들은 성인주도로 계획된 프로그램에 청소년이 동원되고 단순히 참가하는 활동이 대부분이었다. 이는 엄밀히 청소년 참여 활동으로 보기는 어렵다. 청소년이 자신들의 삶에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치는 의사결정과정에서 소외되어왔기 때문이다. 청소년 참여의 핵심은 의사결정의 권한을 청소년이 갖도록 하는데 있다. 성인 의사결정자가 다양한 수단을 통해 청소년의 견해를 구하는 ‘자문’과는 차이가 있다. 즉, 청소년 참여는 청소년들이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의사결정을 공유함으로써 변화를 만들어가는 것에 그 본질이 있다.

〈그림1〉 청소년 참여의 본질적 요소 (황여정, 전현정, 2017:19)



따라서 청소년 지역사회 참여 모형은 제한된 소수가 아닌 다수의 청소년들이 지역사회 참여 경험을 갖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단계적으로 청소년들이 쉽게 참여하여 작은 변화를 만들어보는 프로그램 ‘입문형’과 청소년들의 적극적 참여의지로 실제 변화를 주도하는 사회참여 프로그램 ‘실전형’으로 구분하여 기획할 수 있다. 입문형은 일반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지역사회 문제에 대한 관심을 고취하고 변화를 기획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는데 목적을 둔다. 입문형 모델을 경험한 후 좀 더 적극적인 참여 활동을 하고자 하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실전형을 적용한다. 실전형에서는 좀 더 복잡한 프로젝트를 주체적으로 주도해나갈 수 있도록 기획한다.

〈표2-3〉 청소년 지역사회 참여 모형

	입문형(Ready) 사회참여 모형	실전형(Action) 사회참여 모형
목적	사회참여에 관심을 갖게 하기	청소년 주도 사회참여 경험 기회제공
대상	청소년 일반	사회문제 해결에 관심 있는 청소년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문제에 관한 가벼운 토론 • 현장탐방이나 사람책 등 사례 접하기 • 캠페인, 일상의 변화 약속 과 같은 가벼운 사회 참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제를 발견하고 해결하는 프로젝트 수행

출처: 우성희, 허보니 (2016: 124)의 글을 황여정, 전현정 (2017:38)에서 재인용

청소년 입문형 사회참여 모형의 사례는 2015년부터 아름다운재단이 실시한 나눔교육 <반디> 활동에서 찾을 수 있다. 나에게, 내 주위에, 내가 사는 동네에 필요한 나눔을 실천할 수 있도록 아동과 청소년들이 팀으로 활동하는 것으로, 청소년들에게 실생활에 연결된 나눔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직접 실천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기획되었다. 지역사회의 문제를 이해하고 분석하며 그 해결을 위해 지역사회 내 비영리단체들과 협력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한다. 이 활동의 성과는 청소년들이 지역사회에 참여하고 좋은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역량을 강화하는데 있으며, 참여자들의 책임성, 존중, 지역사회에 참여하고자 하는 열의를 키워내고자 하였다(이민영, 윤민화, 2016).

청소년 실천형 사회참여 모형의 사례는 2017년부터 아름다운재단이 실시한 <청소년배분위원회> 활동이 될 것이다. 청소년배분위원회는 청소년이 생각하기에 더 나은 사회를 만들기 위한 이슈를 선정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활동하는 단체나 팀에게 그 프로그램의 진행 비용을 나눠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이러한 역할을 잘 수행하기 위해 재단에서는 최소한의 가이드만을 제공하며, 활동내용과 배분공모와 심사방법 등 모든 활동은 청소년배분위원회에서 함께 논의하려 결정하는 프로젝트이다. '청소년들의 사회참여 확대, 비영리 차세대 리더 양성, 청소년에 대한 관점 변화'를 위해 청소년이 주도하여 사회문제 해결에 필요한 이슈를 찾고 배분하여 직접 문제해결에 참여하는 프로젝트 기반 학습 활동이다(아름다운재단 청소년배분위원회 활동자료, 2018).

2) 프로젝트 기반 학습활동(Project-Based Learning; PBL)

(1) 프로젝트 기반 학습의 개념과 특성

프로젝트(Project)는 목표가 있는 복잡한 과업이며, 실제 학습자의 생활과 관련이 되어 있어야 하되 간단하고 단순히 성취될 수 있어서는 안 된다. 프로젝트 학습은 학습자에게 내적 동기 유발, 책임감, 긍정적인 자아개념, 협동심, 사회적 기술, 사회에 대한 관심과 문제해결력, 다양한 탐구와 표현능력, 사고의 유연성, 체험적 학습 기회를 제공하고 지도자에게는 새로운 경험을 안기며 지역사회에는 교육에 대한 관심과 역할 지각을 촉구할 수 있다(조정원, 김지혜, 2010: 215).

프로젝트 기반 학습은 문제해결을 위해 서로 협력해나가는 학습방안이다(Katz & Chard, 2000). 참여자들이 실제적인 문제를 도전하고 탐색하여 공동의 해결책을 최종 결과물로 내놓는 과정이다. 프로젝트는 뚜렷한 목적을 제한된 자원내에서 최소의 비용으로 완수하고자, 시작과 끝이 명확하게 한정되어 있는 일과성을 통해 고유한 결과물을 산출하는, 일련의 계획에 따라 행해지는 모든 과정이라 할 수 있다(조정원, 김지혜, 2010: 215). 따라서 프로젝트 기반 학습 활동에서는 개별적인 경쟁보다는 협동에 의한 팀 체제로 운영한다. 청소년들은 팀 구성원으로서 역할을 담당하고 서로간 상호작용을 통하여 팀워크와 대화기법을 키울 수 있다. 프로젝트 수행과정에서 부딪히는 여러 문제들을 능동적으로 해결해 나감으로써 창의성을 기르고 프로젝트 과제 완료에 대한 성취감을 느끼며 전체 과정에 대한 점검과 반성을 통해 자기발전의 기회를 경험할 수 있다.

프로젝트 기반 학습 활동은 실제적이고 복잡한 문제 해결을 위해서 자기주도적으로 다른 사람들과 함께 계획을 세우고 적극적으로 그 과정에 참여하며 해결책을 제시하고 그에 대하여 평가한다. 이러한 일련의 활동을 통해 문제해결력과 같은 인지적 역량과 협력적 자기효능감과 같은 정의적인 역량이 향상된다(박효선, 2016; 김윤정, 김민정, 2015). 구체적으로 성과를 살펴보면, 첫째, 문제해결력이다. 문제의 원인과 최선의 해결책 등을 탐색하기 위해 나타나는 문제 해결력을 어떻게 잘 활용했는지가 중요하다. 프로젝트 기반 학습은 해결해야 할 문제와 문제를 해결해서 얻어지는 결과로 구성되기 때문에 참여자의 문제해결력은 성공적 학습의 조건이자 결과(Blumenfeld, Soloway, Marx, Krajeik, Guzdial & Palincsar, 1991)이다. 둘째, 협력적 자기효능과 자기조절이다. 협력과정에서 서로의 학습에 대해 모니터링하는 조절활동을 하며, 본인 및 동료들도 서로 긍정적인 방향으로 촉진 안내하는 자기조절을 했는지가 중요하다. 효과적인 프로젝트기반 학습은 협력을 통해 진행되기 때문에 협력활동을 어떻게 인지하고 학습과정에서 동기와 행동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가 성공적인 성과를 설명(Alavi & McCormick, 2008)한다(조정원, 김지혜, 2010: 215).

(2) 프로젝트 기반 학습의 단계와 필수 요소

프로젝트 학습은 참여자가 전 과정에 주도성을 지니고 주제, 제재, 문제, 쟁점 등에 관한 탐구활동과 그 결과에 대한 표현활동을 하여 그 결과 만들어 가는 교육 과정의 성격을 갖고 있다(조정원, 김지혜, 2010: 215). 참여자가 사람, 대상, 사건으로 이루어진 구체적 사례의 중요한 면면에 관해 학습해가는 과정을 통해 세심한 관찰, 심층탐구, 아이디어교환, 상호지원, 논쟁해결, 협동, 협력 및 여러 중요한 경험을 할수 있는 상황을 마련해주어야 한다(Katz & Chard, 1989). 프로젝트 기반 학습에 참여하는 청소년들은 크게 두 가지 측면의 미션을 수행하는데 첫째는 주제를 선정하고 계획하며 정보를 탐색하여 아이디어를 명료화하고 종합하는 과정을 거쳐 최종적인 결과물을 산출하는 것이고, 둘째는 이러한 모든 과정을 동료 학습자들과 협력하여 이루어 내야한다는 것이다(김혜경, 2015). 이러한 미션을 잘 수행하기 위해서 학생들은 다양한 정보를 선택하고 재구성하여 활용할 수 있는 비판적 사고력과 팀원들과의 협력적 관계를 원만하게 유지할 수 있는 대인관계능력을 필요로 한다(여홍진, 2018).

미국 비영리 교육단체 벅 교육협회(Buck Institute for Education)에서는 프로젝트 기반 학습을 통해 기를 수 있는 성공역량으로 비판적 사고력/ 문제해결력, 협업능력, 자기관리능력을 제시하면서, 여덟 가지 필수 요소를 발표하였다(Lamar et al., 2015/2017).

① 학습목표

프로젝트 기반 학습에서 하는 모든 활동의 이유를 정확히 인식시켜야 한다. 프로젝트 기반 학습이 단순히 참여자들을 참여시키는 흥미위주의 방법이라는 오해가 있다. 이는 동기를 유발하기도 하지만,

궁극적 목적은 “이해가 있는 배움”이다. 현재의 이해를 높이는 것에서 더 나아가, 시간이 지난 후에도 사용하고 적용할 수 있도록 역량을 키우는 데 있다.

프로젝트 기반 학습은 3가지 구체적인 성공역량을 명시한다. ① 비판적 사고력/문제해결력, ② 협업능력, ③ 자기관리능력이다. 이 세 가지 역량은 프로젝트 학습 목표이면서 동시에 프로젝트의 목표를 성취하기 위한 필요 과정이다.

② 어려운 문제 또는 질문

문제와 질문은 프로젝트 기반 학습의 구조를 체계화하고, 학습을 의미있게 만든다. 학습에 목적을 부여한다. 문제나 질문에 초점을 두면 참여자들은 단지 기억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언제 어떻게 이 지식이 사용될 수 있을지를 배우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 또는 질문의 ‘난이도’는 여러 요소들로 결정된다. 첫째, 청소년들이 배워야 할 핵심 정보와 개념들에 대한 이해 및 적용의 수준이다. 둘째, 문제의 구조화 정도이다. 구조화되지 않은 문제는 청소년들에게 자신만의 해결방법을 만들어내기를 요구한다. 셋째, 절차의 복잡성이다. 참여자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거쳐야 할 단계의 개수가 얼마나 많은 지에 따라 난이도는 달라진다.

③ 지속적인 탐구

탐구는 책이나 웹사이트에서 정보를 찾는 가장 단순한 개념의 조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 청소년들은 전문가를 인터뷰하거나 현장 학습을 하고 실험을 해야 할 수 있다. 처음에 주어진 질문들에 대한 답을 찾으면서, 새로운 질문들을 떠올릴 것이고, 더 많은 해답을 찾게 될 것이다. 더 깊이 파고들수록 탐구는 순환을 이루고 나선형으로 발전한다. 프로젝트 기반 학습의 성공역량을 기르려면 몇 번의 회의로는 해결되지 않는 ‘어려운 문제 또는 질문’에 청소년들이 직면하게 해야 한다. 탐구는 지속적이어야 한다.

④ 실제성

실제성은 프로젝트에서 청소년 참여의 틀을 세우고 참여를 이끄는 중요한 요소로 잘 알려져 있다. 실제성은 복잡한 개념이지만, 일반적으로 학습의 경험을 가능한 ‘현실적’으로 만든다는 의미이다. 프로젝트에서 반드시 필요한 설계 요소 중 하나이다. 프로젝트 기반 학습에서 실제성은 프로젝트에 힘을 실어주고 생산성을 높여준다.

⑤ 참여자의 의사와 선택권

어려운 문제 또는 질문을 마주한 참여자들은 어떻게 그것을 해결할지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하는 연습을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그 프로젝트는 지시를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하나의 연습문제가 되고

만다. 프로젝트 기반 학습은 청소년이 프로젝트 전반에 걸쳐 자신의 아이디어를 표현하고 선택하도록 요구한다. 이런 요구는 학습과 동기 유발의 측면에서 중요하다. 프로젝트에서 청소년이 자신의 아이디어를 표현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자율성이란 기본적 욕구와 그 능력을 인정해 주는 것이다. 이는 참여자의 내적동기를 불러일으킨다.

⑥ 성찰

성찰은 프로젝트 활동의 핵심으로 청소년과 성인지도자는 프로젝트 내내 성찰해야 한다. 탐구와 프로젝트 활동이 효율적이었는지, 결과물의 수준이 어떤지, 장애물은 무엇이었으며, 어떻게 그 장애물을 극복했는지 등에 대한 성찰이 필요하다. 성찰은 프로젝트의 순조로운 진행을 돕고 혼란을 줄인다.

⑦ 비평과 개선

프로젝트 기반 학습은 비평과 개선을 통해 활동의 결과물을 향상시키는 것을 중시한다. 교사, 전문가, 멘토 등의 어른들과 동료들로부터 학습에 대한 피드백을 받을 수 있게 한다. 참여자들은 자신의 수준을 점검하고 개선할 기회를 얻는 한편, 서로의 작업을 면밀히 살피는 법을 배우고, 어떻게 하면 발전을 위한 제안을 할 수 있는지 배운다.

⑧ 공개할 결과물

프로젝트 기반 학습은 참여자가 만들어낸 결과물을 외부 청중들과 공유할 기회를 제공한다. 교사에 의해 점수가 매겨지고 노트에 기록되는 학습 결과물과 비교하면, 프로젝트 결과물은 더욱 실질적이고 중대한 것으로 인식된다. 청소년들이 결과물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이끄는 효과가 있고, 자연스럽게 참여를 증가시킨다.

(3) 프로젝트 기반 학습의 구성

이러한 일련의 프로젝트 기반 학습 단계를 성공적으로 성취하려면 다음과 같은 점을 활동 설계에서 고려해야 한다(박효선, 2016). 첫째, 문제해결력과 협력과정이 성취에 영향을 미치므로 청소년들이 서로 활발히 상호작용 할수 있는 프로젝트를 기획해야 한다. 다른 청소년들과 상호작용은 학습자들로부터 각자가 가지고 있는 특성이 다른 학습자들과 공유되고 긍정적인 방향으로 조율되는 중요한 기반으로 작용한다. 둘째, 상호작용과정에서 성인지도자에게 의존하지 않고 팀원들 모두가 책임감을 가지고 학습을 스스로 계획, 관리하고 조율해나갈 수 있도록 학습전반을 체계적으로 설계해야 한다. 협력적 자기조절이 성취에 영향을 미치므로 교수자의 개입에 맞춰 수동적으로 학습하지 않고

자율적으로 모든 학습활동을 조정하고 진행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 셋째, 자기효능감이 성취도에 영향을 미치므로 청소년들은 적극적으로 자기조절스킬을 활용할 것이고 의견교류에 편안한 학습환경을 조정하거나 작고 쉬운 형태의 프로젝트로 성공적인 협력을 경험해 볼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방법으로 부담을 덜고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지원방안을 고려해야 한다. 넷째, 성취도를 측정하는데 개인 차원의 분석뿐 아니라 팀원들 간의 협력과정에 영향을 주는 팀 자체의 특성들: 자유롭게 상호작용할 수 있는 분위기, 체계 등의 팀 관련 변인이 학습과정 및 상호작용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 자기보고식 설문 방법의 한계가 있어, 프로젝트 결과물 직접적인 점수 등 다양한 성취도 측정이 병행되어야 한다. 개인의 협력적 자기조절과 팀 전체가 팀의 학습을 조율하고 공유하는 사회적으로 공유된 조절이 협력과정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 종합적으로 탐색해야 한다.

2. 유스필란트로피 (Youth Philanthropy)

1) 개념 및 발전과정

유스필란트로피란 청소년들이 그들의 시간, 돈, 재능 등을 지역사회를 위해 나누는 활동을 의미한다. Janet Wakefield¹⁾는 “나는 무엇에 관심을 가질 것인가? (What do I care about?)”라는 질문에 청소년들이 답을 할 수 있도록 돕는 활동이라고 정의한다. 또는 전통적이고 조직화된 제도적 필란트로피에 청년들을 참여시키는 행위로 규정한다. 켈로그재단(The W. K. Kellogg Foundation)은 유스필란트로피를 ‘청소년들을 지역사회 리더로 성장시키기 위해 권한을 부여(empowering)하는 접근’이라고 정의하기도 한다. (Rosen & Sedonaen).

최초의 공식적 유스필란트로피는 1985년 워싱턴DC 주변 콜롬비아 특별구 내 수도지역 재단(The Community Foundation for the National Capital Region)의 청소년 모금과 기금 마련 프로그램이다. 1987년 캘리포니아의 마린지역재단(Marin Community Foundation)은 청소년 거버넌스와 유스 필란트로피의 결합을 시도했다. 같은 시기에 국가 범죄 예방 위원회(National Crime Prevention Council)는 보스톤재단(Boston Foundation)과 함께 청소년들을 지역사회의 자원으로 고려하기 시작하였으며, 3개의 인디애나 지역사회에 Youth as Resources(이하, YAR)를 설립하였다. 이를 통해

1) Youth in Fort Wayne, Indiana와 함께 지역사회 파트너십의 co-director

청소년과 성인 위원회는 청소년이 이끌고 주도하는 프로젝트를 독려하는데 기금을 제공하였다. 1988년 켈로그재단은 찰스 스투어트재단(Charles Stewart Mott Foundation)과 미시간재단협의회(Council of Michigan Foundations)와 함께 미시간주의 지역재단 개발을 위해 초기 기금을 설립했다. 이 매칭펀드를 지원받기 위해 재단들은 재단 내에 약 20명가량의 청소년들이 기금 추천에 참여하는 청소년자문위원회(Youth Advisory Council)를 설립해야했다. 인디애나와 미시간주를 중심으로 시작된 유스필란트로피는 지속적으로 성장과 발전을 지속해 왔다.

2) 목적

유스필란트로피의 4가지 목적

- (1) 제도적 나눔 영역에 청소년들을 참여 및 개입시키는 것
- (2) 지역사회 변화를 위한 청소년들의 참여 증진
- (3) 청소년들의 기부와 지원 확대
- (4) 미래의 건강하고 생산적인 시민 육성

유스필란트로피의 첫째 목적은 청소년들의 제도적 나눔 영역에 대한 참여 및 개입을 독려하는 것이다. 이는 청소년들의 관점, 아이디어, 창의성, 통찰력이 자선 기관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믿음에 바탕을 두고 있다. 성인들의 활동에 청소년위원회(Youth Board)를 만들고 활동하도록 하는 것은 청소년들을 중요한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하도록 하는 한편, 성인들에게 청소년들이 어떻게 비판적으로 지역사회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지를 보여 준다. 이러한 과정은 재단과 성인 참여자들에게 자신들이 청소년들과 얼마나 함께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를 검토하게 한다. 대표적 예로 미시간 지역재단의 청소년 프로젝트(Michigan Community Foundations' Youth Project)를 들 수 있는데, 이 프로젝트는 청소년 기금조성 이사회를 통해 지역재단에 청소년들의 목소리가 강력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고안되었다. 또 다른 예로는 그랑해븐지역재단(Grand Haven Area Community Foundation)의 청소년자문위원회(Youth Advisory Committee)를 들 수 있으며, 이 청소년위원회는 지역사회에서 세 번째로 큰 규모의 기금을 결정하는데 영향을 미치고 있다. 특히 청소년들로 구성된 위원회들은 지역사회의 청소년 문제와 관련된 사안에 있어 더욱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앤아버지역재단(Ann Arbor Area Community Foundation) 지역사회 청소년위원회(Youth Council) 멤버는 “기금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이들이 의사결정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둘째, 유스필란트로피는 지역사회 변화를 위해 청소년들의 참여를 증진시킨다. 유스필란트로피

활동의 중심에는 청소년들이 그들의 지역 사회를 발전시키고 변화시키는데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고, 참여해야 한다는 개념이 담겨져 있다. 인디애나주의 YAR 프로그램은 ‘청소년들은 그들의 지역사회와 학교의 변화를 위해 일하며, 일할 수 있다.’는 기본가정 아래 청소년들을 지역사회의 자원으로 인식하고 참여를 독려한다. YAR 리더들은 이러한 청소년들의 참여가 미혼모, 약물남용, 노숙, AIDS 문제들과 같은 도덕적 해이의 이슈들을 더욱 실질적이고, 효율적이며 민감하게 다루는데 기여한다고 주장한다.²⁾ 더불어 이러한 유스필란트로피 활동들은 청소년 공동체를 구성하고 견고히 하는 데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

셋째, 유스필란트로피는 청소년들의 기부와 지원 확대에 기여한다. 수많은 유스필란트로피 프로그램들은 청소년들의 박애정신과 기부, 자원봉사 등 다양한 나눔 활동이 증대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유스필란트로피는 미래의 건강하고 생산적인 시민을 육성하는데 기여한다. 청소년들이 건강한 성인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안전한 환경과 성장 기회가 필요하다. 청소년들은 성인기에 필요한 주요 기술을 습득하고, 어른들과 친구, 지역사회와 학교에서 긍정적인 관계를 형성하며 이를 이끌어 나갈 능력을 배양해야 한다. 수르드나재단(Surdna Foundation)의 시민권프로그램(Effective Citizenary)책임자인 로버트 셔먼(Robert F. Sherman)은 유스필란트로피는 청소년들에게 인간의 욕구에 대한 이해, 정치적 역정, 분석력과 인지능력 향상에 도움을 주는 강력한 도구라고 이야기한다.

3) 대표 프로그램³⁾

(1) Youth and Philanthropy Initiative 프로그램

Youth and Philanthropy Initiative(이하, YPI) 프로그램의 목적은 청소년들이 자신의 지역공동체 욕구를 알고, 측정하는 기술을 습득하며, 욕구 충족을 위해 일하는 지역 기반 자선단체들에게 보조금을 지급함으로써 직접 나눔 활동 전반을 경험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청소년들은 지역사회의 문제를 인식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지역공동체 발전에 참여하게 된다. 2002년 토론토의 로얄St.조지대학(Royal St. George's College)에서 이 프로그램을 처음 시작한 이래, 캐나다, 미국, 영국의 수백 개의 학교들이 본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다. 영국의 경우 참여 총 청소년 수는 62,000명, 현재 27,000명의 학생들이 참여하고 있다.

2) Changing Perspectives: Youth As Resources, National Crime Prevention Council

3) 유스필란트로피의 영역은 넓고 다양하다. 특히 Learning to Give 등 다양한 나눔교육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단, 본 연구는 Youth Advisory Council(YAC)의 성과측정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보다 활동적이고 기금모금 외에 배분활동에 영향을 주는 청소년 나눔활동을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다.

청소년들은 그들에게 가장 관심 갖는 지역사회 문제를 선정하고, 문제 해결을 위해 가장 훌륭하게 활동하고 있는 자선단체를 조사 및 선정하여 그 단체 활동에 대한 프레젠테이션을 실시한다. 가장 설득력 있게 발표한 팀은 YPI 기부보조금을 상으로 받아 해당 자선단체에 기부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세부 과정은 <표2-4>와 같다.

<표2-4> YPI 프로그램 과정 및 내용

과정	내용
소개 워크숍	청소년들은 홈페이지 'Welcome to YPI'의 영상을 통해 프로젝트 개요와 참여 장점을 소개받음
팀구성	청소년들은 팀을 구성하고, 자신 및 지역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사회 문제가 무엇인지에 대해 토의함
조사	각 팀은 지역사회가 필요로 하는 특정한 욕구를 밝히고 선택하며, 문제를 해결을 위해 활동하는 지역사회 기반 기관을 조사함
자선단체 선택	각 팀은 미션, 지역사회의 영향, 예산 등 다양한 요소들을 고려하여, 사회 문제를 가장 잘 다루고 있다고 생각되는 비영리기관을 선택
연락 및 방문	비영리기관을 더 잘 알기 위해 기관방문을 실시하며, 서비스를 이용자 및 직원들과도 인터뷰 진행
시상 및 보조금 지급	각 팀은 전체 학생들 및 심사자들 앞에서 최종 프레젠테이션을 실시하며, 가장 설득력 있는 프레젠테이션을 한 팀은 YPI 보조금을 상으로 받고 이를 직접 비영리기관에 기부

YPI 프로그램은 청소년들이 자신의 지역사회 내 사회 문제를 이해하고 지역기반 비영리기관에 기부를 실행하는데 의미가 있다. 이를 통해 청소년들은 지역사회에 기반한 비영리단체들과 연결되고 이에 관심을 갖게 된다. YPI 잉글랜드, 스코틀랜드, 북아일랜드 참여성적을 살펴보면 2006년 이후부터 현재까지 지급된 기부금 총액이 1백만 파운드 이상으로 집계되고 있다.

(2) 모금전문가협회(Association of Fundraising Professionals)의 Youth in Philanthropy

Youth in Philanthropy(이하, YIP)의 목표는 청소년들이 나눔을 위해 봉사하고, 윤리강령(Code of Ethical Principles), 모금의 기본(Standard of Professional Practice), 그리고 기부자권리(Donor

Bill of Rights)를 인식하는 것이다. YIP 프로그램의 중요한 기초 신념 중 하나는 청소년들은 자신들의 지역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는 가능성과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2000년 모금가협회의 스티븐 바슨(Stephen Batson)의장은 국제화(Globalization), 다양성(Diversity)과 더불어 청소년 나눔활동을 모금가협회의 세 가지 주요 전략 중 하나로 선정하고 이를 위한 TF팀을 운영하였다.

초기 YIP 프로그램은 각 지부가 20명 정도의 청소년 그룹을 발굴해서 청소년 스스로가 프로젝트를 선택하고, 모금의 이유와 목적을 발견하도록 지원하는 방식으로 구성되었다. 청소년들이 프로젝트를 선택해서 실제로 모금을 시작하면, 그 모금액에 1:1의 비율로 모금전문가협회에서 매칭 기부를 해주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아울러 청소년들이 생활철학으로서 나눔을 이해하도록 돕기 위해서 교사들에게 정보를 제공할 ‘교사지원가이드’를 개발하여 제공하고 있다. 모금전문가협회는 YIP 프로그램이 특히 위기 청소년들에게 중요하다고 본다. 일부 청소년들은 부모에 의해 나눔의 문화를 접할 수도 있고, 어떤 이들은 종교적 활동, 또는 보이с카우트 등 단체 활동 참여를 통해서 이런 기회를 접한다. 아울러 YIP 프로그램은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없다고 생각되는 청소년들까지 포괄하고자 한다. 다른 한편으로는, 부유한 환경에서 자라난 청소년들에게도 그들과 정반대인 특권 없는 가난한 청소년들만큼이나 YIP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다. 가난한 환경의 아이들이나 부유한 환경의 아이들 모두에게 직접적으로 다른 사람을 도움으로써 얻을 수 있는 연대감과 만족감이 필요함을 인식한다. 참여 청소년들은 그들이 사람들을 도움으로써 얼마나 큰 보람을 느꼈는지 표현하고 의견을 나눈다. 실제로, YIP의 경험이 있기 전에는 다른 사람들을 진정으로 도움 기회가 있는 것을 알지 못했다고 말하는 등 프로그램의 성과를 나타나고 있다.

(3) 기빙네이션(Giving Nation)

기빙네이션 프로그램은 시민성 교육에 더 많은 비중을 두고, 문제인식 및 토의, 모금, 캠페인 활동, 봉사활동 등을 목적으로 한다. 2001년 영국 정부차원에서 청소년 나눔교육사업의 일환으로 2001년에 발족되었으며, 19만명이 넘는 아동·청소년들이 참여하였고, 85만 파운드가 기부되었으며, 이 과정을 통해 청소년들과 3천개 이상의 비영리단체가 연계되었다. 청소년들은 프로그램을 통해 스스로 사회 이슈를 정하고, 시간, 재능, 현물 및 현금 기부 중 다양한 방식을 통해 프로젝트를 진행한다. 프로젝트 과정에서 이들은 비영리단체를 탐색하고 이슈를 선정하여 이를 돕는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기빙네이션은 이 프로젝트를 지원한다. 우수한 프로젝트는 시상을 하고 사례를 인터넷을 통해서 확산 시킨다(www.g-nation.co.uk). 그리고 수상을 한 청소년들에게 남아프리카나 적십자나 프로젝트 참여와 같은 해외봉사 여행의 기회가 주어진다.

(4) Youth As Resource

Youth As Resource(이하, YAS)는 1987년 인디애나주에서 시작된 청소년 기금마련 프로그램으로 미국 공동모금회(United Way), 학교, 기타 자선단체에서 청소년-성인 이사회(Youth-Adult Board)를 통해 운영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성인위원 1-2명의 지도 아래, 청소년 기금마련 프로그램 및 지역사회 프로젝트를 진행한다. 이 프로젝트의 수익자는 8세부터 18세까지의 청소년들로 구성된 소규모 단체부터 100여명으로 구성된 큰 규모의 단체까지 다양하며, 반드시 YMCA나 보이스카웃, 걸스카웃, 교회, 학교 등과 같은 비영리조직으로부터 후원을 받아야 한다. 미국의 75개 이상의 지역사회에서 청소년들이 아동지원, 공원 가꾸기, 노숙인 보호소 청소, 노인 돌봄 등 다양한 지역사회 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5) 청소년위원회 & 청소년자문위원회(Youth Committees & Youth Advisory Committee)

점점 더 많은 비영리단체들과 재단들은 청소년들이 단체의 거버넌스와 기부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확대하고 있다. 가장 대표적 방식인 청소년위원회(Youth Committees)를 조성하여 청소년들의 관점을 반영하고, 기금 사용에 관한 의사결정 구조에 참여시키는 것이다. 오늘날 대부분의 청소년위원회는 1980년대 중후반 대두된 켈로그재단과 미시간재단협의회를 통해 형성된 청소년자문위원회(Youth Advisory Council)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

청소년자문위원회는 지역재단 내의 일부 기금운용에 책임을 갖고 있으며, 위원들은 매년 기금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자선 단체들을 평가하고, 그들에게 지급할 지원금을 결정한다. 이러한 청소년자문위원회와 관련한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3. 청소년 자문위원회 (Youth Advisory Committee)

1) 목적과 역할

1988년 미시간재단협의회는 지역재단의 역량강화를 위한 기금조성을 켈로그재단에 요청하였다. 이에 켈로그재단은 이를 긍정적으로 검토함과 동시에, 지역재단들이 청소년들을 직접적으로 필란트로피 활동에 참여시킬 것을 조건으로 제시하였다. 이에 미시간재단협의회는 켈로그재단,

찰스스튜어트모트재단과 협력하여 1988년 청소년자문위원회(Youth Advisory Committees, YAC)를 발족하였다(Falk 7 Nissan, 2007).

1988년부터 1997년까지 미시간 전역에 총 86개의 청소년 기금이 마련되었으며, 각 지역재단들은 청소년자문위원회를 설치하여 영구적인 청소년들의 자문활동을 보장하도록 하였다. 청소년자문위원회는 지역재단 청소년 기금의 기금조성 및 배분 전반에 대한 책임을 갖는다. 켈로그재단은 청소년자문위원회 프로그램의 주요 목적 3가지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첫째, 청소년 영역에 대한 욕구조사 및 자원탐색을 실시하고 개입의 우선순위를 정한다.

둘째, 청소년의 자원봉사활동과 리더십 증진에 기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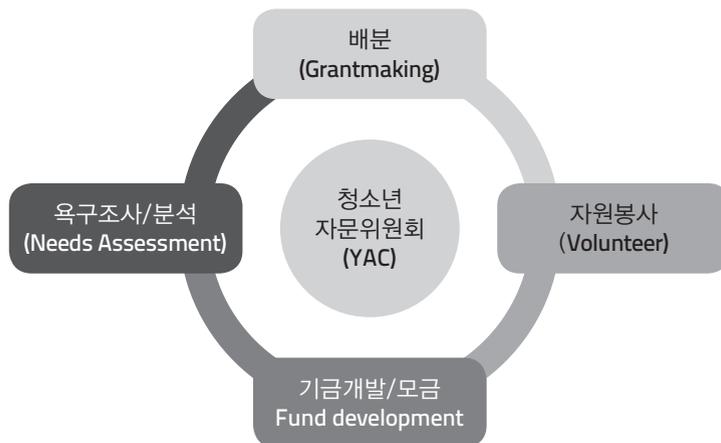
셋째, 자원개발 활동을 통해 청소년기금의 규모를 확대시킨다.

켈로그재단의 대표인 루스박사(Dr. Russ)는 미시간지역재단의 청소년프로젝트(Michigan Community Foundations' Youth Project, (MCFYP))의 지향점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미시간 지역재단의 청소년 프로젝트는 실질적 참여를 통해 청소년들에게 ‘관대함(generosity)’에 대해 학습할 기회를 제공합니다. 청소년들은 기금모금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의 다양한 문제들과 만나고, 의사결정 과정을 통해 현명한 기부(wise giving)에 대해 학습하게 됩니다.”

청소년자문위원회는 정기적 모임을 통해 지역사회 자산 및 욕구를 파악하고 모금활동, 자원봉사를 활성화시키는 등 지역사회 내 인적자원 및 리더로서 활동한다. 초기 몇 년간의 실험을 거쳐 청소년자문위원회의 활동과 역할은 발전되어왔으며, 수행되고 있는 주요 역할은(그림2)과 같다.

〈그림2〉청소년자문위원회의 주요 역할



청소년자문위원회는 배분(Grantmaking)⁴⁾과 관련된 다양한 활동과 역할을 수행한다. 청소년자문 위원들은 기관들을 직접 방문하기도 하고, 잠재 수혜자들의 프리젠테이션에 초대되기도 한다. 이들은 지원서를 검토하고, 평가 기준과 시스템을 검토하며,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예측해본다. 지역사회를 보다 잘 이해하기 위해서, 위원회는 지역사회의 욕구탐색을 수행하기도 한다. 이는 전문가나 재단 관계자와의 협업을 통해서도 이루어지며, 이후 기금사용에 대한 의사결정의 근거로 활용된다. 위원회의 또 하나 주요 역할은 지역사회 자원봉사 정신, 나눔을 고취시키는 일이다. 이는 청소년자문위원회 설립의 목적 중 하나로 위원회는 지역사회 청소년 자원봉사의 원천이 되며, 이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캠페인 등을 수행하기도 한다. 마지막으로 청소년 기금 확대와 지속적인 활동을 위한 모금개발에 참여한다. 위원들은 모금이벤트 행사에 연설자로 참여하거나, 잠재기부자 방문에 동행하여 직접 관여하고 있는 문제의 심각성과 향후 위원회의 계획을 소개한다. 이러한 활동은 때론 재단 모금가들의 요청보다 더 긍정적 성과를 가져오기도 한다.

2) 운영

(1) 구성 및 실행

2013년 미시간주 청소년자문위원회 성과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20년간 청소년자문위원회에 참여한 청소년은 약 13,500명을 넘어서고 있으며, 미시간 전역에 86개의 청소년 기금이 운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 자문위원회는 12~13세 이상의 청소년 약 20여명으로 구성된다. 각 위원회에서 운용하는 기금은 최소 \$5000에서 \$100,000에 이르며, 기금 사용의 영역은 매우 다양하다.

현재 미국을 포함하여 캐나다, 영국, 북아일랜드, 체코, 뉴질랜드 등 세계 각국의 비영리 조직 및 재단에서 청소년자문위원회를 설립하여 유스필란트로피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Tice, 2002). 보통 13-18세 청소년들로 구성되며, 2명의 성인멘토(Adult advisor)가 이 위원회를 보조한다. 성인멘토는 회의를 준비하고, 참여를 격려하며, 토론을 안내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청소년자문위원회의 주요 원칙 중 하나는 운영과 관련하여 많은 규칙을 부과하지 않는 것이다. 청소년들이 스스로 자신들의 위원회를 기획하고 발전시켜나가기 위해, 성인멘토와 재단은 매우 기초적인 지침 내에서 청소년들의 자유로운 의사결정과 활동을 보장한다. 이를 통해 청소년들이 보다 자유롭게 참여하고, 사회문제를 혁신해 나가기를 기대한다(부록2 : 미시간 청소년자문위원회의 Best Practice).

4) 위키백과에서는 Grant maker를 (US) One who decides how to allocate grants,로 정의하고 있음.

(2) 사례

■ 버트 카운티의 청소년 넥서스 프로그램(Butte County Youth Nexus Program⁵⁾)

이 프로그램은 13-15명의 고등학생으로 이루어진 위원회를 중심으로 매달 2회의 정례모임을 통해 매년 5,000달러의 기금을 마련하고 이를 지역 내 청소년들 프로그램에 지원한다. 프로그램의 효과적 운용을 위해 청소년들과 지원들은 기금마련의 방법, 재단 운영 방식, 타 자선단체 활동들과 관련한 교육을 수료한다. 이후 조직의 미션, 지침, 평가기준을 설정하고 지원금을 요청한 제안서를 평가, 인터뷰를 실시하여 기금 지원을 결정한다. 위원회 모임은 최소 1명 이상의 성인이 참석하여 지원하나, 모든 진행과 결정은 청소년위원회에 의해 주체적으로 이루어진다. 즉, 청소년들은 직접 다양한 제안서들을 읽고, 평가 기준에 따라 더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지역사회 프로젝트에 기금을 지원하는 것이다. 선정된 프로젝트로는 지역사회 노숙 청소년들을 위한 활동, 십대 미혼모 방지를 위한 소책자 제작 및 성교육 등이 대표적이다.

■ 필라델피아 스테이트팜의 원인과 결과(State Farm's Cause An Effect Competition)

스테이트팜은 페이스북을 통해 청소년들로부터 지역사회를 도울 수 있는 다양한 아이디어 제안서를 받고, 이 중 선정된 제안서를 직접 실행할 수 있도록 기금을 지원하였다. 이 과정에서 미국과 캐나다 학생들로 구성된 청소년위원회(Youth Advisory Board, YAB)가 의사결정의 중요한 주체가 되었다. 이 위원회는 다양한 제안서를 검토하고, 본선에 오를 100개의 제안서를 선정하였다. 또한 이들은 캠페인 대변인으로 활동하여 미디어와 인터뷰에 응하기도 하며 캠페인 참여를 독려했다. 이 캠페인은 미국홍보협회(Public Relations Society of America, PRSA)에서 선정하는 2013년 우수 커뮤니케이션 사례로도 선정되었다.

3) 주요 성과

청소년위원회 관련 프로그램 평가와 다양한 조사·연구는 청소년들이 프로그램에 참여함으로써 많은 혜택을 누린다는 것을 입증하고 있다. 하지만 이 프로그램의 수혜자는 청소년만이 아니며, 청소년 위원회와 함께 일하는 성인, 프로그램을 통해 지원받는 수혜집단과 지역사회 전체에 다양한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 이를 청소년 개인의 성과, 비영리기관 및 재단의 성과(함께 일하는 성인들에 대한 성과), 지역사회의 성과로 나누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5) 세상을 바꾸는 유스필란트로피(2013) 재인용

(1) 청소년 개인의 성과

청소년위원회에 참여하는 이들은 성인이 되는데 필요한 중요한 기술을 습득하고, 지역사회를 이해하며 지역사회에 대한 헌신을 심화시킨다. 더불어 다양한 성인들과 함께 일하고 논의하며, 관계를 발전시킨다. 청소년자문위원회가 최초로 설립되고 현재까지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미시간주의 경우, 2013년 지난 20년간 청소년자문위원회의 장기성과 측정을 위해 현 위원과 이전 위원들에게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총 285명이 설문에 참여하였으며, ‘청소년자문위원회 경험이 얼마나 가치 있었나?’ 를 묻는 질문에 현 위원의 48.4%가 ‘매우 가치 있다.’, 42.3%가 ‘가치 있다’ 고 응답했다. 이전 위원의 경우, 74.3%가 ‘매우 가치 있다’, 24.3%가 ‘가치 있다’ 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결과는 청소년자문위원이 청소년들에게 얼마나 큰 효과를 미치는지를 단적으로 나타내며, 더불어 그 경험은 향후 더 큰 가치로 전환됨을 증명한다.

제인스어바인재단(The James Irvine Foundation)이 지원하고 청소년 리더십 기관이 수행한 연구에 따르면, 청소년위원회 구성을 통해 청소년 개인이 얻는 성과들은 <표2-5>와 같이 다양하다.⁶⁾

<표2-5> 미시간 청소년자문위원회 활동의 주요 성과

청소년자문위원회 활동이 얼마나 도움이 되었느냐는 질문에 ‘매우 그렇다’ 혹은 ‘대체로 그렇다’ 라고 응답한 청소년들의 비율

1. 지역사회의 사람들이 처한 상황을 이해하게 되었다. 88%
2. 지역사회를 돕는 것에 더욱 관심을 갖게 되었다. 89%
3. 효과적인 의사결정을 내리는 방법을 배웠다. 95%
4.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회의를 잘 이끌어 갈 수 있다. 82%향상
5. 집단 내에서 지도자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어렵지 않다. 74%
6. 타인과 생각을 교류하고 의견을 나누는 것이 어렵지 않다. 83%
7. 타인 앞에서 프레젠테이션을 하는 것이 어렵지 않다. 74%
8. 다양한 배경의 친구들과 호의적인 관계를 구축하게 되었다. 87%
9. 어른들과 강력하고 긍정적인 관계를 구축하게 되었다. 79%
10. 대학 진학을 준비하는데 도움이 되었다. 59%
11. 대학 진학에 대한 관심을 높여주었다. 59%

이를 요약하면, 첫째,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사회와 지역사회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문제에 대한 이해 확장, 둘째, 나눔에 대한 활동성 향상, 셋째, 자기효능감 및 유능감 향상, 넷째, 성인이 되기 위해 필요한 생활기술 습득(리더십, 의사소통, 의사결정, 관계형성 등), 다섯째, 학교생활 증진 및 향후 진로

6) 청소년위원회 활동을 경험한 청소년 21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탐색에 기여로 분류할 수 있다.

① 지역사회에 대한 이해도 향상

청소년자문위원회 활동은 청소년들의 나눔, 비영리 조직, 모금, 지역사회에 대한 이해도 향상에 영향을 미친다(Tice, 2002). 프로그램 전 과정을 통해 청소년들은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의 다양한 문제들을 탐색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해결책을 모색한다. 더불어 지역사회에 현존하는 다양한 비영리기관들을 검색하고 만남으로써 비영리조직에 대한 이해, 이들이 지역사회에서 수행하는 역할을 인지하게 된다. 단지 피상적인 교육을 통한 이해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자신들이 탐색하고, 자료를 작성하고, 의사결정 구조에 참여함으로써 보다 폭넓고 깊이 있는 이해가 가능하게 된다. 이를 통해 지역의 문제와 기금조성 과정, 그리고 기금 배분 전 과정에 대한 인식이 확장된다.

이는 청소년들에게 그들의 기존 생활반경인 가족과 학교를 넘어서,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사회 전반에 대한 사고와 이웃에 대한 인식을 확장시킴으로써 공동체 인식에도 영향을 미친다. 실제로 청소년자문위원회 활동에 참여한 청소년들은 이전에 자신이 경험해 보지 못한 문제들에 노출된다. 이들은 욕구조사와 지역사회 비영리기관들을 통해 노숙, 약물 남용, 10대의 임신, 그리고 지역사회에 내 청소년들이 직면한 빈곤과 같은 문제와 마주하게 된다. 미시간 청소년자문위원회에 참여했던 한 위원은 그들 그룹이 어떻게 지역사회에서 10대들이 가장 높은 노숙자 비율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는지를 설명하며, 이후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신들이 고안한 ‘노숙인 인식 프로젝트’를 설명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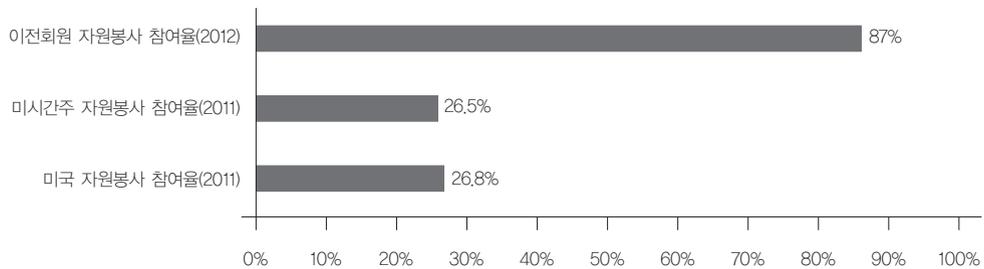
지역사회 욕구조사들을 통해 인식된 사회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청소년들은 지역사회 다양한 자원 및 기관들을 탐색하게 되고 이러한 과정을 통해 사회전반에 대한 인식이 확장되게 된다. 그들은 기금조성 제안을 통해 비영리단체의 내부 활동 및 프로그램을 검토하고, 비영리단체의 리더들과 접촉한다. 한 현직 청소년자문위원은 “항상 자원봉사를 해왔지만, 위원회에 들어가게 되면서 마치 모든 새로운 세상이 열린 것 같습니다.”라고 이야기했다. 즉, 청소년들에게 청소년자문위원회 활동 전반은 지역사회, 자신이 살아가는 사회에 대해 새로운 인식의 지평을 넓히는 계기가 된다.

② 나눔에 대한 활동성 향상

청소년자문위원회 활동은 청소년들의 지속적 기부와 자원봉사 활동에도 기여한다. 미시간주의 청소년자문위원회 이전 위원들의 자원봉사⁷⁾ 현황은 2012년 전체의 87%가 자원봉사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비율을 2011년도 미국 전체(26.8%), 미시간주(26.5%)의 자원봉사 비율과 비교해본 결과 약 3배 이상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7) 지난 12개월 혹은 그 이상 자원봉사를 해온 경험이 있는가를 묻는 질문. 이전 조사들을 취합한 데이터에서도 최저치는 73%(2002년), 최고치는 94%(1996년)로 매우 높은 자원봉사비율을 나타내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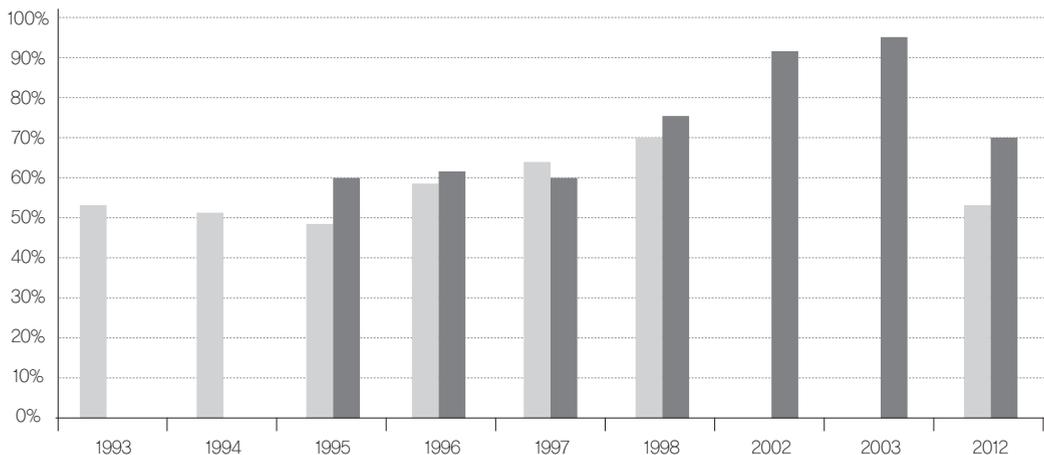
〈그림3〉 청소년자문위원회 이전위원 자원봉사 참여율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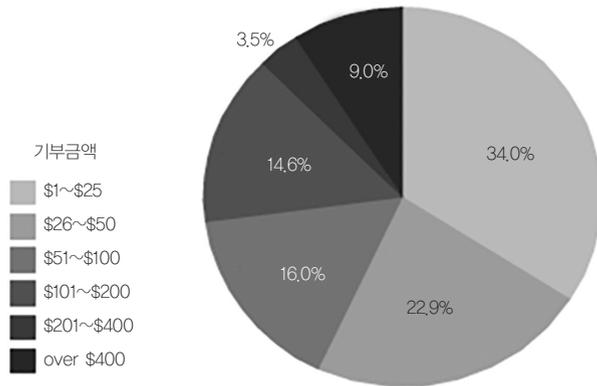
이들의 자원봉사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본 결과, 이들 중 절반은 하루 종일 봉사하거나, 행사를 준비하는 것과 같은 특별한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 중 52명은 정기 자원봉사를 수행하며, 21명은 비영리기관의 이사로 활동한다. 이들이 활동하는 자원봉사단체의 범주는 매우 넓고 다양하며, 무료 급식소, 동물 보호 단체, 재활용 단체, 병원, 교육 기관, 종교 단체 등이 포함된다. 이들은 이전에 자신들이 청소년자문위원회 참여 경험을 통해 습득한 기금 모금, 자금 조달, 프로젝트 관리와 같은 기술들이 현재 자원 봉사 활동에서 유용하게 활용되고 있다고 이야기한다.

이 위원들의 자선단체에 기부금 현황을 살펴본 결과, 현 위원의 50% 이상이, 이전 위원의 3분의 2가량이 지난 12개월 동안(2012년 기준) 기부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이전 조사자료를 살펴본 결과, 이전 위원의 기부참여율이 현 위원보다 높으며(1997년 제외) 2002년과 2003년은 90%이상의 이전 위원들이 기부에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의 총 기부금 분포는 50달러 미만이 약 57%를 차지하였으나, 100달러 초과도 약 27%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4〉 청소년자문위원회 위원 기부 참여율



〈그림5〉 청소년자문위원회 위원 기부금 현황



이 연구는 가장 중요한 변화로 나눔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언급하고 있다. 청소년자문위원회에 참여한 청소년들은 필란트로피 정신을 전파하는 것을 사명으로 여기며, 변화를 위해 큰 돈이 필요하다고 여기지 않는다면 지속적으로 참여하기 위한 평생지식을 습득하게 되었다고 평가한다.

③ 성인기에 필요한 역량 학습

청소년자문위원회 활동은 청소년들의 나눔, 비영리 조직, 모금, 지역사회에 대한 이해도를 높임과 동시에 리더십 향상에도 영향을 준다(Tice, 2002). 리더십 이외에도 의사소통능력, 언어능력 발달, 문제해결능력, 프로포절 이해 및 평가, 예산 관리, 협력 방법, 발표능력 등을 향상시킨다. 이는 청소년 개발(development)의 대표적 프로그램 중 하나로, 참여 청소년들은 성인기에 필요로 하는 다양한 역량을 학습할 수 있다.

청소년자문위원회 활동은 인지적 측면에서 지역사회에 대한 이해 외에도, 문제해결을 위한 창의적 사고, 논의와 토론을 통한 비판적 사고, 지역사회 참여를 통한 시민의식 향상에 영향을 준다. 이렇게 발전된 사고는 프로그램 진행을 통해 향상된 다양한 생활기술과 연계되어 실질적인 변화를 가능케 한다. 미시간주의 청소년자문위원회 위원들은 자신들이 법적으로 미시간 주에 있는 비영리단체의 이사회에 참여할 자격이 없다는 것을 발견하고, 이러한 법을 개정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그 결과, 청소년 이사회 조례가 1998년에 통과되어 16세~17세 청소년들이 비영리 이사회에서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되었다(Community Research Institute & Johnson Center, 2013).

더불어 청소년자문위원회는 전 세계의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청소년들과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다. 이러한 네트워크 활동은 문제해결을 위한 네트워킹 기술을 습득하게 하며, 다양성을 가진 또래 청소년들과의 의사소통, 관계형성 방식도 학습하는 계기가 된다.

④ 자기효능감 및 유능감 증진

켈로그재단의 ‘청소년들을 지역사회 리더로 성장시키기 위해 권한을 부여(empowering)하는 접근’이라는 유스필란트로피의 정의와 같이(Rosen & Sedonaen), 자아정체성, 자기효능감을 형성해나가는 청소년기에 청소년자문위원 활동은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

비영리기관이나 재단은 기금운용과 관련된 전반적 의사결정 권한 모두를 청소년들에게 위임한다. 그리고 이 활동에 참여하는 청소년들의 의견과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그들이 지역사회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음을 신뢰한다. 이러한 권한부여의 전 과정은 청소년들에게 자신들이 지역사회 변화에 동참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변화의 주체가 될 수 있음을 확신시킨다. 청소년자문위원회의 한 성인 멘토는 “위원회는 청년들에게 그들과 그들의 동료들에게 중요한 문제들에 대한 진정한 의사 결정권을 준다. 이것은 그들에게 지역 사회를 위한 긍정적인 결과를 만들기 위해 어디에 투자할지를 결정하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보람 있는지를 경험하게 한다.”고 이야기한다. 지역사회의 문제를 발굴하고, 심의하고 지원하며, 효과성을 관찰하는 전 과정은 청소년들에게 보람과 자기효능감을 증진시키게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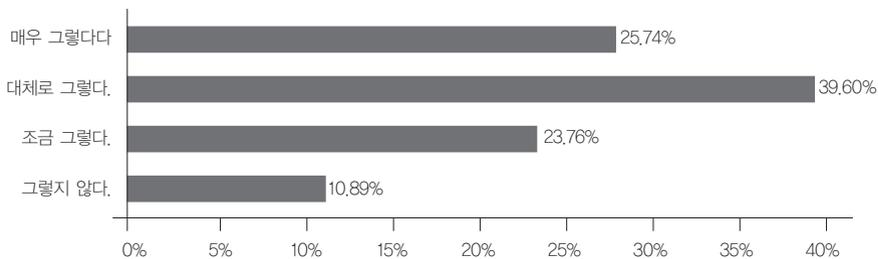
청소년자문위원회 운영 원칙에 청소년들의 자율권과 결정권을 존중하며, 기본적 규정 내에서 활동할 수 있는 재량권이 폭넓게 보장된다는 내용이 포함된다. 이는 아무리 작은 액수라 해도 결정권을 가진 청소년들에게 권한을 일임하며, 이들의 결정을 성인들이 존중함을 의미한다. 이러한 전 과정을 통해 청소년들은 자신들의 의견과 목소리에 힘을 갖게 되며, 자신 스스로가 지역사회 변화를 이끌어 나갈 가능성에 주목하게 된다. 미시간 프로그램에 참여했던 청소년들의 경우, 처음에는 자신의 의사표현에 주저하는 경향이 있었으나, 지속적인 활동을 통해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는 자신감을 얻게 되었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한 관계자는 이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동안 청소년들에게 ‘당신은 유능하고, 똑똑하다. 그리고 좋은 결정을 내릴 수 있다.’ 라고 독려하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하고 있다(Community Research Institute & Johnson Center, 2013).

⑤ 학교생활 증진 및 향후 진로 탐색에 기여

버트카운티 청소년 넥서스 프로그램의 위원회에서 2년간 활동했던 한 청소년위원은 청소년자문위원회 활동이 자신감 향상 뿐 아니라 학교성적에도 도움이 되었다고 이야기한다. 학교생활을 더 잘하는데 동기부여가 되었으며, 영어성적이 향상되었고 친구들이 자신의 의견을 구하는 등 긍정적 변화를 가져왔다. 위원회 초기에는 다른 이들 앞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어렵고 힘들었지만, 회기가 진행되면서 회의를 이끄는 능력, 자신의 의견을 피력하는 능력 등이 상당히 발전되었다고 한다. 위원회 활동을 통해 습득하게 되는 제반 역량은 성인기 뿐 아니라 현재 청소년들의 학교생활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치며, 언어 능력, 읽기 능력 등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청소년자문위원회 경험은 현재의 학업과 학교생활 이외에 청소년의 진로탐색과 향후 직업선택 과정에도 영향을 미친다. 미시간의 청소년자문위원회 성과 연구에 따르면, 위원회 활동은 청소년들에게 비영리영역의 실질적 경험을 제공하고, 이중 일부는 비영리영역을 그들의 직업으로 고려하게 된다고 보고한다. ‘청소년자문위원회에서의 경험이 자신의 학업과 진로탐색에 얼마나 영향을 주었는가?’ 를 묻는 질문에 매우 그렇다가 25%, 대체로 그렇다가 약 40%로 참여자의 65%가 긍정적으로 답변하였다(〈그림6〉 참조).

〈그림6〉 청소년자문위원회 활동이 학업과 진로탐색에 미친 영향 정도



이러한 진로탐색 및 향후 직업선택에 미치는 영향력은 참여자들과의 인터뷰를 통해서도 나타나고 있다. 청소년자문위원회 경험을 통해 청소년들은 비영리 분야를 잠재적인 경력 영역으로 간주하기 시작했으며, 자신의 적성을 발견하고 구체화하는 작업들을 진행하게 된다.

(2) 재단의 성과

성인들만의 영역으로 간주되던 기금조성 전반에 대한 청소년들의 의사결정 참여는 재단과 이와 함께하는 다양한 성인들에게도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청소년위원회 활동이 지역재단에 주는 긍정적 영향력은 다음과 같다(Community Research Institute & Johnson Center, 2013).

첫째, 재단의 신뢰도와 가시성을 향상시킨다. 외부 인력인 청소년들의 기금조성 및 배분 전 과정에 걸친 참여를 통해 재단의 운영의 투명성은 강조된다. 청소년들은 매년 다양한 활동과 이벤트를 통해 지역사회와 소통하고 함께 활동한다. 이러한 활동들은 지역사회 내에 재단의 역할과 기능, 효과성을 알리는 유용한 통로가 된다.

둘째, 청소년위원회 활동은 지역사회의 중요 이슈에 대한 재단의 리더십을 강화시킨다. 위원회는 새로운 지역사회의 문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해결방안을 모색한다. 따라서 재단은 지속적으로 새로운 이슈와 욕구를 파악하고 이에 대한 개입을 실행하게 되며, 이러한 과정은 재단을 지역사회 내에 문제해결의 리더로 위치할 수 있게 만든다.

셋째, 청소년위원회는 청소년 관련 이슈에 대한 지원의 효과성을 증진시키며, 동시에 재단 내 청소년의 관점을 반영하게 한다. 청소년위원회는 청소년들에게 직접적으로 권한을 부여하고 이를 통해 참여를 증진하는 활동이다. 청소년위원회는 지역사회의 다양한 영역에 관심이 많으나, 특히 청소년들의 문제해결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따라서 자연스럽게 재단의 청소년 문제해결 역량 향상과 재단 내의 폭넓은 이슈에 청소년들의 관점이 반영되는데 지속적으로 기여해 왔다.

넷째, 청소년위원회의 적극적이고 활발한 활동들은 이 프로젝트와 관계된 성인들의 인식변화에도 영향을 준다. 기존에 어리고 미숙할 것이라고 예측되었던 청소년들에 대한 인식은, 성인들이 미처 발견하지 못했던 사회문제 발굴, 창의적인 문제해결 방안 제시, 청소년들의 입장에서 그들을 적극적으로 옹호하는 위원회 활동들을 통해 점차 변화되고 있다. 이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성인 멘토나 재단 관계자들은 청소년들의 성숙한 위원회 활동에 놀라움을 표하며, 점차 이들의 의견을 더욱 적극적으로 재단활동에 반영하고 있다.

(3) 지역사회의 성과

청소년위원회는 비영리기관과 지역재단의 범주를 넘어서 지역사회 자체를 변화시킬 잠재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더욱 주목된다. 위원회 활동이 지역사회에 가져오는 성과를 살펴보면, 첫째, 청소년들의 직접적인 참여활동의 효과성을 지역사회에 증명했다는 점이다. 청소년들은 자원봉사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비영리조직을 방문하며, 다양한 의사결정 집단에서 의견을 피력한다. 또 지역사회를 대상으로 다양한 사회문제를 알리고, 지역사회가 이에 동참할 것을 설득한다. 이러한 총체적 활동들은 지역사회 주민들의 인식을 변화시키며, 청소년들의 활동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지지를 보낼 수 있도록 돕는다. 둘째, 기금조성을 통해 청소년 문제가 해결되고 있다. 청소년위원회 설립의도와 같이, 청소년들의 활동을 통한 보다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청소년 문제해결은 그 성과를 보이고 있다. 수많은 청소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위원회는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으며, 청소년의 술 혹은 약물 중독, 노숙, 성문제, 십대 임신 등 수많은 문제해결에 기여하고 있다. 셋째, 청소년위원회 구성은 영구적이고 지속적인 청소년 참여활동의 기틀을 마련했다. 이전의 청소년은 상대적으로 피동적이고 수동적인 주체로 인식되어 왔다. 즉, 성인기에 도달하기 이전의 부족하고 미흡한 존재로 이해되던 청소년들이, 위원회 활동을 통해 그들의 잠재력과 역량을 증명하고 있다. 이는 비영리기관과 재단에 새로운 관점과 동력을 제공하며, 향후 보다 적극적 개입이 예상된다.

(4) 종합

선행연구를 통해 도출된 청소년배분위원회 활동의 성과는 <표2-6>과 같이 요약된다.

〈표2-6〉 청소년배분위원회 활동의 성과 요약

청소년 개인의 성과	재단의 성과	지역사회의 성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사회 이해도 향상 • 나눔 활동성 향상 • 성인기 필요역량 학습 • 자기효능감 증진 • 학교생활 증진 및 향후 진로 탐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단 신뢰도 · 가시성 향상 • 재단의 리더십 강화 • 청소년 지원 효과성 증진 • 관계자의 인식 변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년 참여활동의 효과성 입증 • 기금조성을 통한 청소년 이슈 해결 • 지속적인 청소년 참여의 기틀 마련

이 중 재단의 성과와 지역사회의 성과는 프로그램의 장기적 성과에 해당된다. 단기적 성과인 청소년 개인의 변화에 주목해서 본 연구에서는 구체적으로 청소년들의 리더십과 비판적 사고 역량함양에 기여하는지를 평가하고자 한다.

① 청소년 리더십 생활기술

생활기술의 기원은 1904년 Miller가 청소년조직의 구성원들에게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는데서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그는 생활기술이란 용어는 사용하지 않았지만 오늘날 생활기술습득과 단체 활동을 강조하는 청소년교육프로그램에 해당하는 프로그램들을 장려하였다. 그 후 생활기술의 개념은 1960년대 후반과 1970년대에 걸쳐 미국에서 활발하게 논의되어왔다.

생활기술은 청소년들이 변화와 도전에 직면한 현대사회를 살아가는데 있어 없어서는 안 되는 필수적으로 습득해야할 중요한 요소이다. Schinke와 Gilchrist(1984)는 “생활기술이 청소년들이 현재의 문제를 해결하고 미래의 문제들을 예견하고 방지하며 정신적 건강과 사회적 역할, 경제적 부와 물질적 풍요를 얻게 한다”고 주장하였다. Himsl(1973)은 생활기술이란 ‘어떤 개인이 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응용되는 가장 적절하고 책임 있는 문제해결행동’으로 정의하였으며, 이는 현대사회를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공통된 핵심수단들인 인간관계기술, 문제해결기술, 자신의 가치에 대한 이해 등을 지칭한다(Mullen, 1981).

Wetherford와 Weatherford(1985)는 기존의 생활기술의 개념에 대한 논의를 정리한 바 있다. 구체적으로 생활기술에는 능력(competency), 대처(coping), 공헌(contributory)의 세 가지 영역이 있으며, 능력은 자신과 주위 세계에 대한 지식과 기술을 개발시키는 것을 의미하고, 대처는 대인관계기술의 개발을 통한 정체성을 확립시키는 것이다. 또한 공헌은 자신과 다른 사람들이 상향적, 개인적 장벽을 제거할 수 있게 하는 분배와 사회적 공헌을 증가시켜 나가는 것이라 하였다(Weatherford, D & Weatherford, C, 1985; 최창욱, 2001재인용). 생활기술개념의 하위영역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의 〈표2-7〉과 같다.

〈표2-7〉 청소년 생활기술의 하위영역 구성

능력(Competency)	대처(coping)	공헌(contributory)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제해결과 의사결정 • 건강한 행동 • 환경파수꾼의 역할 • 평생학습능력 • 전문적 지식인의 자부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긍정적 직무태도와 기술 • 가족, 동료, 지역사회와 긍정적 관계 • 의사소통 기술 • 다양성 존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동체의식과 사회적책임 • 리더십 기술 • 지역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중요한 구성원이라는 자기인식

생활기술 중 공헌의 하위영역에 속하는 리더십 생활기술은, 1976년 Miller가 리더십과 생활기술이란 용어를 접목하여 ‘리더십생활기술’이란 용어를 처음 사용하면서 개념이 자리 잡았다. 그 개념은 ‘실제 생활 속에서 리더십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요청되어지는 생활기술의 자기 평가적이고(self-assessed), 조직과 관련된(organization-specific)부분’을 의미한다. Miller의 개념 정의 이후 하위영역에는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많은 학자들이 그 내용을 기초로 하여 개념을 정의하였다. Boyd(1991)는 상호의존적인 사회를 살아가기 위해 유용하게 사용되어지는 능력으로서 리더십생활기술을 정의하였으며, 이에 커뮤니케이션능력, 대응능력, 인간관계능력, 문제해결능력, 의사결정능력이 포함된다고 하였다.

이러한 청소년시기에 리더십 생활기술의 기본을 갖도록 하는 교육은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기술로서 매우 바람직함에도 불구하고 그 필요성조차 제대로 인식되지 못하고 있다(Bennis&Nanus, 1985; Astroth, 1996). 청소년들은 학급대표나 학생회 임원과 같이 재능이 뛰어난 몇몇 동료들만 리더로 한정하며, 자신을 리더의 범주에 속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하게 되어 결국 자신이 잠재적 리더십을 망각하게 된다(Linden & Fertman,1998; Kleon & Rinehart, 1998).

청소년이 성공적인 성인기로 이행하기 위해서 성인기에 필요한 여러 기술들이 이 시기에 습득되고 학습될 필요가 있다(Kohler,1981). 청소년기에 리더십생활기술은 성인으로 성장하는 과정에 필요 한 필수 생활기술이며 청소년의 사회성 향상 및 인성에 도움을 줄 수 있다. 리더십생활기술의 하위영역으로는 커뮤니케이션기술(communication skills), 의사결정기술(decision-making skills), 조직관리 기술(management skills), 인간관계기술(skills in getting along with others), 학습능력 기술(learning skills), 자기이해기술(skills in understanding self), 그룹활동기술(skills in working with groups)이 포함된다(엄완용, 200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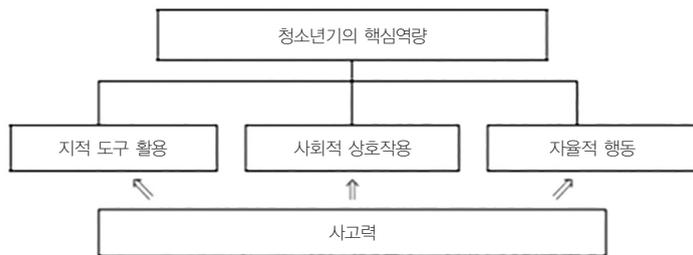
② 비판적 사고성향

우리나라 교육은 지식기반사회의 도래에 따라 새롭게 요구되는 개인의 능력이나 자질을 키우는데

뒤쳐져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지식기반사회에서 일상생활은 물론 직업생활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읽고 쓰고 말하는 기초능력뿐만 아니라 문제의 원인을 규명하고 비판적으로 사고하며 다른 사람을 설득하고 갈등을 해결하는 등 생애에 걸쳐 요구되는 역량(competency)이 중시된다. 이와 함께 지식기반사회에서는 기존에 존재하는 사실이나 지식에 대한 단순한 수용이나 암기보다는 창의력과 같이 새로운 지식을 창출하거나 기존의 지식들을 종합하는 능력을 요구한다. 최근에는 이것을 기존의 다중지능(multiple intelligence)이나 특정한 기술과는 구분되는 핵심역량(key competency)이라고 정의한다(김기현 외, 2009)

OECD의 DeSeCo 프로젝트⁸⁾에서 정의하고 있는 핵심역량이란 생활 장면을 통틀어 중요하다고 보여지는 능력으로서 성공적인 삶과 순기능적인 사회에 기여하는 능력을 의미한다(Rychen & Salganik, 2001, 2002, 2003). 이 핵심역량은 크게 세 가지 영역-지적도구 활용, 사회적 상호작용, 자율적 행동-으로 구성된다(〈그림7〉 참조). 그리고 이 세 가지 지적도구 요인에 공통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핵심 요인으로 김기현 외(2009)의 ‘청소년기 핵심역량’에서는 사고력을 추가하고 있다. 이러한 사고력은 세 가지 핵심역량의 기반이 되며, 세 영역의 공통 역량으로 해석된다. 사고력의 대표적 구성요인인 비판적 사고력은 비판적사고기술과 사고성향으로 나뉘며, 본 연구에서는 기술배양의 기초가 되는 사고성향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비판적 사고 성향검사의 문항은 진실추구성, 개방성, 탐구성, 객관성, 체계성, 자기신뢰성 등 6가지 요인들로 구성된다.

〈그림7〉 우리나라 청소년기 핵심역량 영역체계(김기현 외, 2009)



기존 연구에서는 비판적 사고력이 다양한 방법과 기법을 통해 개발·향상 될 수 있음을 언급한다. 즉, 비판적 사고력의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한 기존의 연구들은 프로그램의 적용을 통해 대상자의 비판적 사고력이 증진되었음을 경험적으로 보고하고 있다(Chen & Lin, 2003:

8) '핵심 역량' 개념이 등장하면서 직업생활과 일상생활 영역에 필요한 역량에 대한 '생애(life)' 개념이 주목되었다. 대표적 사례는 OECD DeSeCo 프로젝트를 들 수 있는데, 이 프로젝트는 12개국(오스트리아, 벨기에, 덴마크, 핀란드, 프랑스, 독일, 네덜란드, 뉴질랜드, 노르웨이, 스웨덴, 스위스, 미국 등)의 참여로 1997년부터 2003년까지 7년간 추진되었다.

Mentkowski & Strait, 1983). 구체적으로, 비판적 사고력 증진을 위해서 소규모 학급의 토론식수업, 학생중심수업(McKeachie, 1970; 박선환, 1999; 서금택, 2009), 스토리텔링 또는 이야기구성(신수진, 강명숙, 2007; 엄성숙, 2009; Chen & Lin, 2003; Schwartzman, 1984) 등의 방법이 적용되어 비판적 사고력 증진을 위한 프로그램이 개발 되어왔다(임영식 외, 2011 재인용).

청소년배분위원회 활동의 경우, 소규모의 토론식 프로그램임과 동시에 청소년 중심의 PBL적 요소를 지닌다. 더불어 다양한 프로포절을 심사하고, 배분 지원을 결정하는 과정을 통해 청소년들의 비판적 사고력이 증진되었는가를 평가하고자 한다.

Ⅲ. 성과평가 설계

1. 청소년배분위원회 활동 개요

1) 원칙

앞서 문헌고찰을 바탕으로 아름다운재단 실무진과 연구진의 논의를 통해 정리한 각 목표에 대한 구체적 설명은 다음과 같다.

첫째, 성인기에 필요한 생활 역량 측면에서 청소년들이 청소년으로써 주인의식, 주체성, 책임성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것을 기대한다. ‘어른들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청소년들도 충분히 할 수 있다.’, ‘나에게 결정권이 있다’는 인식의 실천을 통해서 성인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청소년다운 시각으로 의사결정에 참여한다.

둘째, 생활과 진로탐색 측면에서 수용적이고 협력적인 태도를 배우며, 비영리단체로의 진로를 확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한다. 소그룹활동을 통해서 협동과 협력의 중요성을 알고 다른 의견에 대한 수용적인 태도를 기르며 이를 통해 사회전체의 다양한 이슈에 대한 수용력을 키운다.

〈그림8〉 청소년배분위원회 원칙

청소년배분위원회에서 세운 청소년배분위원회

청소년배분위원회는 각자 다른 성향을 가진 청소년이 모여 배분분에 대해 고민하고 같은 세대인 청소년에게 배분을 하고 공감을 한다.

청소년배분위원회 활동과 배분을 통해 사회에 알리고 싶은 것

청소년도 사회 이슈에 관심이 많다는 것, 단순히 보호 받아야 할 것 청소년이 아닌 청소년도 (스스로 누군가를) 보호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알린다.



모든 결정권은
청소년에게



프로그램이 아닌,
경험과 연결



가상이 아닌,
실제 참여

셋째, 지역사회 이해 측면에서 청소년들은 내가 사회에 역할을 하는 구성원이라는 정체성 인식을 기반으로 사회문제와 사람들에 대한 공감력을 높인다. 타인의 문제가 나와 연결되어 있다는 관점으로 직접적으로 문제를 보고 분석하며 해결을 위한 다양한 대안을 탐색한다.

넷째, 비영리와 나눔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직접적으로 비영리단체와 활동을 체험하면서 공공성과 공익성에 대한 인식을 높인다.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를 통해 비영리단체의 일에 대한 가치를 이해하며, 나아가 ‘비영리단체 일이 매력적이다’와 같은 긍정적 이미지를 갖고 향후 일할 수 있을 것을 기대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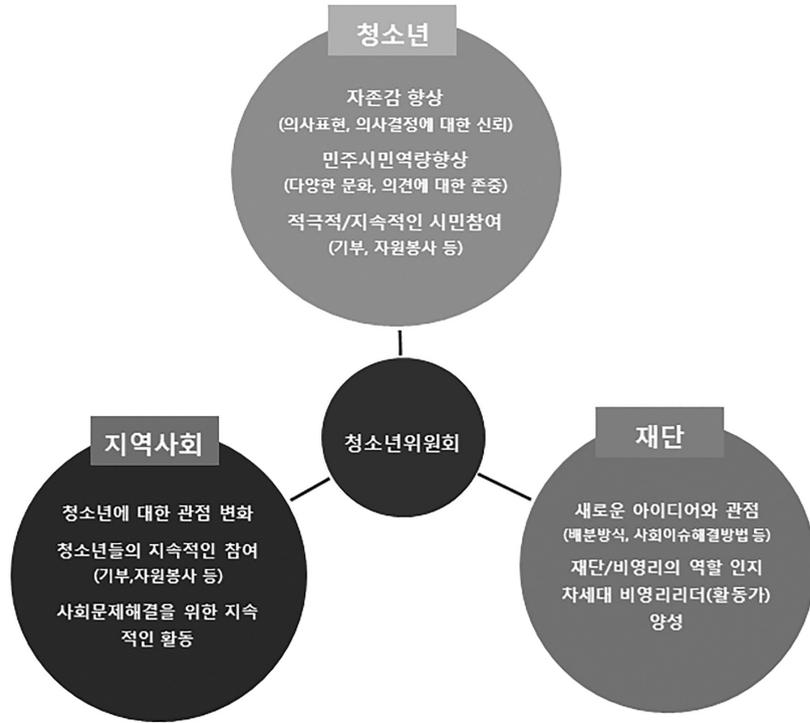
2) 목표

아름다운재단 청소년배분위원회는 청소년의 목소리로 사회변화를 위한 프로젝트를 선정하여 기금 배분을 통해, 1) 청소년들의 사회참여 확대, 2) 비영리 차세대 리더 양성, 3) 청소년에 대한 관점 변화를 목적으로 기획되었다. 이를 위해 청소년배분위원회는 단순히 성인만이 배분을 하는 것이 아닌 각자 다른 성향을 가진 청소년이 모여 배분에 대해 고민하고 같은 세대인 청소년에게 배분을 하고 공감을 하는 위원회이다. 청소년배분위원회 활동을 통해서 청소년도 사회 이슈에 관심이 많다는 것과 단순히 보호 받아야 할 청소년이 아닌 청소년도 (스스로/누군가를) 보호하고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사회에 알리고자 한다(아름다운재단 청소년배분위원회 기획안, 2017).

이는 “실전형 청소년 사회참여 모형”으로 사회문제 해결에 관심있는 청소년들이 사회 문제를 발견하고 해결하는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성격을 갖고 있다. 청소년 참여의 핵심은 의사결정의 권한을 청소년이 갖도록 하는데 있다. 성인 의사결정자가 다양한 수단을 통해 청소년의 견해를 구하는 ‘자문’과는 차이가 있다. 아름다운재단 청소년배분위원회는 ‘위원회’의 성격을 가지고 있지만, ‘모든 결정은 청소년에게’, ‘프로그램화 하지 않기’, ‘가상이 아닌 실제 참여’라는 원칙을 세우고, 청소년들이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의사결정을 공유함으로써 변화를 만들어가는 ‘청소년 참여’의 본질을 배분활동으로 구현하고자 한다.

청소년에게 ‘권한’을 주면서 ‘동료 시민’으로 마주하는 것이 아름다운재단 청소년배분위원회의 목적이다. 구체적으로 활동의 목표는 청소년배분위원회 참여 청소년에게 자존감 향상, 민주시민역량 향상,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시민참여를 기대한다. 지역사회에게 청소년에 대한 관점 변화, 청소년들의 지속적인 참여, 사회문제해결을 위한 지속적인 활동을 기대한다. 또한 아름다운재단이 활동을 통해 새로운 아이디어와 관점, 재단과 비영리단체의 역할에 대한 인지, 차세대 비영리리더 양성을 기대한다.

〈그림9〉 아름다운재단 청소년배분위원회 목표



3) 구성 및 내용

아름다운재단 청소년배분위원회는 청소년이 생각하기에 더 나은 사회를 만들기 위한 주요 이슈를 선정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단체나 팀에 그 프로그램의 비용을 나누어주는 역할을 한다.

1년 동안 월 2회 둘째, 넷째 토요일에 오전 2시간동안 재단에서 모임을 갖는 것을 첫 기준으로 하고, 청소년들이 가장 즐겁고 효율적으로 활동하기 위해서 스스로 얼마나 자주, 언제, 어디서 모이는 것이 좋은지 논의하며 결정해나가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첫 배분위원회는 10여명의 청소년들이 참여하여, 전체가 한 팀으로 혹은 소그룹으로 나누어 활동을 한다.

오리엔테이션을 통해서 이러한 프로그램에 대해 설명하고, 집단활동에 대한 감수성, 기부, 재단, 배분에 대한 기본 개념을 소개한다. 또한, 재단의 (성인) 배분위원회의 활동과 자료를 참관하여 배분위원회의 역할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돕는다. 이 후의 활동은 '이슈조사 분석 → 청소년들이

생각하는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하는 우선 이슈 선정 -> 이슈에 해당하는 프로젝트 배분(공모 방식, 대상 선정까지 토의)의 과정을 거친다. 구체적으로 재단이 일반적으로 계획한 활동을 진행하기 보다는 '사회변화를 만들어내는 효과적인 배분'을 위해 무엇을 보고 배우고 경험해야 하는지 청소년배분위원회 내에서 논의할 수 있도록 한다. 청소년들은 1천만원의 금액에 대한 세부 심사기준도 직접 결정하며, 배분단체의 이슈레이징 역할과 사회문제 해결과정에 직접 참여하도록 한다.

청소년배분위원회를 지원하는 성인멘토는 2명으로 청소년들이 책임감을 가지고 결정을 내릴수 있는 권한을 주고, 이들이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고 안내하는 역할을 한다. 청소년들이 개인적으로 성장하고, 주체적으로 문제해결을 해나갈 수 있도록 멘토링을 한다. 재단은 활동 유지를 위한 재미요소, 이슈분석, 비영리단체 소개, 재단 활동 참관 등의 기회를 제공한다.

〈표3-1〉 아름다운재단 청소년배분위원회 주요 활동

no	구분
1	오리엔테이션
2	기관방문
3	배분위원 워크숍
4	배분 방향성 논의 및 기준 선정
5	배분 공고 및 모집
6	배분심사
6-1	서류심사
6-3	면접심사
7	배분 실행 및 모니터링
8	배분 결과보고

2. 평가방법

청소년배분위원회는 새롭게 설계된 유스필란트로피 교육 및 청소년 참여 활동이다. 기존 청소년 리더십 프로그램이나 인권교육, 나눔교육 프로그램과 달리 청소년들이 사회의 문제를 진단하고

해결방안을 마련하며 직접 지원을 결정하고 평가하는 활동까지 전개한다. 예측할 수 없는 다양한 상황과 맥락들이 존재하므로 청소년배분위원회 활동의 실재를 파악하고 타당하게 평가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설계된 척도나 지표만으로 평가하는 데는 분명한 한계가 있다. 평가의 실재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그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다수의 이해관계자의 생각, 사전 설계 단계에서 예측하지 못했던 프로그램 실행과정에서 발생한 이슈에 대해 민감하게 다룰 수 있는 평가 방식이 필요하다. 이러한 비판과 필요의 대안적 평가 방식으로 Stake(2004)는 반응적 평가 방식을 제안하고 있다. Stake가 제안하고 있는 '반응성'의 의미는 프로그램의 이론이나 명시된 목표에 대한 반응성이 아닌 실제 프로그램 안에서 참여하는 사람들의 경험에 초점을 맞추고 이해관계자들의 관심사에 대한 반응성을 의미한다(이원석; Stake 2010).

따라서 청소년배분위원회 활동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 평가 대상 안에서의 이해관계자들(stakeholders)의 주관적 경험, 여러 활동(activities)과 사건들(events)에 대한 총체적(holistic) 이해에 초점을 두면서(이원석; Stake, 2010) 실질적인 프로그램 질적 개선을 도모하는 반응적 평가 방법을 채택하고자 한다. 반응적 평가는 실제에 대한 즉각적인 반응을 중요시하며, 평가자는 프로그램의 관찰과 이해 관련자의 의견 청취 및 비공식적인 보고서 준비 등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게 된다(성태제, 2012: 499-500). 특히 반응적 평가에서 제시하고 있는 주요한 특성으로 몇 가지를 제시하고 있다. 첫째, 프로그램 관련자와 참여자의 경험과 활동에 집중하고, 둘째, 다양한 활동을 통해 이슈 도출하면서, 셋째, 평가대상에 대한 심층적 묘사와 함께 이해 관계자들이 겪는 경험과 다양한 활동에 대해 평가보고서를 독자에게 제공하여 간접적 경험의 기회를 갖게 한다. 넷째, 타당성을 높이기 위한 양적, 질적 평가를 혼합하는 삼각측정 방법을 통해 자료 신뢰성과 타당한 해석 제기 평가의 추구하는 가치를 분명히 하면서, 마지막으로, 공공의 필요를 위한 평가가 되기 위해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관점과 견해를 포함하여야 한다(이원석; Stake 2010: 574-576; 나눔교육 반디평가보고서, 2015 재인용).

반응적 평가방법에 따라 프로그램의 개별 목표와 조사 방법은 <표3-2>와 같다.

<표3-2> 청소년배분위원회 활동 목표 및 성과 측정방법: 청소년

프로그램 목표	차원	측정방법
사회문제 인식과 참여의향 증진	인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전·사후 설문조사 • 사전·사후 인터뷰 • 중간 인터뷰 • 프로그램 일지 및 그룹 인터뷰
비영리 및 나눔에 대한 이해 증진	인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전·사후 인터뷰 • 중간 인터뷰 • 프로그램 일지 및 그룹 인터뷰

비판적 사고성향성향 향상 (진실추구성, 개방성, 탐구성, 객관성, 체계성, 자기신뢰성)	인식	• 사전사후 설문조사
리더십 생활기술 향상 (커뮤니케이션, 의사결정, 조직관리, 인간관계, 학습능력기술, 자기이해, 그룹활동)	기술	• 사전사후 설문조사

1) 양적연구 설계

(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아름다운재단 청소년배분위원회 활동의 효과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효과성 검증을 위해 양적 연구는 비동일 통제집단을 설정하고 활동 실시 전과 후에 설문을 실시하는 사전·사후조사(Non-equivalent control group pre-post test)로 참여집단과 통제집단 간 변화를 측정하였다. 참여집단과 통제집단은 공통적으로 중·고등학교 교육과정에 있는 학생이며, 참여집단은 연구기간 내 청소년배분위원회 활동에 참여하고, 통제집단은 이 활동을 경험하지 않은 집단을 의미한다. 프로그램 종료 후에는 사후 설문과 종합평가를 수행하여 활동의 내용 및 진행방법, 운영에 대한 총괄 평가를 시행하였다.

〈표3-3〉 사전·사후 검사 실험설계도

분류	사전검사	실험처치	사후검사
집단1 : 참여집단	O1	X	O2
집단2 : 통제집단	O3	-	O4

X = 청소년배분위원회 참여

(2) 측정도구

① 프로그램 만족도 및 평가

청소년배분위원회 프로그램 경험에 대한 전반적 느낌과 의견을 묻는 설문으로 프로그램을 통한 변화 정도와 프로그램 내용, 진행방법에 대한 만족도, 운영방법의 적절성, 재참여 여부 등을 묻는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프로그램 만족도에 대한 평가 항목은 〈표3-4〉와 같다.

〈표3-4〉 프로그램 전반 평가

	구성	문항 수
프로그램 과정 만족도	오리엔테이션, 기관방문, 워크숍	3
	배분 방향성 논의 및 기준 선정	1
	배분공고 및 모집	1
	배분심사 (서류심사, 면접심사)	3
	배분실행 및 모니터링, 결과보고	2
프로그램 총 평가	활동기간과 시간의 적절성	2
	적절한 교육과 정보 제공	1
	프로그램 구성의 이해 용이성	1
	재단과 멘토의 활동 평가	2
	본인과 동료의 참여도 평가	4
	활동의 유익 및 추천의향	2
총 문항		21

② 사전·사후 검사 (사회문제 인식과 참여의향, 리더십 생활기술, 비판적 사고성향)

사회문제해결 관련 문항은 청소년의 사회문제 해결에 대한 인식과 참여의향을 측정하였다. 이를 위해 YPI(Youth Philanthropy Initiative)에서 사용하고 있는 적극적 시민권(Active citizenship) 8개 항목 중 6개 항목을 번안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이는 사회문제해결에 대한 인식정도 비영리기관과 그 활동에 대한 인식, 사회문제 해결에 대한 참여의향이 포함된다.

〈표3-5〉 사회문제 인식 및 참여의향

구성	문항
사회문제 인식	1
사회문제 해결 단체에 대한 인식 및 지지	2
스스로 만드는 사회변화 신뢰	1
사회문제해결 활동 참여의향 및 비영리 단체 활동 의향	2
총 문항	6

리더십생활기술의 측정은 Dormody(1995)와 Seevers(1995), Morris(1996), Seevers와 Dormody (1995), Wingenbach(1995)등이 개발하고 연구한 리더십생활기술 척도를 활용하였다. 척도의 하위영역은 의사소통 4문항, 학습능력기술 4문항, 조직관리기술 4문항, 그룹활동기술 3문항, 의사결정 기술 5문항, 인간관계기술 5문항, 자기이해기술 5문항으로 총 30문항으로 구성되며, 각 문항은 자기보고식 5점 리커트 척도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각 하위영역별 구인(construct)과 문항 수는 다음 <표3-6>과 같다.

<표3-6> 리더십 생활기술 척도 구성

하위요인	구성	문항수	하위요인	구성	문항수	
의사소통 기술	감정표현	4	의사결정 기술	요구결정	5	
	타인의 말 경청			목표설정		
	타인 칭찬과 감사표현			우선순위 결정		
	적절한 유머구사			대안선택		
	대안고려					
학습능력 기술	효과적 정보사용	4	인간관계 기술	진실한 마음	5	
	학습태세			타인에 호의		
	문제해결능력			타인의 가치 인정		
	합리적 사고			타인을 존중하는 태도		
	타인과의 화합					
조직관리 기술	구성원에 책임 위임	4	자기이해 기술	긍정적 자아개념	5	
	명령보다 요청			책임 있는 태도		
	변화 수용 자세			실수 수습 능력		
	조직 구성원 신뢰			융통성 발휘		
	명확한 자기주장					
그룹활동 기술	집단성원의 요구 고려	3	총 문항			30
	집단성원의 요구 수용					
	집단 분위기 조성					

비판적 사고성향은 진실추구성, 객관성, 개방성, 탐구성, 체계성, 자기신뢰성으로 조작화 된다. 이는 가치 있는 판단, 결정, 문제해결 혹은 결과물을 산출하는 정신적인 과정이며, 비판적 사고성향을 하는데 있어서 비판적 사고성향의 인지적 기술이 있어도 그 기술을 구사하려는 마음이 없으면 그 기술의 사용 가능성을 보장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러한 정의적 성향이 중요하게 인식되고 있다(조아미 외, 2009).

본 연구에서 사용한 척도는 조아미 외(2009)가 청소년 핵심역량 개발 및 추진방안 연구에서 직접 개발하고 임영식 외(2010)가 일부 수정하여 사용한 비판적 사고성향 검사를 척도로 사용하였다(〈표3-7〉 참조). 이 척도는 6개 하위요인으로 각 요인별 10문항씩 총 6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질문에 대해 '매우 그렇지 않다'에서 '매우 그렇다' 까지 1점에서 5점까지 리커트 척도로 측정하였다. 각 영역별 하위 구성요인의 점수가 높을수록 각 요인의 성향이 높으며, 반면에 점수가 낮을수록 해당 요인의 성향이 낮은 것으로 볼 수 있다.

〈표3-7〉 비판적 사고성향 척도 구성

하위요인	구성	문항 수
진실추구성	사실을 왜곡하지 않고 실제로 자신이 알고 있는 것 이상을 주장하지 않으며, 정직한 과정을 통해 진실을 추구하는 태도	10
객관성	타당한 근거를 토대로 결론을 추출하며, 이유가 충분할 때 입장을 정하는 성향	10
개방성	기꺼이 재고하며 특정 신념의 지배를 받는 고정성, 독단적 태도, 경직성을 배격하고 다른 관점에 대해 유연성 있게 존중하는 자세	10
탐구성	배움에 열망이 있으며, 다양한 문제에 대한 해답을 탐색하고 사건의 원인을 규명하려는 태도	10
체계성	논의하고 있는 문제의 핵심에서 벗어나지 않고, 결론에 이르기까지 논리적 일관성을 유지하려는 성향	10
자기신뢰성	자신의 추론 과정을 믿고, 비판적 사고성향을 통해 타당한 결론을 이끌어 내는 자세	10
총 문항		60

출처: 임영식 외(2010) 재구성

(3) 분석방법

본 연구에서는 SPSS Statistics 19 통계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청소년배분위원회 프로그램에 참여한 청소년에 대하여 사전·사후검사를 진행하였으며, 이에 대한 기술통계분석을 실시하였다. 프로그램 참여집단과 통제집단 간 동질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비모수 검증 방법인 Mann-Whitney U test를 실시하였다. 독립된 2개의 표본의 두 모집단의 분포가 정규분포이며 두 모집단의 분산이 동질 조건을 충족시키면 모수통계방법인 t검정을 실시해야 하지만, 집단 크기가 작아 정규 분포성을 확보한 상태가 아니므로 비모수 통계방법을 활용하였다. 이후 참여집단과 통제집단의 사전·사후 평균 변화를 살펴보았으며, 사전·사후 점수 변화가 통계적으로 유의한가를 살펴보기 위해 Wilcoxon Matched Pairs Signed-Rank Test를 실시하였다.

2) 질적연구 설계

〈표3-8〉 질적 조사 설계

질적방법	목적 및 내용
워드잇 아웃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년들의 인식 및 지식의 변화 측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년배분위원회의 의미에 대한 생각 기술
내용 분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활동단계별 효과와 변화 과정 측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활동 보고서 등 질적 기록물들을 통해 개별 효과와 성과 측정 (활동자료집, 종결보고서, 활동 기록지_멘토보고서, 진행과정 기록지) • 총 3-4회의 참여관찰을 통해 활동 모니터링 실시
F.G.I.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년들의 변화와 느낌, 성장에 대한 질적 변화 측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참여 청소년 F.G.I. - 멘토 및 담당자, 배분참여단체 관계자 F.G.I. 1회 및 이메일 인터뷰 (중간인터뷰1,2, 종결인터뷰, 중간인터뷰_성인, 종결인터뷰_성인, 배분지원팀 인터뷰) • 반구조화된 인터뷰가이드를 통한 질적 성과 도출

(1) 인식변화 측정을 위한 시각화 방법

청소년들의 인식 및 지식의 변화 측정을 위해 사전과 사후에 참여 청소년들의 생각의 변화를 묻는다. 청소년들이 자유롭게 표현한 것(글, 그림, 말, 사진 등)을 그대로 질적 분석하여 성과를 측정한다. 분석의 방법은 워드잇아웃(worditout)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입력된 텍스트 내에서 가장 빈도가 높은 단어는 크게, 빈도가 적은 단어는 작게 시각적으로 보여준다. 본 청소년배분위원회 활동 평가를 위해서는 ‘배분이란’, ‘청소년배분위원회란’ 무엇인지에 대한 질적 분석을 토대로 청소년의 인식을 시각적으로 보여주고자 하였다.

(2) 프로그램 활동보고서 내용분석

본 연구를 위한 프로그램 과정 평가는 매 회기를 마치고 작성하는 활동 일지를 두가지 양식으로 작성하도록 하였다. 첫째, 활동 평가 일지를 통해 각 회기의 목표 달성에 맞는 문제해결 활동과 과정에 대한 평가를 한다. 무엇을 배우고 경험하고 느끼길 기대하며 참여를 했는지, 다음 회기에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에 대한 구체적인 의견을 묻는다. 둘째, 활동 의사결정과정 일지를 통해 회기 동안에 협력적인 역량에 대한 분석을 한다. 팀 활동에서 다양한 연령대와 지역, 배경을 가진 청소년들이 멤버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의사결정을 위한 토론을 할 때 합의를 어떻게 하는지, 얼마만큼 참여하였는지, 어려움은 무엇이었고, 적극적인 참여를 위해 무엇을 준비하고 개선해야 하는지에 대한 자기 분석 보고를 작성하였다(부록3,4참고).

(3) 질적 성과 측정을 위한 F.G.I

질적 성과 측정을 위한 포커스그룹인터뷰(FGI)는 참여 청소년, 성인멘토, 아름다운재단 실무진, 비영리기관 종사자와 함께 진행하였다.

중간평가는 3월, 종결평가는 8월말에서 9월초에 FGI를 실시하였다. 청소년들은 2개 팀별로, 성인멘토와 재단 실무진은 함께 인터뷰하였다. 7월, 8월 청소년배분위원회에서 지원한 단체 인터뷰도 실시하였다. 면대면 인터뷰가 어려운 단체들은 이메일을 통해 인터뷰를 보충적으로 진행하였다. 인터뷰 진행은 청소년배분위원회 활동 과정에 대한 구체적 평가 후 개선해야할 점과 바램 등을 논의하였다. 주된 인터뷰 질문은 1) 어떤 것이 가장 재미있었는가? 2) 어떤 것이 가장 힘들었는가? 3) 자신(단체)에게 어떠한 변화가 있는가? 이었다.

첫째, 참여 청소년의 성과 측정을 위해서 긍정탐구(Appreciative Inquiry)방법에서 사용하는 관점을 활용하여 질문을 구성하였다. 긍정적 변화에 대한 가능성을 믿고, 새로운 자원을 만들기 보다는 지역사회 내에서 찾을 수 있다는 신념과 구체적인 과정을 안내해준다. 주변화되고 소외된 사람들이 지역사회 내에서 참여를 넓혀갈 수 있도록 청소년배분위원회 활동에서 청소년들이 어떻게 긍정적 변화에 대한 가능성을 믿고, 지역사회내에서 방법을 도모하는지 탐색한다. 또한 그동안 소외되어온 청소년이 의사결정 과정을 통해 지역사회내에서 참여를 넓혀가는 과정을 평가하는데 도움을 받을 것이다.

둘째, 참여 청소년들을 지도한 성인멘토를 대상으로 집단 인터뷰를 통해서 프로그램 내용과 구성, 프로그램 운영, 프로그램 효과와 관련된 멘토들의 의견과 제안사항을 수집하고자 한다. 이때 멘토들이 작성한 보고서와 기록물을 함께 수집하여 분석하였다. 참여 청소년들과 함께 상호 교환한 의견과 카톡 내용 역시 평가 연구 자료로 활용한다. 프로그램 개발자와 기획, 운영자, 프로그램에서 직접적인 지원을 받은 비영리단체(활동팀) 담당자들로부터 평가 내용을 수집하였다. 단계별 활동 전후로 수시로 이루어진 개발자, 운영자, 연구진 간 상호 교환한 의견 역시 평가 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평가방법과 내용의 설계를 위해 연구진은 개발자와 운영자의 프로그램 사전 개발 회의 등에 참석하여 참여청소년, 운영자, 멘토와 함께 조정, 합의, 공유 과정을 가졌다. 이러한 공동 작업을 통해 평가 방향과 틀을 구성한 질적조사 방법은 <표3-9>와 같다.

〈표3-9〉 질적 자료 참여자 코드

분석 코드	참여자(소속, 성별)	분석코드	참여자
위원1 / 중간2_청2	**연(고, 여)	멘토1	성인멘토_**숙
위원2	**결(고, 남)	멘토2	성인멘토_**인
위원3	**희(고, 여)	간사1	아름다운재단 간사 **미
위원4 / 중간2_청1	**현(고, 여)	간사2	아름다운재단 간사 **진
위원5 / 중간2_청3	**나(고, 여)	Q1,2	청소년을 위한 팀 Q
위원6 / 중간2_청4	**림(중, 여)	S	청소년을 위한 팀 S
위원7	**영(중, 여)	P	청소년이 하는 팀 P
위원8	**미(고, 여)	I	청소년이 하는 팀 I
위원9 / 중간_청2	**원(고, 남)	R	청소년이 하는 팀 R
위원10 / 중간_청1	**석(중, 남)	PN	청소년이 하는 팀 PN
위원11 / 중간_청3	**주(고, 여)		
위원12	*은*(고, 여)		

IV. 양적연구 결과

1. 연구 참여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청소년배분위원회 활동 참여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살펴보면, 여성이 9명(75.0%), 남성이 3명(25.5%)으로 여성의 비율이 3배가량 높게 구성되었다. 연령분포는 14세 이상 16세 이하가 4명(33.3%), 17세 이상 19세 이하가 8명(66.6%)로, 중학생이 4명, 고등학생이 8명으로 구성되었다. 이들의 거주지역은 서울이 7명(58.3%)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 외에 경기 2명, 경북, 광주, 전주 각 1명으로 구성되었다. 종교는 무교가 11명(91.7%)로 대다수를 차지하였으며, 기독교가 1명(8.3%)으로 나타났다.

통제집단의 경우, 여성이 8명(80.0%), 남성이 2명(20.0%)으로 여성비율이 역시 4배가량 높았다. 연령분포는 14세 이상 16세 이하가 3명(30.0%), 17세 이상 19세 이하가 7명(70.0%)으로, 중학생이 3명, 고등학생이 7명으로 구성되었다. 거주지역은 서울이 9명(90.0%)로 대다수를 차지하였으며 경기지역이 1명(10.0%)으로 나타났다. 종교는 무교가 4명(40.0%)으로 타 종교에 비해 많았으나, 기독교와 천주교도 각 3명(30%)으로 다양하게 구성되었다.

〈표4-1〉 연구 참여집단과 통제집단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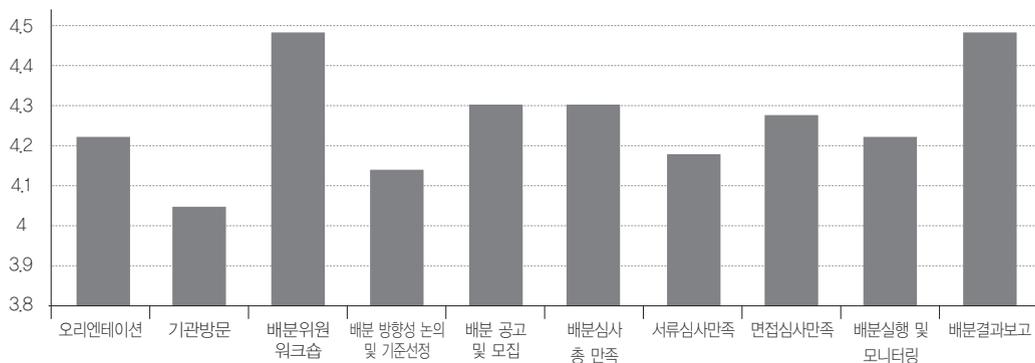
구분		참여		통제	
		N	%	N	%
성별	남성	3	25.0	2	20.0
	여성	9	75.0	8	80.0
연령	14세 이상 - 16세 이하	4	33.3	3	30.0
	17세 이상 - 19세 이하	8	66.6	7	70.0
학력	중학생	4	33.3	3	30.0
	고등학생	8	66.6	7	70.0
거주 지역	서울	7	58.3	9	90.0
	서울 외	5	32.7	1	10.0
종교	기독교	1	8.3	3	30.0
	천주교	0	0.0	3	30.0
	무교	11	91.7	4	40.0
총합		12	100.0	10	100.0

2. 만족도 및 과정평가

만족도 조사 결과, 참여집단의 총 만족도는 4.29점으로 모든 활동과정에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 내용의 만족도를 살펴보면, 배분위원 워크숍과 배분 결과보고가 4.50점으로 가장 높은 만족도를 보였으며, 배분공고 및 모집, 배분심사 만족도가 4.33점으로 2위를 차지하였다. 이후 만족도 순으로 살펴보면, 면접심사 만족도 4.30점, 오리엔테이션과 배분실행 및 모니터링 만족도 4.25점, 서류심사 만족도 4.20점, 배분 방향성 논의 및 기준 선정 4.17점으로 나타났으며 기관방문 만족도 4.08점 순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표 4-2〉 프로그램 만족도

번호	구분	평균	순위
1	오리엔테이션	4.25	4
2	기관방문	4.08	7
3	배분위원 워크숍	4.50	1
4	배분 방향성 논의 및 기준 선정	4.17	6
5	배분 공고 및 모집	4.33	2
6	배분심사	4.33	2
6-1	서류심사	4.20	5
6-2	면접심사	4.30	3
7	배분 실행 및 모니터링	4.25	4
8	배분 결과보고	4.50	1
프로그램 만족도 총 평균		4.29 ⁹⁾	



9) 서류심사기준 적절성과 면접심사기준 적절성은 만족도 평균 산정에서 제외

세부활동 중 서류심사와 면접심사 기준의 적절성 평가 결과, 서류심사기준의 적절성은 4.30점, 면접심사기준의 적절성은 4.20점으로 참여집단은 서류·면접 심사기준 모두 적절했던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표 4-3〉 서류 및 면접심사기준의 적절성

구분	평균
서류심사기준 적절성	4.30
면접심사기준 적절성	4.20
심사기준 적절성 총 평균	4.25

그 밖에 서류심사에서 어려웠던 점에 대한 주관식 문항을 종합하면, 서류 형식을 제작하는 일,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충분치 않고 구체적이지 않은 점, 위원 간의 의견 조율, 객관적 관점을 유지하며 판단하는 것이 어려웠다고 응답하였다. 서류심사를 통해 학습한 내용으로는 다양한 지원서를 통해 새로운 지식을 얻을 수 있었으며, 의견 조율 방식, 심사위원의 입장에서 서류를 바라보며 서류작성 노하우를 배울 수 있었다고 응답하였다. 추후 개선점으로는 서류 채점에 대한 보다 명확한 기준 마련, 각 주제별 사전조사, 서류심사에서 부족한 부분을 면접에서 보완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마련 등을 언급하였다.

면접심사에서 어려웠던 점으로 불편하지 않은 분위기를 만드는 것, 어른을 상대해야하는 것, 질문을 만드는 일, 심사에 참여하지 못한 팀원과의 의견차이, 많은 인원이 심사에 참여하지 못한 점, 다소 촉박한 일정들이 어려웠다고 응답하였다. 반면 청소년배분위원들은 면접심사 과정을 통해 상대방에게 질문하고 의견을 경청하는 방법과 객관적 기준으로 평가하는 법, 다양한 이들을 배려하고 분위기를 고려하는 것을 배울 수 있었다고 응답하였다. 추후 개선점으로는 제출된 서류를 사전에 꼼꼼히 검토하고 질문을 준비할 것, 정리된 심사표의 필요성, 이 외에 넓은 공간과 휴식시간이 필요함을 언급하였다.

배분위원회 활동의 기간과 시간의 적절성 평가 결과(〈표4-4〉 참조), 1년이라는 활동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6명(50%)으로 절반을 차지하고 있다. 그 밖에 적절하다는 응답이 3명(25%), 기타응답이 3명(25%)으로 나타났다. 기타 응답을 살펴보면, 융통성 있게 조절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의견과, 1~2달 정도 늘리면 좋을 것 같다는 의견, 그리고 배분위원회 내부 회의 기간을 줄이고 배분모집 준비 및 실행기간을 연장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토요일 3시간가량 이루어지는 프로그램 시간의 적절성은 적절하다는 응답이 8명(66.7%)으로 가장 많았으며, 연장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4명(33.3%)으로 나타났다.

종합하면, 현재 활동하고 있는 기간이나 시간 모두 단축의 필요성은 없으며, 향후 활동기간 연장을 고려하거나 배분모집부터 실행기간의 안배를 수정하는 방식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활동시간은 현재가 적절하다는 의견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며, 상황에 따라 연장을 고려해 볼 수 있다.

〈표 4-4〉 활동기간과 시간의 적절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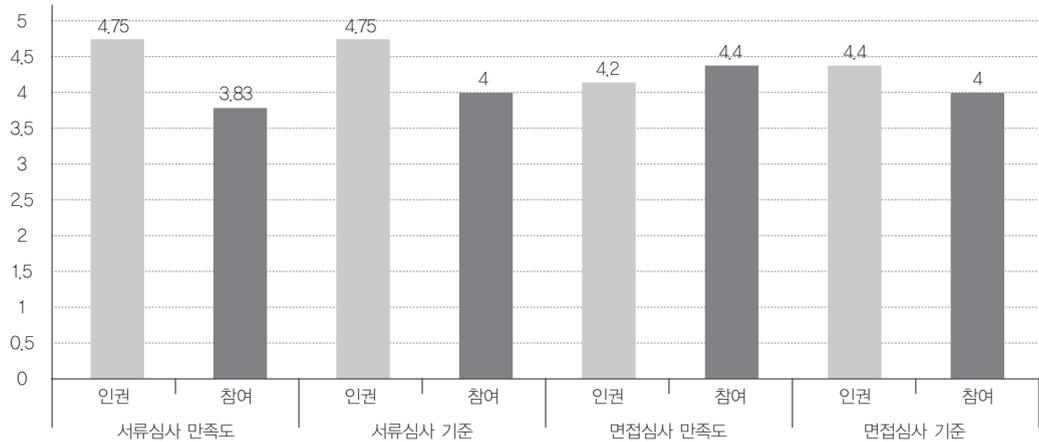
구분	단축필요	적절하다	연장필요	기타
1년이라는 활동기간 적절성	0(0%)	3(25%)	6(50%)	3(25%)
토요일 3시간가량의 활동시간 적절성	0(0%)	8(66.7%)	4(33.3%)	0(0%)

참여집단은 배분사업 특성에 따라 청소년 인권(청소년을 위한 활동, 이하 인권위원)과 청소년 참여(청소년이 하는 활동, 이하 참여위원) 소위원회로 구분되어 세부 활동이 진행되었다. 각 소위원회별 활동 만족도와 활동의 적절성을 비교한 결과는 〈표4-5〉와 같다. 총 만족도 평균은 인권위원이 4.62점, 참여위원이 3.97점으로 인권위원이 0.65점 높게 나타났으나 두 집단 간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서류심사 만족도 평균은 인권위원이 4.75점, 참여위원이 3.83점으로 인권위원이 0.92점 높게 나타났으며 $p < .05$ 수준에서 집단 간 차이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류심사기준 적절성 평균은 인권위원이 4.75점, 참여위원이 4.00점으로 인권위원이 0.75점 높았으며, 집단 간 차이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면접심사 만족도는 인권위원이 4.20점, 참여위원이 4.40점으로 참여위원이 0.20점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면접심사기준 적절성은 인권위원이 4.40점, 참여위원이 4.00점으로 인권위원이 0.40점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면접심사 만족도와 심사기준 모두 두 집단 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4-5〉 인권위원(청소년을 위한 활동)과 참여위원(청소년이 하는 활동) 비교

구분	집단	평균	N	z	p
총 만족도 ¹⁰⁾	인권	4.62	6	-0.74	.57
	참여	3.97	6		
서류심사 만족도	인권	4.75	4	-2.31**	.03
	참여	3.83	6		
서류심사기준 적절성	인권	4.75	4	-1.76	.11
	참여	4.00	6		
면접심사 만족도	인권	4.20	5	-.34	.84
	참여	4.40	5		
면접심사기준 적절성	인권	4.40	5	-1.50	.31
	참여	4.00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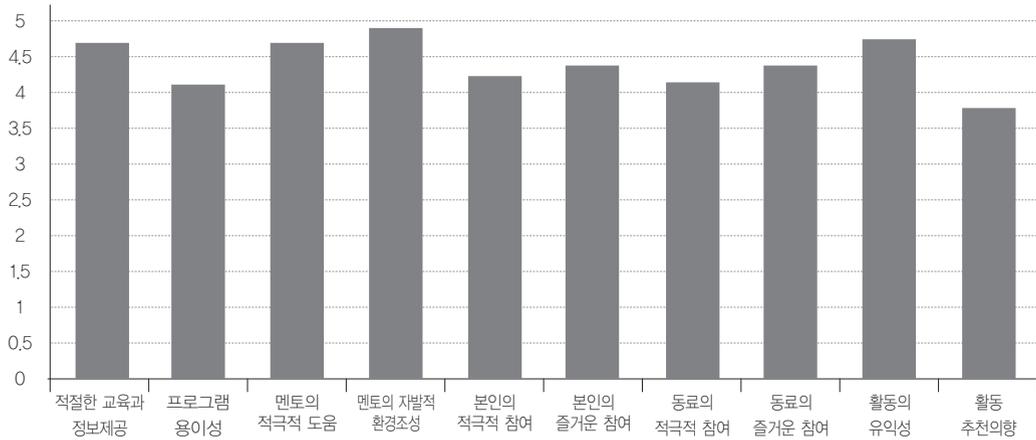
10) 서류심사 만족도와 면접심사 만족도는 심사 후 별도로 작성된 설문으로 응답 사례수가 다름. 따라서 현 전체 만족도는 서류심사와 면접심사 만족도를 제외한 8개 항목의 집단 간 차이를 비교하였음. 서류심사 만족도와 면접심사 만족도 집단간 차이는 아래 세부내용을 참조바람



청소년배분위원회 활동 총 평가 결과를 살펴보면(〈표4-6〉 참조), 총 10개의 평가 문항의 평균은 4.41점으로 나타났다. ‘재단과 성인 멘토는 청소년 배분위원회의 자발적 활동에 대한 환경을 조성했다’는 응답이 4.92점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으며, ‘프로그램이 적절한 교육과 정보를 제공했다’는 응답과 ‘재단과 성인 멘토의 적극적 도움 정도’, ‘활동의 유익성’이 4.75점으로 2위를 차지했다. 그 밖에도 ‘본인의 즐거운 참여’와 ‘동료 배분위원들의 즐거운 참여’가 4.42점으로 평균치에 근접한 평가를 받았으며, ‘본인의 적극적 참여’가 4.17점, ‘동료 배분위원들의 적극적 참여’와 ‘프로그램 이해의 용이성’이 4.08점 순으로 나타났다. 배분위원회 활동 추천의향은 3.83점으로 가장 낮은 점수를 차지하였으나, 이 또한 ‘그렇다’는 응답의 근사치에 해당하는 점수에 해당된다.

〈표 4-6〉 청소년배분위원회 활동 총 평가

번호	구분	평균	순위
1	적절한 교육과 정보 제공	4.75	2
2	프로그램 이해의 용이성	4.08	5
3	재단과 성인 멘토의 적극적 도움 정도	4.75	2
4	재단과 성인 멘토의 배분위원회 자발적 활동 환경조성	4.92	1
5	본인의 적극적 참여	4.17	4
6	본인의 즐거운 참여	4.42	3
7	동료 배분위원들의 적극적 참여	4.08	5
8	동료 배분위원들의 즐거운 참여	4.42	3
9	활동의 유익성	4.75	2
10	배분위원 활동 추천의향	3.83	6
프로그램 평가 총 평균		4.41	



3. 성과 평가

1) 사회문제해결

활동 실시 전 사전검사에서 참여집단과 통제집단 간 사회문제해결 동질성 검증을 위해 Mann-Whitney U test를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참여집단과 통제집단 간의 사회문제해결 인식과 참여의향 사전 점수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며, 동질적인 집단으로 나타났다.¹¹⁾

〈표 4-7〉 사회문제해결 인식과 참여의향 사전 동질성 검증

하위요인	집단	평균순위	순위합	Mann-Whitney U	z	p
사회문제 해결 총점	참여	11.29	135.50	57.50	-.16	.87
	통제	11.75	117.50			
사회문제해결 인식	참여	11.00	132.00	54.00	-.40	.72
	통제	12.10	121.00			
사회문제해결 참여의향	참여	12.13	145.50	52.50	-.49	.62
	통제	10.75	107.50			

11) 사전 검사 동질성 검사를 통해 참여집단과 통제집단이 프로그램 참여 이전 이질적 집단이 아님을 검증하는 과정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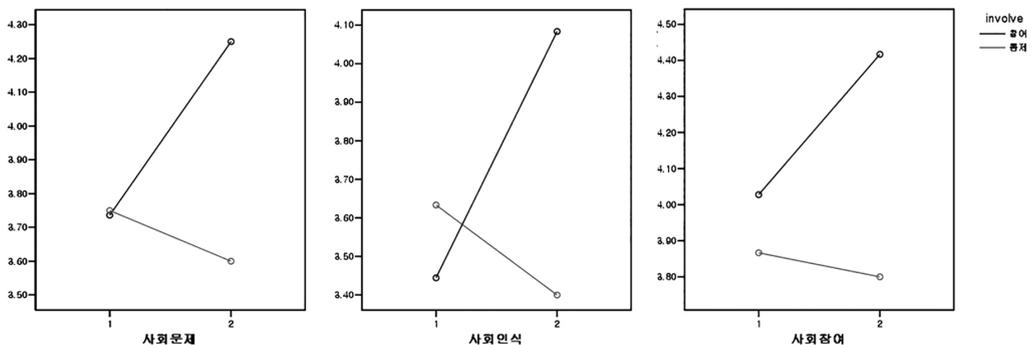
사회문제해결 인식과 참여의향 총점 분석 결과(〈표4-8〉 참조), 프로그램 참여집단의 사회문제해결 사전 평균은 3.73점으로 통제집단에 비해 0.02점 낮았으나, 프로그램 참여 이후 4.25점으로 0.52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통제집단의 사전 평균은 3.75점으로 참여집단에 비해 높았으나, 사후 평균은 3.60점으로 사전 평균에 비해 0.15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문제해결 인식과 참여의향을 분류하여 분석한 결과, 참여집단의 사회문제해결 인식 사전 평균은 3.44점에서 프로그램 이후 4.08점으로 0.64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통제집단은 사전 평균이 3.63점으로 참여집단에 비해 0.19점 높았으나, 사후 평균은 3.40점으로 0.23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문제해결 참여의향 또한 참여집단은 사전 평균 4.02점에서 사후 평균 4.41점으로 0.39점 증가하였으나, 통제집단은 사전 평균 3.86점에서 사후 평균 3.80점으로 0.06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하면, 참여집단은 청소년배분위원회 참여 이전 통제집단에 비해 사회문제해결에 대한 인식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프로그램 참여 이후 증가된 반면, 통제집단은 인식이 감소되었다. 사회문제해결 참여의향은 사전조사 결과, 참여집단이 통제집단에 비해 평균 점수가 높았으며, 프로그램 이후 참여집단의 점수는 증가되었으나 통제집단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총점도 참여집단의 사전 평균은 통제집단에 비해 다소 낮았으나, 프로그램 이후 참여집단은 증가, 통제집단은 감소한 것으로 분석결과 나타났다.

〈표 4-8〉 사회문제해결 사전·사후 평균 비교

하위요인	집단	사전		사후		변화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사회문제 해결 총점	참여	3.73	.625	4.25	.557	0.52
	통제	3.75	.782	3.60	1.057	-0.15
사회문제 해결인식	참여	3.44	.756	4.08	.637	0.64
	통제	3.63	.760	3.40	.940	-0.23
사회문제해결 참여의향	참여	4.02	.881	4.41	.683	0.39
	통제	3.86	.918	3.80	1.278	-0.06



위원회 활동 실시 전과 후의 집단별 사회문제해결 평균차이 검증을 위해 윌콕슨 부호 순위 검정 (Wilcoxon matched-pairs signed-ranks test)을 실시하였다.¹²⁾ 참여집단의 양의순위(참여집단 중 사전평균에 비해 사후평균이 향상된 참여자)를 살펴보면, 사회문제해결 총점은 9명, 사회문제해결 인식 9명, 사회문제해결 참여의향 8명으로 나타났다.

참여집단의 사회문제해결 사전·사후 평균 차이 검증 결과, 사회문제해결 총점($z=-2.24$, $p<.05$), 사회문제해결 인식($z=-2.50$, $p<.01$), 사회문제해결 참여의향($z=-1.71$, $p<.1$) 모두 사전보다 사후 점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제집단의 평균 변화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4-9〉 사회문제해결 사전·사후 차이 검증

하위요인	집단	음의순위			양의순위			동률 N	z	p
		N	평균순위	순위합	N	평균순위	순위합			
사회문제 해결 총점	참여	2	4.00	8.00	9	6.44	58.00	1	-2.24**	.02
	통제	5	3.50	17.50	2	5.25	10.50	3	-.59	.55
사회문제해결 인식	참여	1	3.50	3.50	9	5.72	51.50	2	-2.50***	.01
	통제	6	4.67	28.00	2	4.00	8.00	2	-1.50	.13
사회문제해결 참여의향	참여	3	4.67	14.00	8	6.50	52.00	1	-1.71*	.08
	통제	4	4.75	91.00	4	4.25	17.00	2	-.14	.88

2) 리더십 생활기술

활동 실시 전 사전검사에서 참여집단과 통제집단 간 리더십 생활기술 동질성 검증을 위해 Mann-Whitney U test를 실시한 결과, 참여집단과 통제집단 간의 사회문제해결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며 동질적 집단으로 나타났다.

12) 음의 순위는 프로그램 시행 전에 비해 시행 후 점수가 더 낮아진 경우이며, 양의 순위는 프로그램 시행 전에 비해 시행 후 점수가 더 높아진 경우이다. 동률은 프로그램 시행 전과 시행 후의 점수가 같은 경우임

〈표 4-10〉 리더십 생활기술 사전 동질성 검증

하위요인	집단	평균순위	순위합	Mann-Whitney U	z	p
의사소통	참여	12.04	144.50	53.50	-0.43	.67
	통제	10.85	108.50			
학습능력	참여	12.83	154.00	44.00	-1.07	.31
	통제	9.90	99.00			
조직관리	참여	13.33	160.00	38.00	-1.47	.15
	통제	9.30	93.00			
그룹활동	참여	11.17	134.00	56.00	-0.27	.82
	통제	11.90	119.00			
의사결정	참여	11.38	136.50	58.50	-0.10	.92
	통제	11.65	116.50			
자기이해	참여	10.79	129.50	51.50	-0.56	.58
	통제	12.35	123.50			
인간관계	참여	13.08	157.00	41.00	-1.26	.22
	통제	9.60	96.00			
총 계	참여	12.83	154.00	44.00	-1.05	.31
	통제	9.90	99.00			

리더십 생활기술 하위영역 평균 변화도를 집단별로 살펴보면(〈표4-10〉 참조), 참여집단의 평균 변화는 그룹활동기술이 0.36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자기이해기술 0.25점, 의사소통기술 0.23점, 조직관리기술과 인간관계기술 0.19점, 학습능력기술 0.17점, 의사결정기술 0.07점 순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제집단은 인간관계기술 변화가 0.26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그룹활동기술(0.24점)과 의사소통기술(0.18점)이 증가한 반면, 학습능력기술은 변화가 없고, 조직관리기술(-0.07)과 자기이해기술(-0.26점)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각 하위영역별 평균과 변화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째, 의사소통기술의 참여집단 사전 평균은 3.83으로 통제집단에 비해 0.11점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참여집단의 사후 평균은 4.06점으로 프로그램 이후 0.23점 증가하였으며, 통제집단의 사후 평균도 3.90점으로 0.18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동일 기간 참여집단과 통제집단 모두 사전·사후 의사소통기술이 증가하였으며, 참여집단에서 다소 높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학습능력기술의 참여집단 사전 평균은 3.95점으로 통제집단에 비해 0.33점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참여집단의 사후 평균은 4.12점으로 프로그램 이후 0.17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통제집단의 사후 평균 3.62점으로 사전, 사후 평균의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일 기간 참여집단은 학습능력기술이 증가하였으나, 통제집단 변화가 없는 것으로 분석 결과 나타났다.

셋째, 조직관리기술의 참여집단 사전 평균은 3.85점으로 통제집단에 비해 0.33점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참여집단의 사후 평균은 4.04점으로 프로그램 이후 0.19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통제집단의 사후 평균 3.45점으로 사전 평균 3.52점에서 0.07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동일 기간 참여집단의 조직관리기술은 증가하였으나, 통제집단의 역량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그룹활동기술의 참여집단 사전 평균은 3.91점으로 통제집단에 비해 0.05점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참여집단의 사후 평균은 4.27점으로 프로그램 이후 0.36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통제집단의 사후 평균 4.20점으로 사전 평균 3.96점에서 0.24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동일 기간 참여집단과 통제집단 모두 사전·사후 그룹활동기술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참여집단의 증가 폭이 통제집단에 비해 다소 높았다.

다섯째, 의사결정기술의 참여집단 사전 평균은 3.73점으로 통제집단에 비해 0.11점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참여집단의 사후 평균은 3.80점으로 프로그램 이후 0.07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통제집단의 사후 평균 3.90점으로 사전 평균에 비해 0.06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동일 기간 참여집단과 통제집단 모두 사전·사후 의사결정기술이 유사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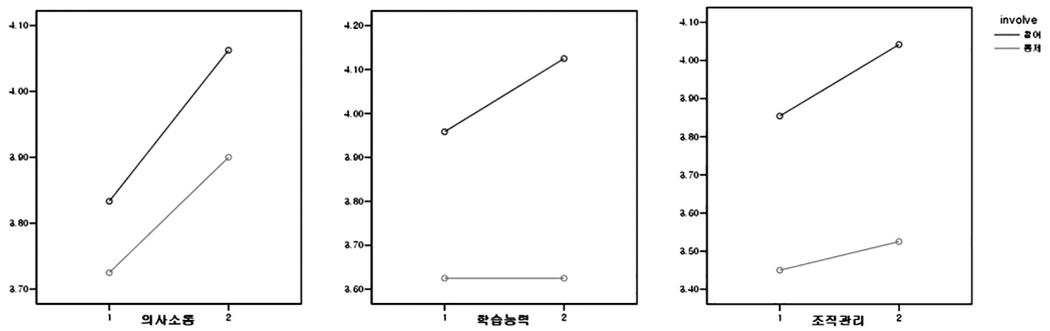
여섯째, 자기이해기술은 참여집단의 사전 평균이 3.80점으로 통제집단에 비해 0.10점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참여집단의 사후 평균은 4.05점으로 프로그램 이후 0.25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통제집단의 사후 평균은 3.64점으로 사전 평균 3.90점에서 0.26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동일 기간 참여집단의 자기이해기술은 증가하였으나, 통제집단의 역량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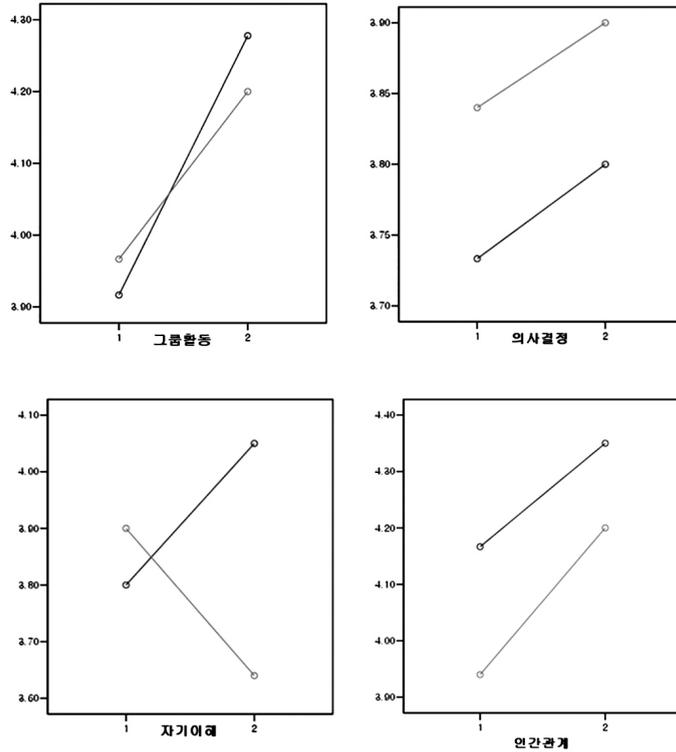
일곱째, 인간관계기술은 참여집단의 사전 평균이 4.16점으로 통제집단에 비해 0.22점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참여집단의 사후 평균은 4.35점으로 프로그램 이후 0.19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통제집단의 사후 평균 4.20점으로 사전 평균 3.94점에서 0.26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동일 기간 참여집단과 통제집단의 인간관계기술이 모두 증가하였으나, 통제집단의 증가 폭이 참여집단에 비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하면, 참여집단과 통제집단 모두 의사소통기술, 그룹활동기술, 의사결정기술, 인간관계기술이 동일기간에 증가하였으나, 의사소통기술과 그룹활동기술의 변화도는 참여집단이 높게 나타났으며, 의사결정기술의 변화도는 유사하였고, 인간관계기술은 통제집단의 변화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습능력기술은 참여집단의 역량은 증가한 반면, 통제집단의 역량은 변화가 없었으며, 조직관리기술과 자기이해기술은 참여집단의 역량은 증가하였으나 통제집단의 역량은 감소한 것으로 분석결과 나타났다.

〈표 4-11〉 리더십 생활기술 사전·사후 평균 비교

하위요인	집단	사전		사후		변화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의사소통	참여	3.83	.596	4.06	.691	0.23
	통제	3.72	.492	3.90	.625	0.18
학습능력	참여	3.95	.474	4.12	.644	0.17
	통제	3.62	.626	3.62	.679	0.00
조직관리	참여	3.85	.634	4.04	.541	0.19
	통제	3.45	.368	3.52	.432	0.07
그룹활동	참여	3.91	.588	4.27	.583	0.36
	통제	3.96	.507	4.20	.651	0.24
의사결정	참여	3.73	.689	3.80	.626	0.07
	통제	3.84	.440	3.90	.444	0.06
자기이해	참여	3.80	.572	4.05	.709	0.25
	통제	3.90	.700	3.64	.556	-0.26
인간관계	참여	4.16	.670	4.35	.698	0.19
	통제	3.94	.442	4.20	.516	0.26
총 계	참여	3.89	.416	4.10	.356	0.21
	통제	3.77	.274	3.85	.375	0.08





배분위원회 활동 실시 전과 후의 참여집단과 통제집단의 리더십 생활기술의 차이를 검증하기 위하여 윌콕슨 부호 순위 검정을 실시하였다. 참여집단의 양의순위(참여집단 중 사전평균에 비해 사후평균이 향상된 참여자)를 살펴보면, 그룹활동기술이 8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의사소통기술과 조직관리 7명, 학습능력기술, 의사결정기술, 자기이해기술, 인간관계기술이 6명으로 나타났다.

참여집단의 리더십 생활기술 사전·사후 평균 차이 검증 결과, 그룹활동기술($z=-2.35, p<.01$), 자기이해기술($z=-1.80, p<.1$), 인간관계기술($z=-1.72, p<.1$)이 사전보다 사후 점수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제집단의 평균 변화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4-12〉 리더십 생활기술 사전·사후 차이 검증

하위요인	집단	음의순위			양의순위			동률	z	p
		N	평균순위	순위합	N	평균순위	순위합			
의사소통	참여	5	4.40	22.00	7	8.00	56.00	0	-1.35	.17
	통제	4	3.38	13.50	5	6.30	31.50	1	-1.08	.28
학습능력	참여	3	4.67	14.00	6	5.17	31.00	3	-1.01	.31
	통제	2	3.75	7.50	3	2.50	7.50	5	.00	1.00
조직관리	참여	2	5.50	11.00	7	4.86	34.00	3	-1.40	.15
	통제	4	3.88	15.50	4	5.13	20.50	2	-.35	.71
그룹활동	참여	1	3.00	3.00	8	5.25	42.00	3	-2.35***	.01
	통제	1	5.50	5.50	6	3.75	22.50	3	-1.46	.14
의사결정	참여	5	6.60	33.00	6	5.50	33.00	1	.00	1.00
	통제	5	4.00	20.00	4	6.25	25.00	1	-.30	.76
자기이해	참여	3	2.50	7.50	6	6.25	37.50	3	-1.80*	.07
	통제	7	5.79	40.50	3	4.83	14.50	0	-1.34	.17
인간관계	참여	2	5.50	7.50	6	6.25	37.50	3	-1.72*	.08
	통제	2	5.00	10.00	7	5.00	35.00	1	-1.49	.13
총 계	참여	3	4.00	12.00	9	7.33	66.00	0	-2.11**	.03
	통제	5	4.90	24.50	5	6.10	30.50	0	-.30	.75

3) 비판적 사고성향

활동 실시 전 사전검사에서 참여집단과 통제집단 간 비판적 사고성향 동질성 검증을 위해 Mann-Whitney U test를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참여집단과 통제집단 간의 비판적 사고성향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며 동질적인 집단으로 나타났다.

〈표 4-13〉 비판적 사고성향 사전 동질성 검증

하위요인	집단	평균순위	순위합	Mann-Whitney U	z	p
진실추구	참여	12.54	150.50	47.50	-.82	.41
	통제	10.25	102.50			
객관성	참여	11.92	143.00	55.00	-.33	.77
	통제	11.00	110.00			
개방성	참여	13.04	156.50	41.50	-1.22	.22
	통제	9.65	96.50			
탐구성	참여	14.21	170.50	27.50	-2.15	.23
	통제	8.25	82.50			
체계성	참여	12.25	147.00	51.00	-.59	.77
	통제	10.60	106.00			
자기신뢰	참여	11.88	142.50	55.50	-.29	.58
	통제	11.05	110.50			
총 평균	참여	12.83	154.00	44.00	-1.05	.31
	통제	9.90	99.00			

비판적 사고성향 하위영역 평균 변화를 집단별로 살펴보면(〈표4-13〉 참조), 참여집단의 평균 변화는 자기신뢰성이 0.34점으로 가장 높은 변화를 보였다. 그 다음으로는 개방성 0.17점, 진실추구성 0.13점, 객관성 0.12점, 탐구성 0.06점 순으로 증가된 것으로 나타났다. 체계성은 참여집단에서 유일하게 감소(-0.07)한 하위요인으로 나타났다. 통제집단의 평균 변화도는 개방성이 0.26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자기신뢰성 0.21점, 체계성 0.16점, 탐구성 0.15점, 진실추구성 0.14점, 객관성 0.03점 순으로 증가된 것으로 나타났다.

각 하위영역별 평균과 변화도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째, 진실추구성의 참여집단 사전 평균은 4.03점으로 통제집단에 비해 0.17점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참여집단의 사후 평균은 4.16점으로 프로그램 이후 0.13점 증가하였으며, 통제집단의 사후 평균은 4.00점으로 역시 0.14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동일 기간 참여집단과 통제집단 모두 사전·사후 진실추구성이 유사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객관성의 참여집단 사전 평균은 4.08점으로 통제집단에 비해 0.13점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참여집단의 사후 평균은 4.20점으로 프로그램 이후 0.12점 증가하였으며, 통제집단의 사후 평균 3.98점으로 0.03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동일 기간 참여집단과 통제집단의 객관성이 모두 증가하였으나, 참여집단의 변화 폭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개방성의 참여집단 사전 평균은 4.51점으로 통제집단에 비해 0.25점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참여집단의 사후 평균은 4.68점으로 프로그램 이후 0.17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통제집단의 사후 평균 4.52점으로 사전 평균 4.26점에서 0.26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동일 기간 참여집단과 통제집단의 개방성이 모두 증가하였으나, 통제집단의 변화 폭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탐구성의 참여집단 사전 평균은 4.21점으로 통제집단에 비해 0.53점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모든 지표 중 가장 큰 사전평균 차이를 보였다. 참여집단의 사후 평균은 4.27점으로 프로그램 이후 0.06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통제집단의 사후 평균 3.83점으로 사전 평균 3.68점에서 0.16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동일 기간 참여집단과 통제집단의 탐구성이 모두 증가하였으나, 통제집단의 변화 폭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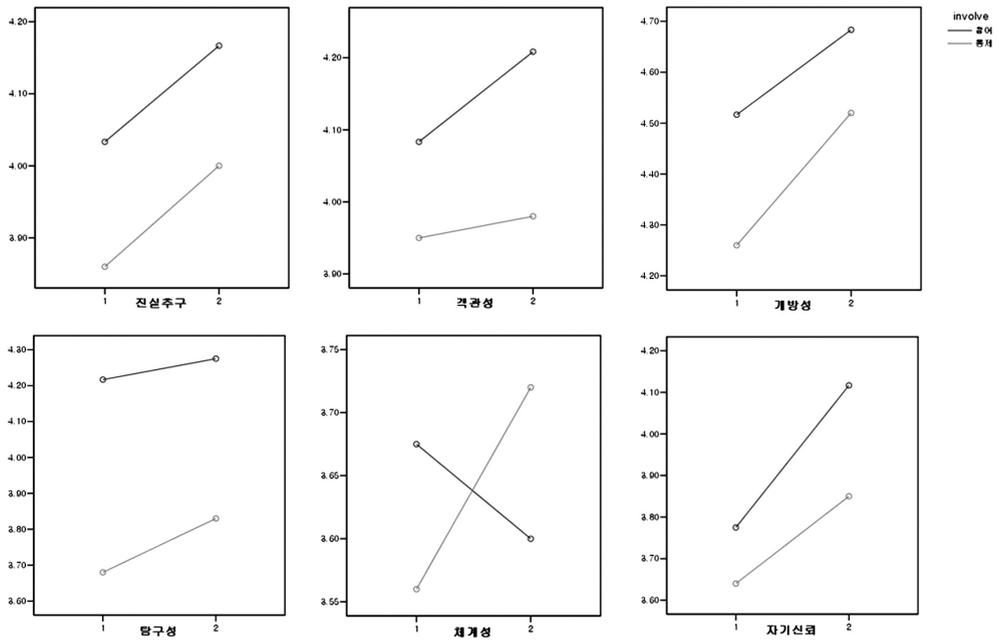
다섯째, 체계성의 참여집단 사전 평균은 3.67점으로 통제집단에 비해 0.11점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참여집단의 사후 평균은 3.60점으로 프로그램 이후 0.07점 감소하였으며, 비판적 사고성향 지표 중 유일한 감소 폭을 보였다. 통제집단의 사후 평균 3.72점으로 사전 평균 3.56점에 비해 0.16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동일 기간 참여집단의 체계성은 소폭 감소하였으며, 통제집단의 체계성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섯째, 자기신뢰성은 참여집단의 사전 평균이 3.77점으로 통제집단에 비해 0.13점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참여집단의 사후 평균은 4.11점으로 프로그램 이후 0.34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통제집단의 사후 평균은 3.85점으로 사전 평균 3.64점에서 0.21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동일 기간 참여집단과 통제집단의 자기신뢰성이 모두 증가하였으나, 참여집단의 변화 폭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하면, 참여집단과 통제집단 모두 진실추구성, 객관성, 개방성, 탐구성, 자기신뢰성에서 동일기간 사고성향이 증가하였으나, 참여집단의 체계성은 다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객관성과 자기신뢰성의 경우, 참여집단이 통제집단에 비해 변화도가 높았으며, 진실추구성, 개방성, 탐구성, 체계성은 통제집단의 변화도가 더 높은 것으로 분석결과 나타났다.

〈표 4-14〉 비판적 사고성향 사전·사후 평균 비교

하위요인	집단	사전		사후		변화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진실추구	참여	4.03	.322	4.16	.290	0.13
	통제	3.86	.440	4.00	.464	0.14
객관성	참여	4.08	.530	4.20	.496	0.12
	통제	3.95	.658	3.98	.571	0.03
개방성	참여	4.51	.456	4.68	.380	0.17
	통제	4.26	.485	4.52	.482	0.26
탐구성	참여	4.21	.617	4.27	.527	0.06
	통제	3.68	.647	3.83	.641	0.15
체계성	참여	3.67	.671	3.60	.650	-0.07
	통제	3.56	.756	3.72	.946	0.16
자기신뢰	참여	3.77	.746	4.11	.537	0.34
	통제	3.64	.696	3.85	.658	0.21
총계	참여	4.05	.356	4.17	.334	0.12
	통제	3.82	.500	3.98	.457	0.16



청소년배분위원회 활동 실시 전과 후의 참여집단과 통제집단의 리더십 생활기술의 차이를 검증하기 위해 윌콕슨 부호 순위 검정을 실시하였다. 참여집단의 양의순위(참여집단 중 사전평균에 비해 사후평균이 향상된 참여자)를 살펴보면, 그룹활동기술이 8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의사소통기술과 조직관리 7명, 학습능력기술, 의사결정기술, 자기이해기술, 인간관계기술이 6명으로 나타났다.

참여집단의 비판적 사고성향 사전·사후 평균 차이 검증 결과, 자기신뢰성($z=-1.60, p<.1$)에서만이 사전보다 사후 점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제집단 또한 자기신뢰성($z=-1.84, p<.1$)에서 사전보다 사후 점수가 유의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두 집단 모두 자기신뢰성에서 유의한 평균 증가를 보였다.

〈표 4-15〉 비판적 사고성향 사전·사후 차이 검증

하위요인	집단	음의순위			양의순위			동물	z	p
		N	평균순위	순위합	N	평균순위	순위합			
진실추구	참여	3	4.50	13.50	7	5.93	41.50	2	-1.43	.15
	통제	4	3.50	14.00	5	6.20	31.00	1	-1.01	.31
객관성	참여	4	5.88	23.50	7	6.07	42.50	1	-.84	.39
	통제	4	5.00	20.00	5	5.00	25.00	1	-.30	.76
개방성	참여	3	5.33	16.00	7	5.57	39.00	2	-1.18	.23
	통제	2	4.00	8.00	6	4.67	28.00	2	-1.40	.15
탐구성	참여	5	6.00	30.00	6	6.00	36.00	1	-.26	.78
	통제	6	3.67	22.00	4	8.25	33.00	0	-.56	.57
체계성	참여	6	6.17	37.00	5	5.80	29.00	1	-.35	.72
	통제	3	5.00	15.00	6	5.00	30.00	1	-.89	.37
자기신뢰	참여	3	5.00	15.00	8	6.38	51.00	1	-1.60*	.10
	통제	2	4.75	9.50	8	5.69	45.50	0	-1.84*	.06
총점	참여	4	3.50	14.00	8	8.00	64.00	0	-1.96**	.05
	통제	2	5.00	10.00	8	5.63	45.00	0	-1.74*	.07

4) 종합

청소년배분위원회 활동에 대한 전반적 만족도(4.29점)와 총 평가(4.41점)는 모두 ‘만족한다’는 응답을 상회하는 점수를 나타냈다. 세부활동 구성과 관련하여 워크숍과 결과보고가 4.50점으로 가장 높은 만족도를 보였으며, 기관방문이 4.08점으로 가장 낮은 만족도를 보였다. 프로그램 총 평가의 경우, ‘재단과 성인 멘토의 자발적 환경조성’이 4.92점으로 매우만족에 가까운 점수를 받았으며, ‘배분위원 활동 추천의향’이 3.83점으로 가장 낮은 점수를 차지하였다.

성과 평가를 위한 사전·사후조사 분석 결과, 사회문제해결에 대한 인식과 참여의향, 리더십 생활기술, 체계성을 제외한 비판적 사고성향 모두에서 참여집단의 동일기간 평균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문제해결의 참여집단 평균은 사전 3.73점에서 사후 4.25점으로 0.52점 증가하였으며 참여집단의 평균 변화는 통계적으로 유의하게($p < 0.05$) 나타났다. 사전평균에 비해 사후평균이 증가한 참여자는 총 9명이며, 변화 없는 동물이 1명, 감소한 참여자가 2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통제집단은 동일기간 사회문제해결에 대한 인식과 참여의향 모두 감소하였으며, 총점 또한 사전 3.75점에서 사후 3.60점으로 0.15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프로그램 참여는 참여집단의 사회문제해결 인식과 참여의향 변화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참여집단의 리더십 생활기술 총 평균은 사전 3.89점에서 사후 4.10점으로 0.21점 증가하였으며 평균 변화는 통계적으로 유의하게($p < 0.05$) 나타났다. 사전평균에 비해 사후평균이 증가한 참여자는 총 9명, 감소한 참여자는 3명으로 나타났다. 상대적으로 큰 변화를 보인 하위요인은 그룹활동기술(0.36점), 자기이해기술(0.25점), 의사소통기술(0.23점), 인간관계기술(0.19점)이며, 이 중 그룹활동기술($p < .1$), 자기이해기술($p < .1$), 인간관계기술($p < .1$)의 평균 변화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나타냈다. 통제집단 리더십 생활기술 총 평균은 사전 3.77점에서 사후 3.85점으로 0.08점 증가하였으며, 자기이해기술의 평균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프로그램 참여는 참여집단의 리더십 생활기술 역량에 영향을 미치며, 특히 그룹활동기술, 자기이해기술, 인간관계기술 증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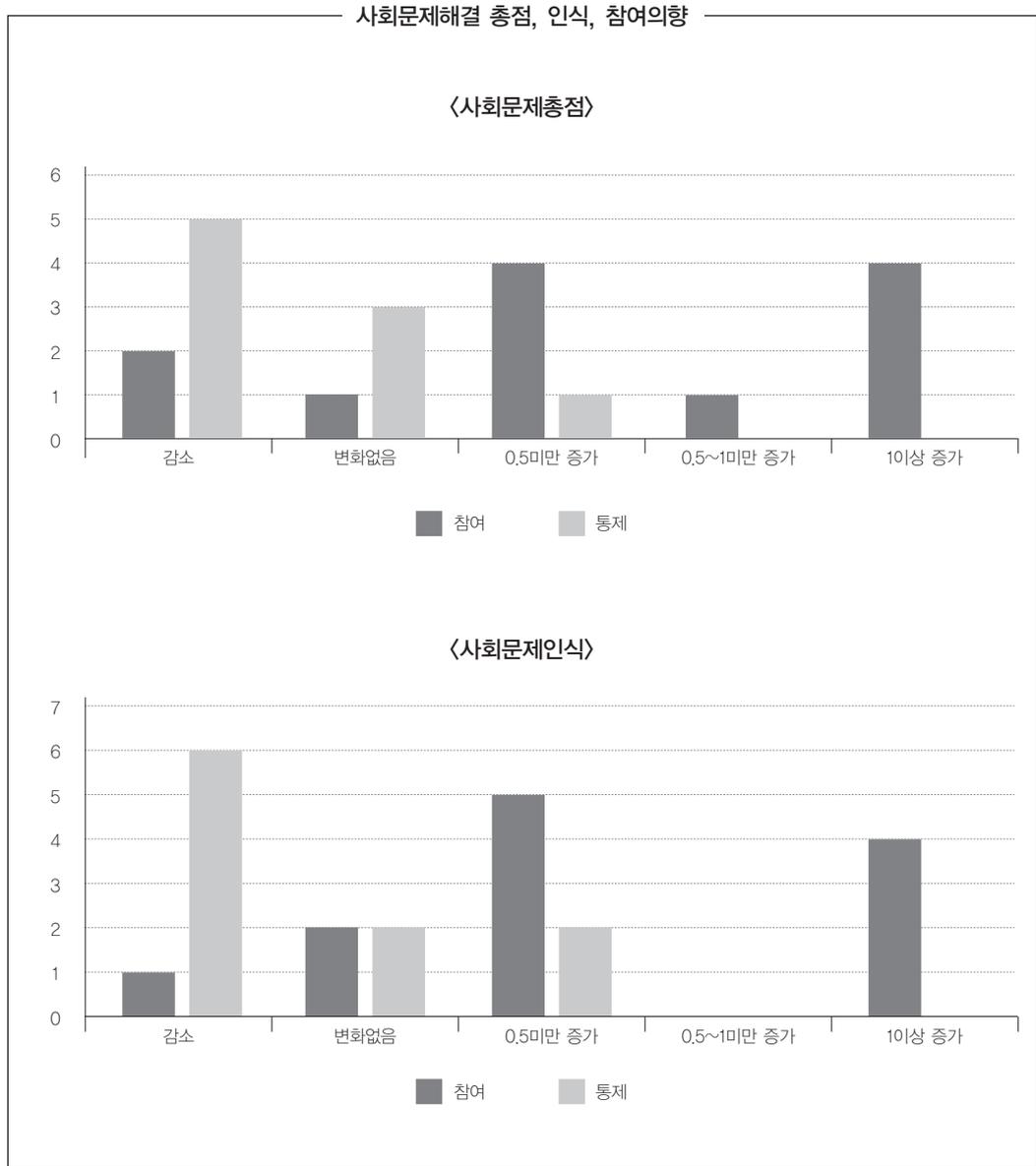
참여집단의 비판적 사고성향 총 평균은 사전 4.05점에서 사후 4.17점으로 0.12점 증가하였으며 평균 변화는 통계적으로 유의하게($p < 0.05$) 나타났다. 사전평균에 비해 사후평균이 증가한 참여자는 총 8명, 감소한 참여자는 4명으로 나타났다. 통제집단의 총 평균은 사전 3.82점에서 사후 3.98점으로 0.16점 증가하였으며, 평균 변화 또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p < .1$) 나타났다. 비판적 사고성향 중 체계성은 참여집단에서 유일하게 감소된 하위영역 중 하나이며, 두 집단 모두 유의한 평균 증가를 보였다. 따라서 비판적 사고성향에 대한 프로그램의 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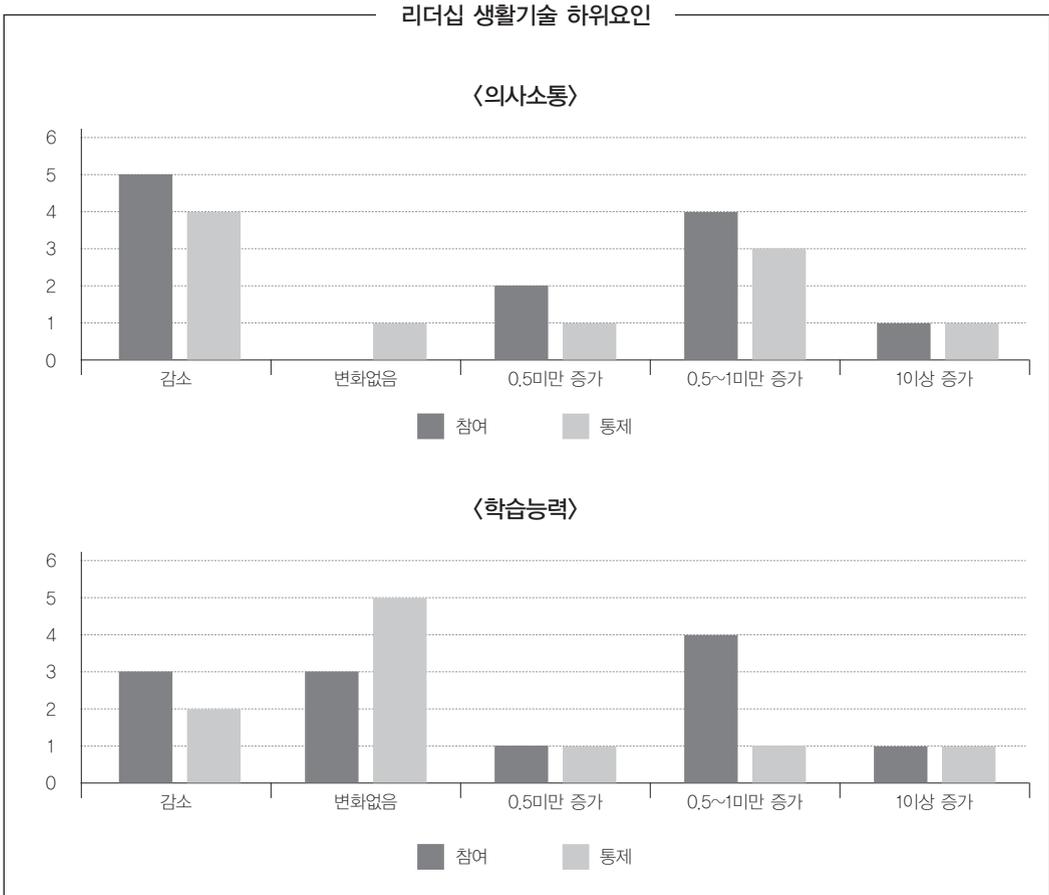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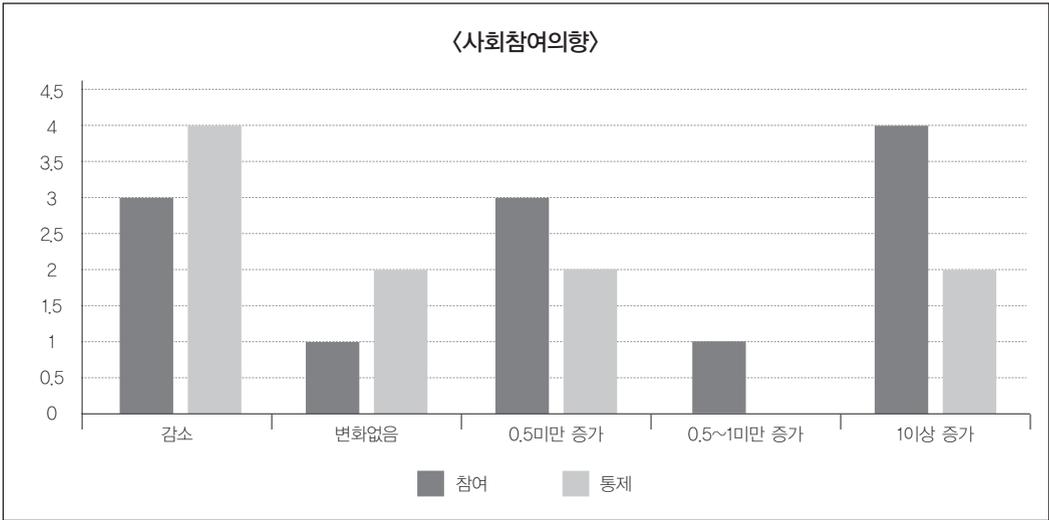
〈표 4-16〉 성과지표 종합 비교

성과지표	집단	평균		음의순위			양의순위			동률	z	p
				N	평균순위	순위합	N	평균순위	순위합			
사회문제 해결	참여	사전	3.73	2	4.00	8.00	9	6.44	58.00	1	-2.24**	.02
		사후	4.25									
	통제	사전	3.75	5	3.50	17.50	2	5.25	10.50	3	-.59	.55
		사후	3.60									
리더십 생활기술	참여	사전	3.89	3	4.00	12.00	9	7.33	66.00	0	-2.11**	.03 .03
		사후	4.10									
	통제	사전	3.77	5	4.90	24.50	5	6.10	30.50	0	-.30	.75 .75
		사후	3.85									
비판적 사고성향	참여	사전	4.05	4	3.50	14.00	8	8.00	64.00	0	-1.96**	.05 .05
		사후	4.17									
	통제	사전	3.82	2	5.00	10.00	8	5.63	45.00	0	-1.74*	.07 .07
		사후	3.9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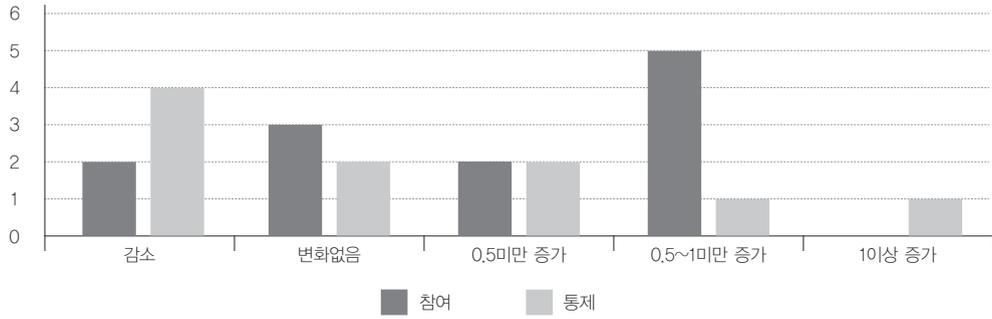
【참고】 성과지표 빈도분석 분포표

사전·사후조사 월복손 부호 순위 검정 결과 음의수준은 감소, 동률은 변화없음, 양의수준은 세 집단(0.5미만 증가, 0.5이상 1미만 증가, 1이상 증가)으로 분류하여 참여집단과 통제집단의 분포를 도표화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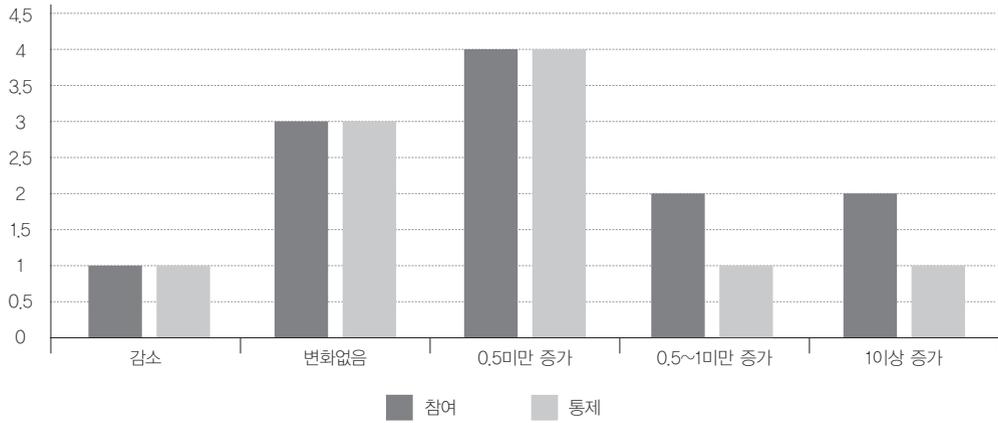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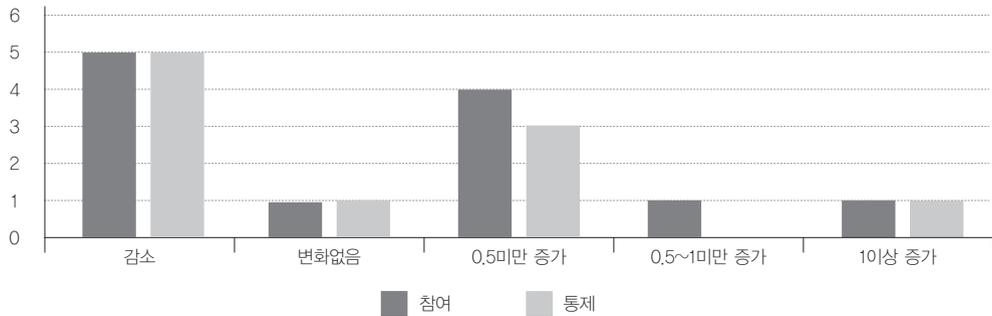
〈조직관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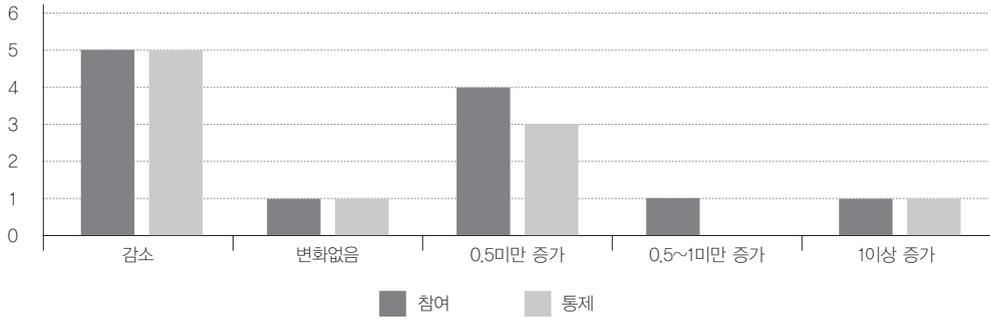
〈그룹활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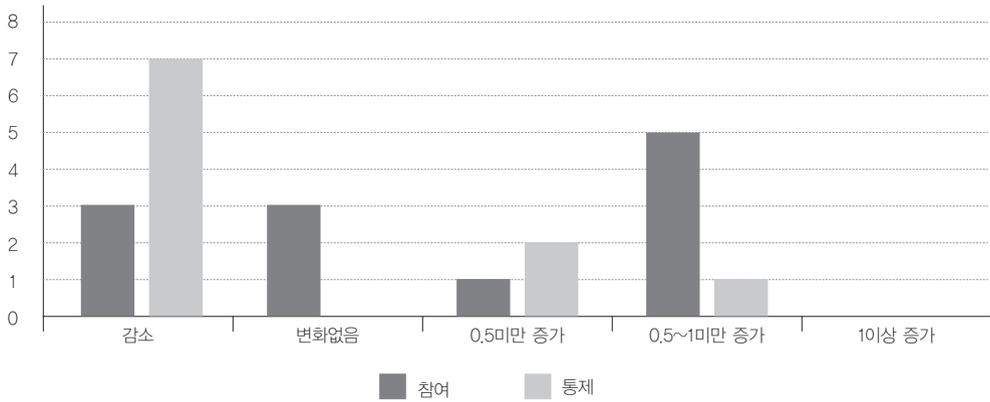
〈의사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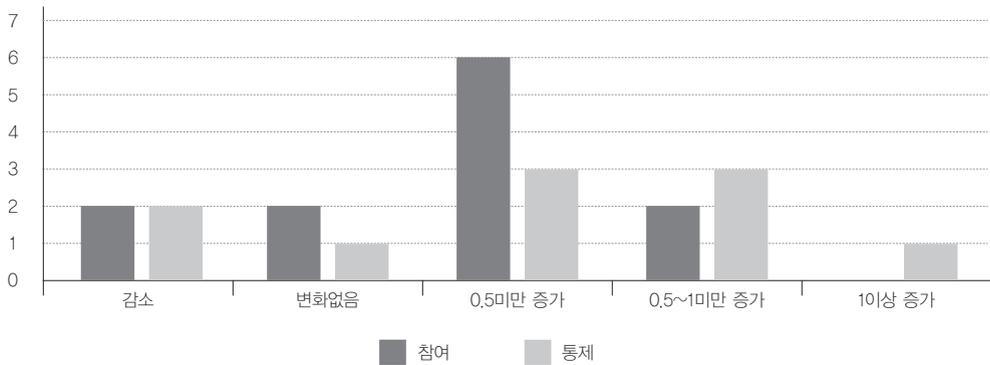
〈의사결정〉



〈자기이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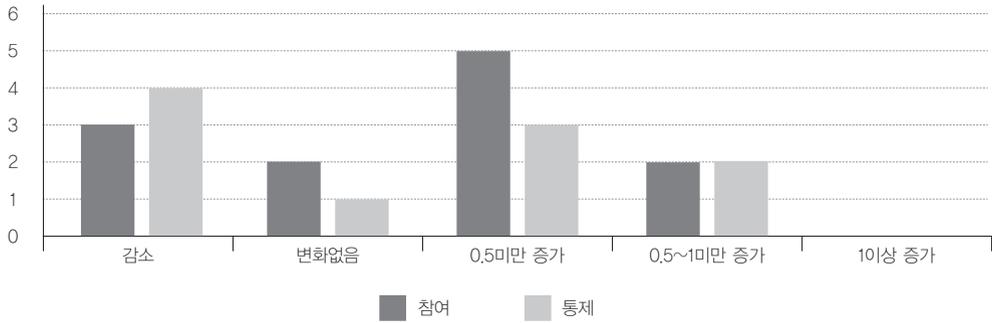


〈인간관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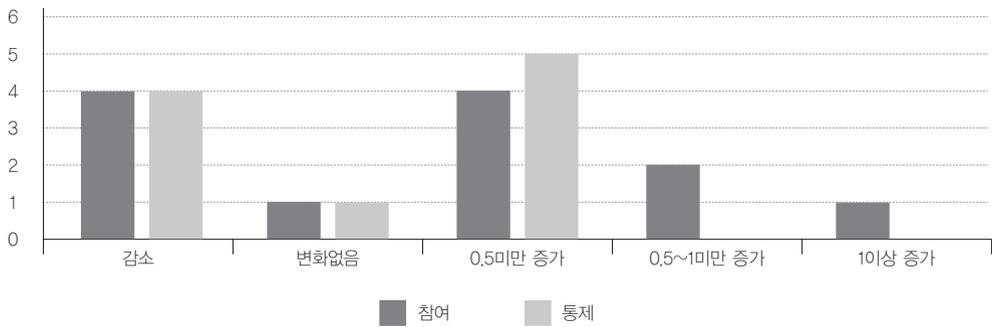


비판적 사고성향 하위요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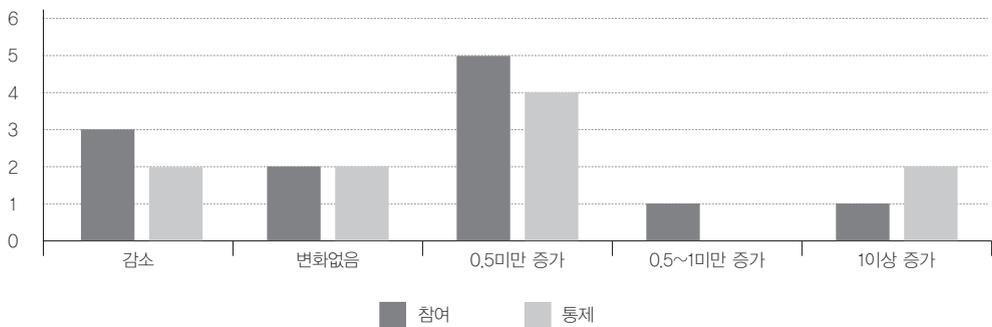
〈진실추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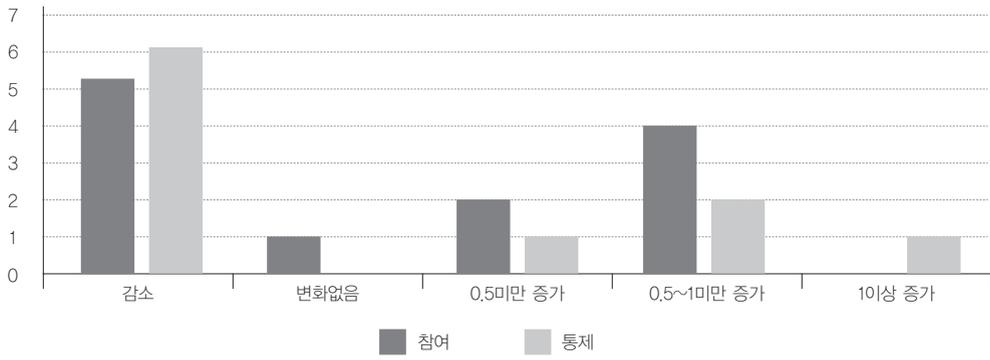
〈객관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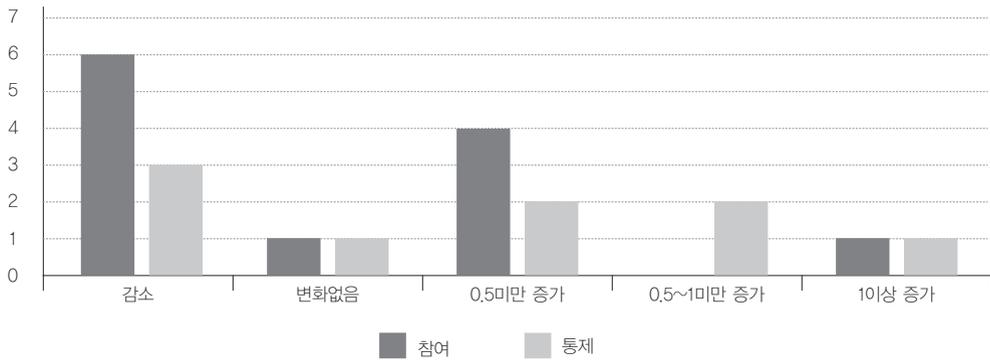
〈개방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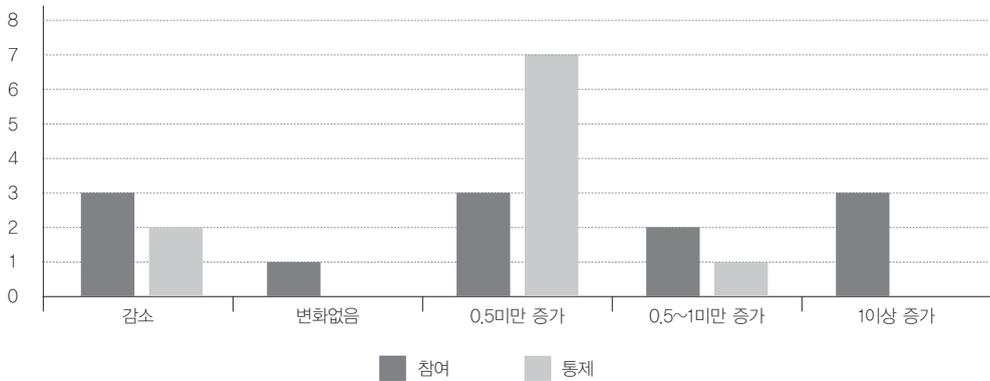
〈탐구성〉



〈체계성〉



〈자기신뢰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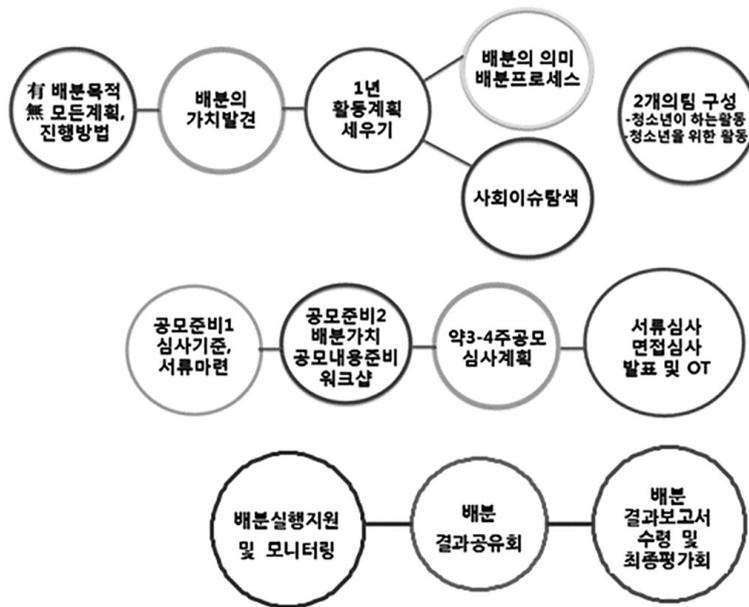
V. 질적연구 결과

1. 과정평가

■ 청소년이 주체적으로 운영해가는 활동

청소년배분위원회 활동의 과정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아래의 그림과 같이 진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사전에 프로그램화 하지 않고 청소년에게 선택권을 돌려주는 과정이었다. 미리 성인의 관점에서 준비된 것이 아니라 배분위원으로서 청소년들이 만나서 논의하고 직접 결정하는 과정이었다. 청소년배분위원회는 가상이 아닌 실제 참여이며, 실제 배분지원 공고, 선정과정, 모니터링, 결과공유까지 배분과정을 엄격히 공정하게 진행하였다. 재단은 공식적인 채널로서 구조를 마련하고, 성인멘토는 인내심을 가지고 최소한의 안내자 역할을 수행하였다. 동기부여와 활동을 촉진하며, 그리고 긴급한 어려움과 고민을 들어주는 역할을 통해서 청소년배분위원회가 주체적으로 운영되도록 곁에 있었다.

〈그림10〉 청소년배분위원회 활동 전체 과정 (개요)



1) 기획, 모집, 면접

① 기획의도

아름다운재단의 기획의 의도는 다음과 같다. 청소년배분위원회는 청소년의 목소리로 사회변화를 위한 프로젝트를 선정하여 기금 배분을 통해, 1) 청소년들의 사회참여 확대, 2) 비영리 차세대 리더 양성, 3) 청소년에 대한 관점 변화를 목적으로 기획되었다. 청소년배분위원회는 단순히 성인만이 배분을 하는 것이 아닌 각자 다른 성향을 가진 청소년이 모여 배분에 대해 고민하고 같은 세대인 청소년에게 배분을 하고 공감을 하는 청소년 참여 방식이다. 청소년배분위원회 활동과 배분을 통해 사회에 알리고 싶은 것은 청소년도 사회 이슈에 관심이 많다는 것, 단순히 보호받아야 할 청소년이 아닌 청소년도 (스스로/누군가를) 보호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알리기 위함이다. 청소년에게 권한을 돌려주기 위해 아름다운재단이 세운 기본 원칙은 1) 프로그램화 하지 않기 : 일방적으로 기획된 활동이 아닌 배분을 위해 해야 할 활동을 청소년들이 함께 논의하여 준비하고 진행한다. 2) 성인의 역할 : 일방적으로 가르치는 역할이 아닌, 같이 논의하는 파트너이다. 3) 실제 참여 : 가상배분이 아닌 실제 배분하여 청소년들이 결정한 것을 실현 한다 (아름다운재단 청소년배분위원회 활동자료, 2018). 이러한 기획의도를 가지고 아름다운재단은 다음과 같은 모집 공고를 내었다.

“청소년배분위원회는 청소년이 생각하기에 더 나은 사회를 만들기 위한 이슈를 선정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활동하는 단체에 그 프로그램의 진행 비용을 나눠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러한 역할을 잘 수행하기 위해 재단에서는 최소한의 가이드를 제공하며, 활동내용과 배분공모와 심사방법 등 모든 것을 청소년배분위원회에서 함께 논의하려 결정하게 됩니다.”

2017년 7월 14세-18세의 청소년들은 우리나라에서는 처음 청소년배분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열린 것이다.



〈그림12〉 청소년 배분위원회 모집 공고

② 참여동기

청소년배분위원회에 참여한 청소년들(참여자들)의 동기는 크게 세 가지로 분석되었다. 첫째는 천만원이라는 돈을 나누어주는 것이 낯설지만 재밌을 것 같다는 것이다. 청소년들은 배분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궁금하고, 함께 토론하고 결정하는 경험이 어떤 것인지 생소한 '배분'이라는 단어에 관심이 생겨 신청하게 되었다.

배분은 낯설지만 재밌을 것 같음

처음 청소년배분위원이란 단어를 보았을 때 배분위원? 어떤 것을 기준으로 삼고 나누는 것 일까? 라는 궁금증 때문에, 그리고 그 홍보물에 써져 있는 글을 보고 관심이 생겨 청소년배분위원회에 신청을 하게 되었다. (위원3 소감)

처음 들어본 이 생소한 단어에 얼른 재단 홈페이지에 들어갔다. 청소년이 재단에서 1000만원을 받고, 그것으로 사회활동을 하는 단체나 팀에 지원을 하는 활동이었다. (위원7 소감)

배분이 기부금을 단체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이라는 걸 알았다. 게다가 기부금이 천만원이었다. 다른 친구들과 함께 어디에 돈을 기부할지를 정하고 토론하고, 내용은 재미있을 것 같았다. (위원10 소감)

둘째는 청소년들을 믿고 새로운 기회를 주었다는 것이 어떨지 기대가 된다는 것이다. 참여자들에게 성인보다 못할 것이라는 편견으로 청소년이 지금까지 해보지 못했던 경험을 '배분'이라는 방법으로 해볼 수 있다는 기대감으로 신청하게 되었다.

청소년에게 새로운 기회라 기대함

시작은 단순한 끌림이었다. 나는 이제까지 미성년자에게 금전적인 부분을 다룰 기회를 주는 곳은 본 적도, 들은 적도 없었다. 성인에 비해 부족할거라는 생각으로 제공되지 않는 기회들, 그에 따른 무시들, 제약도, 편견도 많은 청소년인 나에게 귀중한 경험이 될 거라는 생각에 신청을 했고, 그렇게 난 1기 청소년배분위원이 되었다. (위원11 소감)

청소년이 주체가 되어 기부금을 배분을 한다는 말이 지금까지 경험해 보지 않은 색다른 일이어서 기대되고 관심이 갔다. (위원12 소감)

셋째는 반디활동의 경험을 통해 사회문제에 관심이 많아져서 참여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아름다운 재단의 나눔교육 반디활동의 경험을 통해서 재단에 대한 믿음과 사회문제에 관심도 많이 생겼고 직접 '배분'해보고자 하는 생각이 있어서 신청하게 되었다.

반디경험으로 사회문제에 관심이 많음

처음 배분위원회에 신청할 때에는 배분위원회에 대해 잘 알지 못했다. 하지만 아름다운 재단의 반디 프로그램을 2번이나 수료한 뒤였기 때문에 아름다운 재단에서 하는 청소년 활동에 대한 믿음과 기대가 있었다. (위원1 소감)

처음에 배분위원회를 지원하게 된 이유는 평소부터 사회문제에 관심이 많아서였다. 2년동안 반디활동을 하면서 인권 사각지대 부분에 대한 사업을 직접 계획하고 배분을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한 적이 많았다. (위원6 소감)

③ 선발과정

청소년배분위원회 모집에 대한 공고가 나가고 31여명이 신청을 하였다. 인터뷰 날짜를 잡고 안내하면서, 청소년배분위원회 활동에 대한 정보를 주었다. 활동을 계속 못할 것 같은 지원자를 제외하고, 인터뷰에는 19명이 참여하였다. 사전오리엔테이션에 대한 일정도 안내하고 본인의 참여 확인을 요청하였다. 인터뷰에 참여한 19명 모두 최종 선발되었다.

인터뷰에 참가한 청소년 모두 참여동기와 활동경험이 모두 훌륭하여 인터뷰 참석한 19명 모두 청소년배분위원회로 함께 했으면 좋겠음. 참석한 청소년들이 공통적으로 사회이슈와 관심이 많고 적극적으로 참여하고자 하는 의지가 강하나, 학교에서 사회이슈와 참여활동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친구들이 거의 없어서 청소년배분위원회가 이들에게 좋은 경험이 될 것이라고 생각됨 (인터뷰결과 보고서, 심사위원평가)

웹상에서 일정과 활동에 대한 안내를 해도 제대로 이해가 되지 못하는 경우도 많고, 서류 접수 후 인터뷰라는 절차를 한번 더 뚫으로써 청소년 스스로 이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지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으며, 재단에서도 신청한 청소년들이 청소년배분위원회 일정을 우선하여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지를 기밀할 수 있었음 (인터뷰결과 보고서, 총평)

인터뷰는 개개인을 평가하는 의미보다 신청한 청소년들에게 서류상에서 전달하지 못했던 활동내용과 일정 등을 안내하고 교감하는 시간으로 활용하고자 기획되었다(기획자문회의록, 2017). 실제로 참여자들에게 인터뷰의 경험은 사회적 활동에 대한 경험을 다시 설명하면서 스스로의 의지를 확인하고 과거 경험에 대한 보람을 느끼는 것이었다. 선발과정이 있고 인터뷰를 하면서 자신의 의지를 알리고, 절차를 거쳐서 청소년배분위원회에 참여하게 된 그 경험이 참여자들에게 자부심을 느끼는 것이 되었다.

〈사진1〉 청소년배분위원회 선발 과정



사회적 활동을 설명하며 보람을 느낌

봉사활동이라는 것을 중학교때부터 알게 되었습니다. 봉사활동이라는 것을 알게 된 후 봉사활동을 하며 봉사활동에 대한 재미를 느꼈고, 봉사활동을 꾸준히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 고등학생이 된 후 꾸준히 봉사 활동을 할 수 있는 곳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위원3 지원서)

면접을 볼 때... 기억나는 질문은 이 활동에 참가하기 전에 어떤 사회적 활동을 해봤냐는 거였다. 난 학교에서 1년 동안 친구 열명과 함께 바자회와 성당이나 동네 행사마다, 따라다니며 세월호가 인양될 수 있도록 기부 캠페인을 했다. 삼십만원과 종이학 천 오백개를 얻어서 세월호 인양 위원회에 갖다드렸다. 이 이야기를 면접 때 할 줄은 몰랐다. 그래서 나름대로 보람은 있는 면접이 되었다. (위원10 소감)

뽑혔다는 것만으로 자부심 느낌

어른들이 이런 걸 뽑고 이렇게 하지 않으려 했는데 이 친구들은 더 뽑히기를 원한 거예요, 내가 많은 경쟁을 뚫고 이렇게 됐다라는 거에 대해서 되게 자부심을 느끼고 이런 게 있더라고요. (최종인터뷰, 간사)

2) 오리엔테이션

① 기획자의 입장

2018년 3월 9-10일에 진행된 청소년배분위원회 오리엔테이션은 선발된 모든 청소년이 참여하도록 기대되었지만, 시기적으로 학교 개학이라는 이슈로 인해서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였다. 사전에 충분히 안내하고 참여할 수 있는 경우에 인터뷰를 보도록 했으므로 오리엔테이션 불참의 경우에는 이후 일정 참여에 영향을 줄 수 있었다. 그러나 오리엔테이션 불참자와 앞으로 함께 할지여부도 참여자들이 스스로 결정하도록 격려하였다.

청소년배분위원회 멤버들에게 상황(재단에서 모든 학교의 개학 일정을 파악하지 못했고, 그 때문에 학교 개학 때문에 오리엔테이션에 참여하지 못하는 상황)에 대한 안내를 해주고 논의하여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음. 일종의 히든 커리큘럼(Hidden Curriculum) (인터뷰결과 보고서, 심사위원평가)

오리엔테이션은 처음에 2박3일 일정으로 기획했으나, 중고등학교 방학이 굉장히 짧아서 2일 통학으로 변경하여 진행하였다. 몸활동을 통해서 권력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 깨어짐과 활동에 대한 의미부여를 하고자 하였으나 참여자들의 반응은 각기 상반된 모습을 보였다.

몸 활동을 통해 권력관계 이해하도록 세팅함

약간 좀 이제 고민되는 지점은 저희가 오티 때 불러서 활동을 했던건 사실 그런 권력관계나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몸활동이랑 그 의미부여해서 이야기 하는 걸로 그걸로 세팅을 해둔건데 이게 그렇게 그 참여했던 청소년 배분위원들한테는 와 닿지 않았던 거예요, 오리엔테이션 사실 1박 2일로 하려했었는데 여러 상황들이 여의치가 않았었어요. 그래서 약간 좀 이 청소년들을 맞이했을 때 내가 더 준비를 잘 했더라면 더 좋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중간인터뷰, 간사)

② 참여자의 입장

몸활동을 통해서 관계에 대한 편견을 깨고 동등한 위치에서 의사결정 경험을 준비하도록 기획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청소년들은 설레임과 친해지기 위한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거나, 혹은 유치한 활동에 오히려 경직되고 낯선 환경에 경직되고 긴장되었다고 하였다.

상대적으로 중학생 참여자들은 주로 즐겁고 재미있다는 평가였다. 첫 만남에 어색하지만 즐거움과 설레임의 감정들이 공유되었고, 자기를 소개하면서 서로 알아가고 친해지는 시간이 되었다고 하였다.

공유된 첫만남의 감정들에 설레임

나는 청소년배분위원회가 되고 나서 첫 모임이 제일 기억에 남는다. 언니, 친구, 동생들의 얼굴에는 기대, 떨림, 즐거움, 설렘 등 많은 감정을 담고 있었다. 그래서 나는 그 감정들이 공유되듯이 기대되고 설레었다. 모든 것이 어색하고 긴장되었던 첫날, 그렇게 나는 청소년배분위원회 활동을 시작하게 되었다. (위원12 소감)

나에 대해 말할 기회가 있어서 좋았음

이틀 동안 했는데 그 자체가 되게 재밌었고 저는 그 이틀 동안 대부분 활동이 다 그거였어요. 이제 저희가 처음만남 사이고 하니까 서로에 대해 알아가고 조금 친해지고 이런 시간이었는데 저도 되게 적극적으로 임했다고 생각해서 매우 잘하였다 라고 했어요. 듣는 것도 좋았고 사실 어디 가서 이렇게 딱 시간을 딱 주고 저에 대해서 말할 기회가 흔치 않잖아요? (중간인터뷰2, 청2)

반면에 주로 고등학생 참여자들은 청소년배분위원회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고 무엇을 하는지도 몰랐던 상황에서 자기소개는 쑥스럽고 부끄러웠다고 하였다. 친해지기 위한 다양한 몸활동은 너무 유치해서 충격적이어서 긴장이 오히려 잘 안풀렸다는 것이다.

뭔지 몰라 혼란스럽고 부끄러웠음

2017년 8월 아름다운재단 청소년배분위원회 OT. 처음 만나는 친구들 앞에서 나는 몇 가지 키워드를 가지고 나의 소개를 하며 배분위 활동을 시작했다. 배분위라는 말만 들었지 무엇을 해야 하는 것인지 아무것도 모른 채 그냥 해보고 싶다는 마음만 있었다. 그래서 앞에 선 그 자리에서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말을 하고 있어도 잘하고 있는 것 인지 혼란스러웠었다. 쑥스럽고, 부끄러운 마음이 너무 컸다. (위원5 소감)

활동이 유치해서 충격적이었음

뭔가 기대감이라는게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배분위원회 한다고 해서 기대감을 가지고 왔는데 뭔가

거기서 긴장을 그니까 친해, 서로 친해지려 하는 활동들이 뭔가 친해지는데 도움이 안 되고 그냥 그런 긴장도 잘 안 풀어지고 그리고 무엇보다 초등학생들이 할 만한 활동을 해가지고 저는 아... 큰 바람이 불어와 막 이런거 하고, 사진포즈 잡기 이런 놀이하는데 좀 충격적이었어요 (중간 인터뷰, 청3)

그런 활동들을 아이들이 은근히 싫어해요. (최종인터뷰, 멘토1) 약간 호불호가 갈렸어요. **이 이런 아이들은 되게 좋아했었고, **나 좀 연령 있는 친구들은 싫어하고, 운동하고, 눈에 뻘히 보이고 이런 걸 간파하더라고요. (최종인터뷰, 간사)

3) 아름다운재단 배분위원장 만남, 영화관람 및 기관 방문

① 배분위원장 미팅

9월 9일 아름다운재단 배분위원장과 미팅을 통해 배분위원회의 역할, 가치, 심사방법 등을 나누었다. 참여자들은 성인배분위원이 심사할 때 어떤 기준으로 하는지 어떤 가치를 중심으로 하는지를 질의 응답하였다.

배분위원장 미팅 전에 미리 질문을 취합했고, 질문을 적은 포스트잇을 전달하며 진행하다보니 굳이 말로 질문하지 않아도 되었다. 위원장님이 궁금한 것을 (문기 전에) 답해주었으나, 실제 원활한 질의 응답은 진행되지 못하였다. 서로 친하지 않아서 어색한 관계 속에서 선뜻 질문하지 못하였다고 하였다.

〈사진2〉 아름다운재단 배분위원장과 만남



미리 질문을 정리하고 감

그때 그래서 포스트 잇 같은걸 붙여서 미리 질문을 취합을 해서 가져갔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게 되게 효과적이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왜냐면 거기에 가서 물어보려고 하면 사실 생각은 해왔어도 막상 말할 용기도 안나고 다 불편한 사람들 속에서 이렇게 직접 질문 하는게 사실 좀 어려운데 저희가 미리 의견을 받아서, 그 질문 포스트잇을 배분위원장님께 보여드리면서 하다보니까 저희가 낯을 가려서 막 다들 말이 없어도 위원장님께서 그거 보면서 자연스럽게 이끌어서 하시고 해서 그날에는 저희가 궁금했던 것도 거의 다 물어봤던 것 같고 해서 잘하였다 했어요. (중간인터뷰2, 청2)

〈사진3〉 활동계획세우기



어색하여 쉽게 질문을 못꺼냄

근 한 달만의 만남이라 구성원들이 서로 어색해하며 누구 하나 쉽사리 입을 열지 못했다. 누구 하나 나서서 질문을 못 했고 그렇게 미리 작성했던 질문들에 대한 배분위원장의 답을 얻었다. 그날을 시작으로 우리는 진짜 청소년배분위원회로서의 활동을 시작했다. (위원4 소감)

재단은 첫 활동으로써 배분위원장 미팅을 통해 배분에 대해 이해를 높이는 것뿐만 아니라, 청소년들간에 친해지는 것도 기대했으나 실제 배분에 대해 잘 모르니까 질문도 못하는 그래서 원활한 상호작용이 일어나지 않는 상황이 나타났다.

친해지게 하려는 의미도 있었는데

그런 의미에서 배분위원장을 만난것도 있었거든요. 초반에. 그래서 근데 질문도 사실 그렇게

까지 약간 청소년 위원들이 평가 할 때 너무 친하지 않아서 질문이 잘 나오지 않았다. 사실 그런 의미에서 배분위원장님을 만나게 한 것도 있고 (중간인터뷰, 간사)

뭘 알아야 질문을 하지

배분에 관련된 질문 좀 해볼까? 그때 그랬잖아요. 근데 아이들이 질문을 못하더라고요. 왜냐면 아는게 없으니까. 이 기관도 좋지만 배분에 관련돼서 좀 궁금한거 있으면 질문해줬으면 좋겠어. 했는데 아이들이 질문을 못 하는거, 아 진짜 우리가 뭘 알아야 질문을 하는데 알지 못하니 질문도 못하고. (중간인터뷰, 멘토)

9월 23일 참여자들은 1년 동안의 청소년배분위원회 활동에 대한 목적과 전체 과정에 대해 생각하는 시간을 통해 계획을 세웠다. 이 단계에 제시된 가이드라인은 다음과 같았다.

‘이후 가급적 청소년들이 계획한 일정대로 진행하며, 이들에게 권한이 있음을 알리고자 노력’ (아름다운재단 청소년배분위원회 활동자료, 2018)

② 영화관람

10월 14일 사회이슈를 탐색하기 위해서 ‘아이캔스피크’ 라는 영화를 관람하였다. 사회적 약자에 대해 어떤 편견을 가지고 있는지 자연스럽게 논의하였다. ‘배분이 사회적 약자에 대한 옹호 과정’임을 이해하는 시간으로 기획되었다.

영화관람 이후 영화의 주제외에도 참여자들이 느끼는 사회문제를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실제 공통 관심사 뿐 아니라 각자가 ‘관심 없는’ 분야에 대해 알 수 있어 도움이 되었다고 하였다. 다만 토론을 할 시간이 짧아서 풍부하게 나온 이야기들을 깊이 있게 나누지 못했다는 아쉬움이 있었다.

사회문제 얘기하고 공유하는 기회

영화 끝나고 나서 저희끼리 이제 이 영화에 나오는 사회문제 말고도 다양한 문제들에 대해서 얘기 해보자 이래서 그 영화 속에서도 찾아내고 이 영화가 주된 내용은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 내용인데 그 외에도 많은 문제들이 있었던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영화 본 분들이 되게 잘 찾아내서 그 외에도 뭐 여러 가지 자기가 느끼는 사회 문제들 막 얘기하고 공유하고 했던게 되게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영화 본 자체라기 보다. (중간인터뷰2, 청2)

관심 없는 분야에 대해 알 수 있는 기회

청3 : 왜냐면 그때 이거 보고 나서 서로 느낀점이랑 자기가 생각하는 사회문제 같은 거를 나눴는데 자기가 관심 없는 분야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회자 : 서로 좀 알 수 있는 상황이었으니까

청2 : 그니까 하여튼 우리가 이거를 하는 사이야. 다른 친해질 수 있는 활동을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중간인터뷰, 청3)

시간이 짧아서 깊은 얘기를 나누지 못함

앞으로 주제를 어떻게 잡아가면 되겠다 그런것도 좀 솔직히 나왔었거든요. 근데 그게 너무 짧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영화를 보고 영화 후기로 해서 이야기 했는데 이야기는 되게 많았는데 솔직히 시간이 짧아서 아이들 가고 이래야 돼서 길게는 못 나눴는데 그때 나눴던 이야기들이 되게 풍부했거든요. 그래서 이걸 더 깊숙이 막 얘기를 나눴으면 좋지 않았나 라는 생각도 했었어요. (중간인터뷰, 멘토1)

③ 기관방문

배분기관의 현실을 이해하기 위해 10월 28일엔 아름다운가게를 방문하였고, 11월 11일에는 고함20을 방문하였다. 아름다운가게 방문을 통해서 실제 배분하는 기관에서 과정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배분에 대한 책임감과 기준에 대한 고민을 구체적으로 시작할 수 있었다. 고함20은 아름다운재단에서 지원받은 단체로서 배분의 의미, 지원사업에서 필요한 것, 기존 배분절차의 어려움에 관하여 지원단체 입장을 알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아름다운재단 청소년배분위원회 활동자료, 2018).

청소년들이 가고 싶은 곳, 만나고 싶은 사람, 배우고 경험하고 싶은 것을 토의하여 정리하였고, 재단에서 이를 토대로 방문할 수 있는 기관 리스트를 주고 참여자들이 직접 결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특히 가보고싶은 곳은 아름다운재단에서 배분한 단체, 유기동물보호소, 장봉혜림원, 사회적기업, 사회적약자를 이해할 수 있는 곳 등이 있었고, 일정을 고려하여 최종 방문지로 아름다운가게와 고함20이 정해졌다.

〈표5-1〉 활동계획세우기: 정리표

만나고 싶은 사람	가보고 싶은 곳	배우고 경험하고 싶은 것	기타(논의주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름다운재단 기부자 • 배분이나 사회문제 전문가 • 참여연대임원 • 아름다운재단의 배분위원회와 이사회 • 가출청소년이나 담배피는 청소년 캠페인 하는 사람 • 미혼모 도와주고 있는 전문가나 운동가 • 헤이그라운드에 있는 사회적기업 대표들 • 인권운동가(전문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름다운재단에서 배분한 단체 • 사람뿐만 아니라 환경이나 동물의 문제를 다루는 곳 • 유기동물보호소 직접 가보고 환경개선방안 생각해보기 • 아주대 권역외상센터 • 장봉혜림원 • 사회적기업(헤이그라운드) • 다하의집 • 고아원이나 유기견보호센터 • 사회적약자를 이해할 수 있는 곳 • 광주 • 다른 지역 1박2일 • 친목을 다질 수 있는 여행 • 롯데월드 • 패리글라이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배분, 사회운동에 관한 책 찾아보기 • 사회의 큰 문제를 다룬 영화나 다큐를 보고 소감쓰기 • 자기가 사회문에게 어떤 기여를 하는지 알아보고 더하기 • 재난지역봉사 • 선정된 이슈 관련 조사후 토론 • 골목축제기획 • 다른 청소년단체와 토론 • 외국청소년과의 만남 • 시각장애인 체험해보기 • 성인배분위원회 회의 견학 • 성인배분위원회와 청소년 배분위원회끼리 가상의 주제로 회의해보기 • 사회적기업 대표 그들이 생각하는 사회이슈에 대한 것 • 비영리단체들이 어떤 것이 있고 어떤 활동들을 하는지 궁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배분 우선순위 정하기 (사회이슈들의 중요도 생각하기) • 위원회내에서 주제를 좁힌 후 생각하면 더 쉬울 것 같음 • 돌아가면서 조장 • 페이스북페이지로 공식소통 • 2달에 1-2번 서울아닌곳에서 모여서 여행+회의

청소년들이 가고 싶은 곳을 선택함

리스트를 짝 주셨어요, 재단에서. 노력을 많이 해주셨는데 애들끼리 원했던 분야가 있었거든요. 분야에 해당하는 것에 그러면 어디를 지원했냐, 단체랑. 어떤 사업에다 지원을 했냐. 이게 리스트가 딱 있었는데. 애들이 보면서 선택한 거예요. 고함20 여기는 정말 가보고 싶다. 이 사업이 너무 궁금하다고. 해서 선택해서 애들이 몇 가지, 몇 군데가 있었는데 사실상 저희가 고함20 밖에 못 갔어요. (중간인터뷰, 멘토2)

아름다운가게 방문을 통해서 기부의 과정을 이해하고 배분에 대한 방향성을 잡을 수 있었다. 고함20에서는 아름다운재단 지원단체 입장에서 실무적인 서류작성, 배분 방법과 유의점들을 배울 수 있었다. 특히 지원받지 못하지만 많은 사람이 알아야 하는 일들 등 배분위원으로서 판단기준에 대한 구체적인 조언도 얻었다. 이러한 기관 방문의 기회는 후에 실제 배분방법들을 찾아가는데 길잡이 역할을 하였다.

배분방향과 절차에 대해서 제대로 깨달음

활동이 시작된 후 나는 많은 분들을 만났다. 처음에는 이게 과연 나중에 도움이 될지 의문을 품었지만 배분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면서 배분의 방향성을 잡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다. (위원12 소감)

아름다운가게는 돈이 순환하는 구조로 기부받은 물품을 팔아내어 얻은 이익을 그 지역의 도움이 필요한 곳에 적절히 배분하며 돌아가고 있었다. 그곳에서 나는 배분이란 무엇인지, 어떻게 하는 것인지를 처음 제대로 깨달을 수 있었다. (위원4 소감)

청소년에 대한 관점으로 배분의 판단기준에 대한 조언을 얻음

저희는 조언을 바란 거잖아요. 다른 분들은 약간 아 우리는 이제까지 이런 일들을 해왔어 약간 이거였는데 고함20에서는 조언(해줬어요) 그리고 제일 좋았던 거는 가치를 잡으라고 하시는데...저희 하는 거랑 연결해서 얘기해 주셔가지고...아이들, 청소년들 생각 많이 하셔가지고 (중간인터뷰, 청1, 3)

내가 배분위원으로서 무엇을 해야 할지 몰랐지만, 그 순간 나도 아무에게 지원받지 못하지만 많은 사람이 알아야 하는 그런 일에 배분을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처음으로 했다. (위원5 소감)

판단기준은 사실 저는 고함 20과 아름다운가게에서 나온거였거든요. 예를 들어서 성 소수자라든지 부당함들이 사실 거기서 그 남들이 관심 갖지 않은 주제, 배분받아 보지 못한 그런거, 그리고 사각지대에 있는 청소년, 이런 말들이 다 거기서 저는 얻은 거였거든요. (중간인터뷰, 멘토2)

〈사진4〉 배분을 하는 기관 방문과 비영리단체와 만남



배분위원의 역할과 실무적인 배분방법에 대하여 영향을 받음

고함20. 아름다운재단 배분위를 거쳐 활동자금을 받아 활동했던 곳이었기에 우리가 서류를 만들 때 어떻게 해야 그 서류를 작성하는 사람이 편할지 그리고 배분을 받은 후 기존 재단의 방식에서 어떤 점이 좋았고 어떤 점이 불편했는지를 들으며 앞으로 어떤 점을 유의하며 배분을 시작해야 하는가를 배울 수 있었다. (위원4 소감)

고함20을 통해서 애들이 많이 방향을 정한 게 있었어요. 거기 친구들이 지원하고 싶은 이슈와 방향성이 다 담겨있었어요, 사실은. 그런 단체를 잘 찾아가서 배우고 인터뷰를 했던 것도 사실 큰 영향이 있었던 것 같더라는 생각이 들어요. (최종인터뷰, 멘토2)

그러나 실제 8월 9일 오리엔테이션부터 11월 11일 기관방문에 이르기까지의 긴 시간에 대해서는 참여자들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고 막연히 배분에 대해 걱정이 되는 시간이었다. 의미를 못 찾고 그만두어야 하는지 고민하기도 하였고, 기관방문도 필요한 내용인지 모르겠고 지루하고 귀찮다고 느끼기도 하였다.

지난한 과정에 의미를 못찾음

그냥 나오기는 하는데 지금 진전이 있는건지, 내가 지금 뭘하는건지 이려고, 부모님이랑 선생님들도, '네가 하는 취지는 좋은데 너가 지금 고등학생이고, 나는 지금 너가 이걸 하고 있는 것이 잘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다'라는 말을 진짜 많이 들었거든요. 그때는 처음에는, '기다려봐 이게 다 때가 와' 이랬는데, 나중에 듣다 보니까 '맞나? 괜찮나? 이걸 하고 있는 게 맞나?' 이런 생각을 엄청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저희가 팀을 나누기 전까지는 저도 의미를 못 찾았어요. '아 이걸 그만둬야 되나? 지금 빨리 그만 둬야 되나? 그만 두고 내 생활을 빨리 찾아야 되나?' 그랬는데 (종결인터뷰, 위원3)

지루하고 귀찮다고 느낌

고함 20도 그렇고 아름다운가게도 그렇고 이게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렇게 막 필요한 내용 같지는 않다라는 생각을 너무 했기 때문에 그냥 계속 지루했고 좀 귀찮았던 것 같아요. (중간인터뷰, 청2)

우리가 할 일들도 되게 많은데 그 일은 시작은 안하고 뭔가 이제 어디를 가서 자꾸 뭔가 들어가 되고 조사하는 작업들이 길어지니까 앞으로 해야 할일 너무 많은데 언제까지 약간 이런 생각 들 좀 있었던 것 같고 저는 아까 제 나름대로 청소년 애들이 그런 얘기를 했을 때 아 돌이켜 보면은 그때는 되게 피상적인 질문을 많이 했잖아요. 거의 대부분 갔을 때 했던 질문들이 우리 배분에 대한 거 보다는 기관의 질문들을 많이 했었거든요 (중간인터뷰, 간사)

4) 팀 나눠 배분이슈 논의 및 배분 준비

① 팀 나누기

11월 25일 모임은 청소년배분위원회 활동 전체 과정에서 ‘터닝포인트’가 되었던 회의였다. 그동안은 혼란스럽고 방향도 알 수 없는 답답한 상황이었었는데, 이 회의를 통해서 본격적으로 배분프로세스에 진입하였다고 느꼈다. 참여자들은 각자 사전에 조사한 내용을 토대로 청소년 사회참여를 주제로 하는 ‘청소년이 하는’ 활동지원팀과 청소년 인권을 주제로 하는 ‘청소년을 위한’ 활동지원팀으로 명명하고 활동할 팀을 선택하였다.

〈사진5〉 배분사업 기획: 팀나누기



청소년들이 하나씩 자기표현으로 깨우쳐 가는 과정임

고민을 하면서 말로 표현해내는 걸 보고 아 이렇게 하나씩 알아 가면 되겠구나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그 가운데 청소년이 직접하는 활동이라는 그 단어도 자기네들이 말을 한거지 저희가 준 단어들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하나는 청소년을 위한 활동을 했으면 좋겠다 해서 그런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깨우쳐 가는 과정이 저는 되게 의미있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우리가 주지도 않았는데 근데 되게 혼란스러웠다고... 처음부터 계속해서 자기가 뭘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중간인터뷰, 멘토2)

두 개의 팀으로 나뉘어 본격적인 배분위원 활동을 시작함

청소년배분위원회에 대해 조금씩 이해가 가기 시작했던 때는 고려사이버대학교에서 회의를 했던 때인 것 같다. 그때 우리는 '청소년이 하는 팀', '청소년을 위한 팀' 두 개로 나뉘어져 구체적으로 청소년배분위원들이 생각하는 사회문제와 배분 기준들을 생각해 보았다. 그 활동 이후 점차 청소년배분위원이란 활동에 대해 호기심과 자부심을 가지게 되었던 것 같다. (위원9 소감)

두 개팀으로 선정 한게 잘한 것 같다고 생각해요. 의견이 더 잘 모아지고 그 저희가 하고 싶은 주제로 이렇게 모인거잖아요. 근데 다 같이 이렇게 있으면 의견이 통합 안 되고 따로따로 더 나뉘지니까 두 개팀으로 나뉘어서 한게 잘 한 것 같아요. (중간인터뷰, 청3)

이게 여기 보면 두 팀으로 구성할 때부터 애들이 으샤으샤 한거예요. 와 이제 나 뭐하는 것 같아... 너희들이 이 앞에 한 활동이 아무것도 의미 없는게 아니다. 너희들이 그게 기본이 돼서 그 다음 활동할 수 있는 밑거름이다 막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중간인터뷰, 멘토1)

친밀보다 관심주제로 팀 선택함

누가 뭘 하고 싶다가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게 뚜렷하기 때문에 그렇게 선택을 했던 것 같아요. 만일에 '내가 애랑 같이 하고 싶은데 할까?' 라고 고민할 텐데 그런 게 없었어요. 애들이. (최종인터뷰, 멘토2)

팀을 되게 잘 짠 것 같아요 나이별로 섞어서 친한 사람 아닌 사람끼리 나누니까 훨씬 좋았어요. 처음부터 저희 분위기가 되게 좋고 저희 팀은 그러가지고 별로 의견 얘기하는데 눈치도 안보이고 그냥 한명씩 얘기하는 거니까 그 방식이 되게 좋았어요. (중간인터뷰2, 청14)

② 팀별논의

12월16일과 23일에는 두 팀이 각각 기관방문과 자료조사 등을 통해 앞으로 어떤 주제와 방식으로 배분할 것인지 이슈에 대한 논의와 역할분담을 해나갔다. 참여위원(청소년이하는 활동팀)은 공릉청소년

정보문화센터를 방문하여 인터뷰를 진행하였고, 청소년지원사업에서 중요한 신뢰와 즐거움이라는 키워드를 논의하였다. 인권위원(청소년을 위한 활동팀)은 다른 단체의 배분방식에 대한 조사와 다른 곳에서 지원하지 않는 주제에 대한 접근을 하였다. 재단은 청소년배분위원회를 실무적으로 지원하는 차원에서 아름다운재단 배분프로세스를 안내해주었다 (아름다운재단 청소년배분위원회 활동자료, 2018).

참여자들은 각자의 주제를 발표자료를 준비하면서 각자의 주제를 발전시킬 수 있었다. 다만 명확한 주제를 정해야 한다는 생각에 폭넓게 발표하지 못했다는 아쉬움도 있었다. 팀별로 혹은 각자 배분이슈에 대해서 다각적으로 연결된 문제들을 발견하고, 배분의 사각지대를 고려하면서 필요한 대안을 찾아가는 과정이었다.

각자의 관심있는 이슈를 정리하여 발표함

청1: 준비하면서 되게 많이 배운 것 같아요, 제가 그냥, 제가 선정했던 이슈였지만 이정도 깊을 줄 몰랐던 문제였고 그거를 하면서 되게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청2: 저는 학생인권 했는데 이게 생각으로 하는 것 보다 PPT 만들면서, PPT도 직접 만드니까 대본을 정리하고 이러는게 제 생각을 정리하는데 훨씬 도움이 돼요, 제가 생각만 가지고 있다가 다 같이 말로 풀어내는 것 보다.(중간인터뷰, 청1,2)

배분주제를 좁게 제한두어 정하고자 했음

학생인권이라는 그 주제는 저는 되게 크긴 한데... 좁은 주제에만 딱 나는 이거만 배분해야지 라고 처음에 생각했었어요... 청소년을 위한거 안에서 내가 각자 관심 있는 거를 찾아서 발표를 한다던지 이런 식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그때 약간 미혼부, 이주청소년, 학생인권 이렇게 약간 따로 나뉘지는 느낌이어서 큰 주제 안에서 발표 하는게 좋았을 것 같아요. (중간인터뷰, 청2)

배분 사각지대를 고민하며 이슈 공부를 많이함

저희는 이슈 공부를 되게 많이 했어요, 친구들이, 그리고 그 사각지대에 있는 청소년. 어디에서도 지원받지 못하는 청소년 시선에서 자기들이 정한 게 있고 거기서 잘 알려지지 않은 그런 이슈를 지원하고 싶다고 했고, 인권 부분이랑 청소년 인권이랑, 그 다음에 여성인권 이런 식으로 몇 가지를 접목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맞는 단체 서류들이 좀 많이 들어왔던 것 같아요, 저는 이 과정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이슈를 공부했던 것 자체가. (최종인터뷰, 멘토2)

5) 배분공모준비

1월에는 본격적으로 배분공모 준비에 들어갔다. 3월까지 본격적으로 바쁜 시간이었다. 매주 4시간 이상씩 만나서 팀별로 공지문, 신청서류, 심사기준, 홍보단체 리스트 등 세부사항을 준비해나갔다.

〈사진6〉 공모준비 회의



① 신청서류 만들기

서류작성 작업은 심사 기준, 배분의 방향에 대해 합의하고 그에 따라 심사기준을 세우고 쉽고 간결하게 쓸 수 있는 신청 서류를 만들었다. 성인용, 청소년용 나누려하다가 다시 모두가 쉽게 쓸 수 있는 방안으로 결정하고 참여자들이 써보며 문제를 찾아가고 수정하는 서너번 “갈아엮는” 과정이었다.

우리의 심사기준에 맞는 서류만드는데 오래 걸림

학교 밖 청소년도 고려하며 신청 서류 양식을 짜고, 우리가 정한 주제에 맞는 심사 기준을 세우며 두, 세 달 정도를 바쁘게 보냈다. (위원11 소감)

우리 팀원 모두가 가장 어려움을 겪은 것은 공모 공지와 심사 준비를 하던 겨울 방학 때였다. 당시 우리는 매주 4시간 씩 모일 정도로 많은 시간을 투자했다. 서류 작업은 처음이었기에, 우리의 심사 기준에 맞춰 간결하고 쉬우면서도 필요한 정보가 모두 들어간 지원 서류를 만드는 데 어려움이 많았다. (위원1 소감)

스스로 작성해보면서 수정해내감

이거를 쓰는 사람을 세분화해서 청소년이 쓸 때는 좀 쉽게 쓰고 성인이 쓸 때는 좀 어렵게 쓰고 시민 모임 있을 때는 간결하게 쓰고 좀 큰 단체 갔을 때는 좀 어렵게 쓰고 이렇게 잘 나눴어요. 만들어 놔를 때는 되게 쓸만하다고 생각했었거든요? 저희가 그때 그랬단 말이에요. 아 그럼 쓸 수 있는지. 우리가 한번 써보자. 이렇게 써 봤는데 또 막상 써보니까 애랑 애랑 내용이 똑같은데, 애는 도저히 못쓰겠는데 뭘 써야 하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되니까 다시 쓰고 (중간인터뷰2, 청4)

카톡방에서도 회의하며 다시 고치고 또 고침

그 이외에 서류팀 세 명은 또 카톡방이 있어요. 또 그 소리가 올라와가지고 이렇게 고치면 좋겠어, 저렇게 고치면 좋겠어. 최종적으로 나온거 다시 다 모였을 때 보고 다시 고치고 그랬죠. 한번 읽고 한번 고치고 (중간인터뷰, 청)

재단 양식을 베끼다가 여러번 갈아엎게 됨

청2 : 재단거를 거의 베끼다시피해가지고 너무 어려운 내용이 있어가지고 그걸 다 수정하느라고 그러느라고 두 세번 엮었어요. 이게 한번 엮는다는게 큰 결정이기도 하고 약간 진짜 와 처음부터 다시 해야 돼. 그 좌절감이 너무 크게 와요.

청1 : 근데 그거를 한번 엮는다는게 저희한테는 되게 큰 스트레스였고, 그런데 엮는게 좋았던 것 같아요. 안 엮었으면 솔직히 엉망진창 서류심사도 되게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그렇게 했으면 (중간인터뷰, 청1,2)

우리는 크게 보면 3번 서류를 엮었다. 엮었다는 단어를 쓰는 이유는 수정했다는 단어가 우리의 노력에 비해 시시해 보이기? 때문이다. (위원4 소감)

청소년과 성인 모두가 사용할 수 있는 신청서류

청소년들하고 그 성인 모두가, 그니까 일단 청소년들이 쓸 수 있게 만들어 놔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쉽게 간소하게 필요한 것만 (중간인터뷰, 청2)

힘든 시간이 배분위원으로서 가장 즐거운 시간이 됨

만나서 회의를 하고도 집에 가서 공모를 위한 서류, 면접 질문 양식 등을 만들어야 했고, 회의 장소와 시간을 맞추기 힘들 때는 카톡을 통해 의견을 나누기도 했다. 하지만 나에게 힘들었던 기억만큼 그때가 가장 즐거웠다. 왜냐하면 그제서야 평지 같았던 활동이 굴곡이 나타나고 계단이 되어 가는게 잘 느껴졌기 때문이다. 아마 이때 가장 많은 책임감과 의무감을 느끼고 배분위원이라는 자심감이 생기기 시작했던 것 같다. (위원3 소감)

6) 청소년배분위원 워크숍

2월9일과 10일 1박2일간 대구로 청소년배분위원회 워크숍을 떠났다. 배분공모를 최종적으로 준비하고, 지역의 청소년단체의 활동가들을 만났다. 실제 배분신청을 할 수 있는 청소년교육문화공동체 반딧불이의 청문회팀을 만나서, 그동안 참여자들이 준비한 배분공모 계획에 대한 의견을 받을 수 있었다. 팀별로 나누어 배분공모에 대한 공유와 피드백을 주고 받았다. 첫날은 치열하게 회의하고 둘째날은 놀이동산에서 신나게 놀았다.

① 청소년단체의 피드백

오랜시간과 공을 들여 만든 서류를 실제 배분지원을 할 수 있는 단체에게 보여주고 피드백을 받았다. 최종적으로 공모를 시작하기 전 참여자들이 고민했던 모집방안, 서류를 세심하게 지원자의 관점에서 점검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사진7〉 청소년기관 방문과 청소년인권 활동팀과 만남



가장 적절한 피드백을 받아 서류 완성함

내가 가장 인상 깊고 기억에 남는 것은 워크숍이다. 대구에 있는 청소년팀을 만나서 피드백을 받았던 것이 인상깊었다. 또래 청소년팀과 신청서류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 후 밤이 될 때까지 배분을 위한 공모준비를 하고 다음 날 이월드에 가서 신나게 놀았던 것이 기억이 남는다. (위원6 소감)

청2: 그래 청문회 청문회

청3: 반딧불이 활동에 참여했던 청문회

청2: 어 그래 그래 그래 그 친구들이 만나서 직접 저희가 만들었던 그서류들을 보여주면서 어떡어떤 항목은 빼고 어떡어떤 항목은 집어넣어서 애들한테 이제 지원하도록 하자. 이렇게 하면 부담감을 줄이고 쓸 수 있을 것 같다 라는 의견들을 얻어서 수정해서 저희가 준비했던 것 같아요. (중간인터뷰, 청23)

우리의 의도에 잘 맞는 단체를 만남

애들이 선택한 데가 우연히 우리의 의도와 되게 잘 맞고, 마침 우리가 가고 싶은 곳. 주제도, 청소년 팀을 지원하는 게 좋을까 아니면 청소년을 위한 활동을 지원 하는 게 좋을까? 이 고민을 사실은 그냥 모잡하기 전에 했는데 자연스럽게 또 그렇게 돼서 우리는 두 케이스를 다 보게 됐고(최종인터뷰, 멘토2)

② 놀이동산

대구로 간 워크숍의 첫날은 밤늦게까지 결정해야 할 사항들을 논의 하여 힘든 시간이었지만, 다음날 놀이동산에서 신나게 놀 수 있었다. 청소년배분위원회 활동에서 유일하게 1박2일 일정이었는데, 집이나 재단과 같이 익숙한 곳을 떠나 청소년들만의 시간을 가질 수 있고 배분위원회 활동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었다. 다만 이후에 같이 간 청소년들은 더욱 친해져 활동에 활기를 찾았는데 부득이 참석하지 못한 참여자들은 상대적으로 관계가 깊어지기는 어려운 이슈가 나타났다.

가장 친해지기 좋은 기회였음

정말 마음을 터놓고 친해지게 된 시기는 대구에 워크숍을 갔던 때인 것 같다. 그 이후 청소년 배분위원회에 오는 것이 전혀 불편하지 않았고 재미를 붙이게 되었다. (위원9 소감)

청1: 밤에 회의할 때 힘들었는데도 재밌었어요

청2: 저도 워크숍이요. 아 그니까 재미있다고 물어보면 사실 워크숍이 제일 재미는 있었어요. 되게 가서 일하더라도 어쨌든 저희가 매일 만나던 데에서 벗어나서 좀 새로운 데에서 얘기 해보고 또 원래는 두 세시간씩 만났었는데 하루 종일 같이 있는 거잖아요. 그게 되게 새롭고 재미있었던 것 같아요.

청4: 사실 워크숍이 제일 친해지기는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친해지고 나서 오히려 약간 의견교류도 활발하고 이렇게 됐다 생각해서 오티부터 친해지면 좋을 것 같아요. (중간인터뷰2, 청1,2,4)

워크숍 이후 더 많이 친해짐

아이들도 그 얘기를 했었어요. 빨리 친해졌으면 (멘토1 - 시작할 때부터 빨리 되어야 한다고) 시작할 때부터. 대구로 워크숍을 갔다 온 다음부터 더 많이 친해지고 갔다 오지 못한 친구는 약간 좀 그런 것 같아요.(최종인터뷰, 멘토2)

〈사진8〉 놀이동산 워크숍



7) 배분준비

3월3일부터 14일까지 청소년배분위원회 배분 공고를 하고 모집하는 기간이었다. 서류접수와 문의 응대를 나누어 맡았다. 재단이 홍보하는 것 외에도 참여자들이 자체적으로 홍보채널을 나누어 홍보하며, 문의가 오면 응대하는 방식이었다. '참여위원'은 학교 학생회 페이스북을 공유하고 청소년들이 자주 이용하는 SNS를 통해 홍보하였다. 인쇄한 포스터는 각 학교별로 부탁하고, 오픈카카오톡도

개설하여 문의용으로 활용하였다. ‘인권위원’은 사전에 단체를 리스트업하여 별도로 메일을 발송하여 관심을 유도하였다(아름다운재단 청소년배분위원회 활동자료, 2018).

〈그림12〉 배분 공고문



① 배분 공고와 홍보

참여자들은 서류를 만들 때도 청소년의 입장에서 하나하나 세심히 노력을 하였다. 예를 들어 청소년은 보호자가 꼭 필요한 존재가 아니니 ‘보호자 연락처’라는 말을 ‘비상연락망’으로 바꾸었다. 포스터를 제작할 때에도 청소년이라고 모두 교복을 입는 것은 아니므로 청소년의 이미지는 교복 없는 이미지를 사용하기로 결정하였다. 회의와 결정의 작업 속에서 드디어 포스터가 나오고, 배분위원으로서 참여자들은 SNS를 활용하기도 하고 포스터를 붙이기도 하면서 적극적으로 알리는 활동을 시작하였다.

보호자 대신 비상연락망, 교복 아닌 청소년 이미지

저희 포스터 같은 걸 만들 때 포스터나 서식을 만들 때 이 팀 같은 경우는 원래 저희 서식에, 재단 서식에는 보호자 연락처라고 표시되어있거든요? 근데 이 팀은 보호자라는 말을 뺐으면 좋겠다. 청소년들은 꼭 보호가 필요한 존재가 아니니까 그냥 비상연락망 이렇게 넣어야 된다. 그리고 저희 웹 포스터 만들 때는 그 교복, 청소년이라고 교복을 꼭 입고 있는 건 아니니까 교복을 없는 이미지였으면 좋겠다 약간 그런 표현을 한다던가, (중간인터뷰, 간사)

설날. 모든 양식의 제정이 끝나고, 재단 홈페이지에 사업공고를 올렸을 때가 설날이었습니다. 디자인부서에서 작업에 힘써주신 덕분에 좋은 디자인이 나왔고 팀별로 원하는 방향의 사업으로 공고를 올릴 수 있었습니다. (위원2 소감)

〈그림13〉 청소년의 사회참여 활동 모집 포스터와 청소년 인권활동 모집 포스터



홍보기간 짧아 SNS중심으로 함

짧은 모집 기간 탓에 지원 단체가 적을 것 같아 홍보에도 많은 공을 들였다. (위원1 소감)

청3: 홍보기간이 짧긴 했어요

청3: 홍보하면서 힘든거는, 포스터 안 붙였지?

청2: 포스터는 안봐요 붙여도

청3: 봐. 전 붙였어요, 포스터가 좀 더 많았으면 좋았을 것 같아요

청2: sns가 짱이야 sns (중간인터뷰, 청2,3)

② 배분 신청의 시작

공고가 나가고 많은 단체/팀에서 신청을 했다. 참여자들은 신청자가 많아 신기하면서도 배분위원으로서 책임감을 느끼게 되었다고 하였다. 신청기관들은 청소년 활동에 대한 지원사업이 부족해서, 아름다운재단에 대한 관심이 있었고 사업의 성격이 맞아서, 성인배분위원회로부터 관심받지 못했던 활동에 대해 기회를 줄 것 같은 / 설득해낼 수 있을 것 같은 기대감으로 지원하게 되었다고 하였다.

많은 신청자에 책임감을 느낌

그렇게 모든 모집이 끝나고 우려와는 달리 많은 사람들이 신청을 해 주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배분위원회로서 자신의 책임감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위원2 소감)

지원동기: 청소년(을 위한) 활동에 대한 열린 지원 기대

청소년들의 자체 활동을 위한 지원사업이 많지 않기에 홍보물을 보자마자 지원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청위팀, S)

처음에 페이스북을 넘기다가 공고가 나오더라고요. 아름다운재단을 봤는데, 청소년 배분 위원회가 있는 것도 알게 되고 배분사업도 있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저희는 이전에도 정책 제안이라던가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거랑 이거를 연결시켜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사회참여라는 동아리 파트라는 곳이 있는데 그 곳에 말을 해가지고 함께 시작하게 된거예요.(청이팀, P)

배분경험이 많은 데는 기준이나 눈높이가 까다롭고, 높고, 이거에 대한 필요성을 되게 구체적으로 수치나 이런 것들로 설명을 해야 되는 반면에, 청소년이라면 어쨌든 그들이 처해있는 학업이라는 공간에서의 공감대도 있고 뭐야 비교적 적은 경험에서 만들어내는 접근의 수월함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신청을 했었어요.(청위팀, Q)

8) 배분 심사

3월 17일에서 24일간 서류심사와 면접심사를 진행하였다. ‘청소년 사회참여활동’은 15개팀이 접수되었고, ‘청소년인권활동’은 13개 단체가 접수되었다. 각 팀별로 세운 심사기준에 따라서 서류심사를 진행하였다. 모든 위원들이 납득되고 동의될때까지 토론하였다. 청소년배분위원들은 전화안내, 현장대기실 안내, 서류심사, 면접심사, 최종 평가회, 선정안내까지 배분심사의 전 과정을 주체적으로 참여하였다.

〈사진9〉 서류심사 과정



① 서류심사

청소년배분위원들에게 서류심사는 본인들이 고민했던 사회이슈들에 지역사회의 다양한 단체들이 가상이 아닌 직접 지원한 실체를 직면하는 시간이었다. 위원들이 지난 반년간 생각해왔던 이슈들보다 ‘난이도’가 높았다. 사회에 대한 분노, 어른들의 문제와 분리될수 없는 청소년의 문제들이 구체적인 사업/활동으로 전달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류심사의 과정은 정해진 기준을 가지고 회의와 토론의 시간으로, 면접에서 결정할 수 있도록 기회를 열어주고자 하였다.

사회문제의 폭증: 감당하기 힘들

배분을 하기 위해 지원한 팀들의 활동 내용을 보다보니 난이도가 매우 높았다... 청소년 헌법 개정, 특히 지원금을 요청하시는 청소년 분들의 사회에 대한 분노... 처음 신청할 때도 전혀 상상 못한 엄청난 사회 이슈들이 쏟아져 나왔고, 어른들의 문제와 청소년 문제가 더불어서 나의 머릿속으로 이해되려니까 점점 활동이 힘들어졌다. (위원10 소감)

서류심사 과정: 기준→회의 설득→결정

서류 심사는 총 15개 팀이 지원을 해서 다 같이 진행했는데, 우리가 정한 주제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한 통과를 시켰다. 서류 심사 때 까다롭게 하나하나 체크하지 않았던 이유는 서류 심사 직전에 만났던 재단 관계자 분께서 서류 상으로는 알 수 없는 것이 많으니 직접 만나보고 결정하는 것이 더 좋을 수도 있다고 하셨기 때문이었다.(위원11 소감)

청3 : 그 서류심사 면접심사 둘 다 끝나고 같이 이렇게 칠판에다가 팀 이름 쓰고 뽑을 팀이 아니라 탈락시킬 팀을 이렇게 체크해서 제일 많은 팀들 커트라인 정해서 뽑거든요? 청3 : 그냥 어 서로서로 면접심사하면서 이 팀은 이랬던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고 면접심사 끝나고 나서도 안 들어 온 애들한테 그 얘기를 해줘야 하잖아요. 아 이 팀은 좀 면접하면서 이리이러한 부분이 있어서 우리는 이만큼의 점수를 줬다 이렇게 애들한테 얘기를 해주고 청1 : 한명이 그 뭐야 그거에 대한 느낌 설명하면, 그러면 이 팀을 빼야된다 찬성하는 사람들 얘기하고 그렇게 했어요 청3 : 너는 점수를 낮게 준 애가 아 나는 이런 이런 부분에서 느꼈다 그래서 빼고 싶다. 청1 : 공감하는 사람 많으면 빼는거죠 (중간인터뷰, 청1,3)

서류심사는 열린 결정으로 재밌음

그때 하기 전에 여기 재단에서 어떤 분 만났는데 서류심사하기 전에, 서류가 막 엄청 막 기깔나고 그래도 실제로 만나서 면접을 해보면 좀 뭐지? 이런 애도 있고 또 서류는 조금 빈약한데 만나보면 엄청 막 이런 애들도 있다고 그러셔서 서류 심사하면서 그런거 계속 고려하면서 아 이팀 만나고 싶다 뭔가 부족한데 그래도 만나 보고싶다 이렇게 있어가지고 그런거 다 생각하면서 하는게 되게 재밌었어요. (중간인터뷰, 청3)

② 면접심사

청소년배분위원들에게 가장 큰 과제였다면, 면접심사를 통해서 직접 지원할 단체/사업을 선정하는 일이었다. 서류심사를 통해 선정된 단체들에게 면접심사를 안내하는 것부터 질문하는 모든 과정이 낯설어 긴장하고 친절해야 한다는 의무감으로 부담스러웠지만, 청소년의 이야기를 나누는 재미있는 시간으로 삼았다. 최대한 어색해 보이지 않도록 미소와 여유를 보여주고자 하였다. 면접에 참여한 단체들도 청소년에게 청소년의 입장을 편하게 전하고, 편견 없이 받아들여지는 경험이 새롭고 좋았다. 성인멘토들은 간단한 언어적 표현 수정 이외에는 어떤 개입도 하지 않았다. 어른들의 도움 없이 청소년들이 주도적으로 '성인'의 역할이라고만 여겼던 '심사' 과정을 무사히 해냈다.

긴장감과 미숙함의 연속

선정한 신청서의 단체들에게 연락을 드릴 때 제가 직접 단체들에 전화를 하는 역할을 맡았었는데, 지금 생각하면 긴장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선정이 끝나고 연락받은 단체들을 직접 만나 면접심사를 하는 날에는 안내와 관리를 맡았는데, 처음해보는 일에 대한 미숙함과 긴장감이

겹쳐져서 시간이 어떻게 흐르지도 몰랐습니다. (위원2 소감)

긴장을 풀어주는 친근한 역할분담

처음에 재밌었던게 처음에 막 이렇게 분위기 풀어주는 사람, 먼저 질문 던질 사람, 소개 할 사람 계속 정하고 돌려서 했는데 시간 지나니까 그냥 저희끼리 알아서 바로바로 하고 그냥 순서, 순서 원래 정해서 다음번에 이사람, 다음번에 이사람 이렇게 했는데 그 뒤에는 그런 말도 없이 그냥 (중간인터뷰, 청3)

내가 위원회의 일원임을 확실히 느꼈던 활동은 바로 배분심사활동이었다. 그날 나는 비록 심사장 밖에서 인터뷰를 보러 오신 지원팀 분들을 맞이하고 안내하고 긴장을 풀어드리는 역할을 맡았지만, 사람을 대하는 것을 좋아하는 나로서는 정말 최고의 경험이었다. (위원9 소감)

친근함이 있는 사람처럼 말하려고 되게 노력을 많이 했어요, 이거 들어오기 전에 얼마나 떨었는데요, '어머어머 어떻게'이랬는데, 딱 들어왔는데 역할이 한 사람씩 있는 거예요, '너는 분위기를 좀 띄워야 돼' 이런 역할들을 본인 스스로도 정하고, 그렇게 하려고 되게 노력을 많이 했고, 일침을 가하는 사람도 있었고, 너무 세다 싶으면 옆에서 삭 돌려서 얘기도 해주고, 이렇게 했었거든요. (최종인터뷰, 멘토1)

〈사진10〉 면접심사 과정



경험이 올 정도로 미소지어 친절하게

청1 : 긴장을 풀어 주는게 좋을 것 같아요 사람들이 너무 딱딱해요

청3: 야 근데 우리 솔직히 긴장 정말 잘 풀어줬어

청2: 안에서 하하 호호호 웃음소리가.

청1: 마지막 후반 가서 우리가 되게 감잡아가지고 되게 열심히 하긴 했어요

청3: 이만큼 열심히 풀어 **언니 입에 경련날 정도라니까 (중간인터뷰, 청1,2,3)

서류보며 즉석에서 질문 만들

저희가 너무 준비시간이 없어가지고 질문을 그때그때 다 만들어가지고 (청1) 만들어 왔는데 이제 면접시간이 20분이다 보니까 한 사람당 한 질문 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즉석으로 질문할 거 만들어 내고, 원래 기존에 질문할 거 뭐 (중간인터뷰, 청1,2,3)

사업실행계획이나 실무적인 것보다 사업의 '의미'를 중점적으로 두고 면접을 진행하셔서 면접이 정말 재밌었습니다. 그리고 면접 자체도 저에게 많은 고민을 던져주셔서 좋았습니다. (종결보고서, S)

불편함을 주지 않도록 '인터뷰' 라고 함

3월 중순 면접심사. 우리끼리는 면접이라고 했지만 지원자들에게는 '인터뷰'라고 했는데, 그 이유는 지원자들이 '면접'이라는 말 자체에서 혹여나 부담감을 느낄까 봐서였다. (지원자들이 불편하지 않게 하려 노력한 점들이 이제와 보니 꽤 되는 것 같다.) (위원11 소감)

■ 배분위원 실감

면접심사에 대한 거부감을 줄이기 위해서 '인터뷰'라 칭하고 친근하고 여유로운 심사장의 분위기를 만들려 노력하였지만, 어른들을 상대로 면접을 한 것은 큰 도전이었다. 어른들은 청소년을 면접관이라 어려워했고, 면접의 과정은 공식적 과정으로 엄격함과 신중함을 갖추어야 했다. 지원단체들도 다른 공모사업 면접과 달리, 활동들이 긴 설명 없이도 수용되는 느낌을 받았다.

어른을 인터뷰하다니: 배분위원 실감함

면접 심사위원이 되어 어른들을 상대로 면접을 한 것이다. 학교 동아리에서 면접 심사위원으로 나보다 어리거나 동갑인 친구들을 심사해 본 적은 있었지만, 어른을 심사하다니...심사하기 전까지 무척 떨렸다. 그런데 막상 어른들이 우리를 어려워하고, 조심스럽게 사업 내용을 설명하는

것을 보면서 면접을 통해 무언가를 얻는다는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 면접관은 그래서 더 신중해야하고 공정해야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위원5 소감)

청소년이 청소년 입장에서 면접

첫 번째로 어른이 하는데, 청소년이 청소년한테 직접 면접을 하고, 친구처럼 이야기를 하고 자신의 이야기를 편하고 심층적으로 털어놓을 수 있는 것이 달랐던 것 같아요. 너무나 자유롭게 자신의 생각을 자유롭게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것들이 달랐던 것 같아요. '왜 이런 활동을 이행했고, 왜 정책과 연결시키려고 하는가?' 그래서 교육청 이야기도 꺼냈었거든요. 솔직히 청소년들이... 하는게 쉽지 않다. 청소년은 시간도 없고, 고등학생은 대학교 준비도 해야하고. (청이팀, P)

편견없이 공감언는 면접

'이거 일 많이 해본 사람들이 보겠지' 라는 생각이 있었어가지고 근데 그렇게 하면 청소년 성소수자를 자주 다루는거 자체가 재단에서 좀 마땅할까..생각이 있었는데. 면접을 청소년분들이 직접 하신다는 거예요. (중략) 제가 말을 할 때 뭐라고 하지, 이 문제에 너무 관심이 있다라고 하는 눈빛이었어요. 그리고 일단 제가 말을 했을 때 되게 그냥 다 수용되는 거예요. 공감되고 다 수용되고 그리고 자기가 몰랐더라는 것을 너무 흥미롭게 듣고 있고... 성소수자 차별은 어떤 어려움이 있나요 어디서 차별을 만나요. 그때 느꼈죠. 됐다. (청위팀, Q2)

■ 성인 멘토의 역할

성인멘토들은 청소년배분위원들이 스스로 주도적으로 면접심사를 진행하는 과정을 묵묵히 바라보았다. '심사자' 라는 위치에서 '공정함' 에 대한 과한 의식으로 인해 간혹 권위주의적 표현이 나올 때 조언을 하는 것 이외에는 청소년들이 결정하고 실천하도록 곁에 있으면서, 청소년배분위원들이 스스로 잘 해내는 과정을 보며 확신을 가졌다.

면접에서 표현을 부드럽게 하도록 조언

면접할 때 이제 되게 공격적으로 말을 하려고 하더라고요. 어른을 대상으로. 그분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요정도로 질문을 이제 던져줬는데 계속 공격, 어필해보세요, 그말을 딱 쓰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 얘기 할 때 그리고 예산 질문 했는데 못한 거 뭐 있으면 하시라고 이렇게 말을

해서 제가 그런 단어는 조금 안 쓰고 차라리 그러면 하고 싶으신 말씀 있으시면 해보시는게 어떨겠어요?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다던가 조금 강한 단어를 조금 수정해줬더니 마지막에 애들이 어 그거 신경 쓰느라고, 제대로 할 말을 못했다는. (중간인터뷰, 멘토2)

개입하지 않았더니 청소년이 결정 잘해

저는 심사는 면접심사 때 제가 한 일이 없기 때문에 정말 잘했다 생각해요. 아이들이 그니까 그때 서류심사나 면접심사 때 아이들이 서로 저의 개입 없어도 서로의 의사를 충분히 이야기를 하고 의견조율하고 이런 걸 보면서 어 이게 바로 이상적이지 않나 그런 생각을 좀 했었어요. 갈등이 있는 요소 일 수도 있는데 의견들을 잘 주고 받으면서 이렇게 결정들을 잘 하더라구요. (중간인터뷰, 멘토2)

9) 선정결과 안내 및 오리엔테이션

3월24일 선정결과를 발표하였다. 각 소위원회별로 안내 문구와 방식을 정하여 메일과 문자발송을 통해 알려주었다. 1주일 뒤 3월31일에 참여위원이 선정된 팀(단체) 오리엔테이션을 진행하였다. 이를 위해 세부계획을 세우고 사전에 자료를 준비하였다. 각 팀별 소개와 사업비 사용안내 등의 시간을 가졌다. 청소년 사회참여 분야에서는 청소년 정책제안 사업을 하는 P, 청소년의 성평등 인식개선 프로젝트인 PN, 저상버스 알리기 캠페인을 하는 I, 청소년 노동인권 교육 및 캠페인을 하는 R이 최종 선정되었다. 청소년 인권 분야에서 청소년, 비청소년 성소수자 삶 이어보기 교육사업인 Q, 특성화고 청소년의 권리인식 활동을 하는 S가 선정되었다.

① 엄격한 선정과정

청소년배분위원회의 최종 배분 선정과정은 가장 힘든 활동이었다. 그동안 어른의 일이었던 배분결정의 과정을 어른보다 더 엄격하고 정확하게 그러나 청소년답게 해나가하고자 하였다. 미리 선정한 기준에 맞게, 사전에 공지한 대로, 그렇지만 간절함과 긴급함을 고려하며 합의가 이뤄질 때까지 토론하며 결정하였다.

신중히 고민하여 배분을 결정함

서류심사와 면접을 하는 것이 가장 힘들었다. 지원해준 많은 단체들 중에서 두 개의 단체만 고르는 것이 매우 어려워서 팀원 전체가 가장 고생한 과정이었다. 많은 단체들이 사업계획서를 열심히 써준 흔적들이 서류에 보여서 더욱 신중히 고민했다. 면접을 할 때는 녹음을 해서 반복해서 들어보고, 면접 들어가기 전 나누었던 이야기들을 통해 두 개의 단체에게 배분을 결정했다. (위원6 소감)

어른보다 더 엄격하고 정확하게

저희가 처음에 시작할 때 총점이 400이었나? 400을 넘지 않는 팀은 떨어뜨리자 하고 이렇게 시작했었어요. 근데 막상 이렇게 점수를 매겨보니까 이게 똑같은 심사표를 썼는데도 이 팀한테 점수를 되게 높게 주는 사람도 있고 되게 낮게 주는 사람도 있고 이게 좀 편차가 크더라구요. 그래서 떨어질 뻔한 팀이 몇 군데 있어서 또 저희끼리 회의를 해보는 과정에서 저는 그 400점 이하인 팀 중에 약간 살리고 싶은 팀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 같은 경우에는 회의를 해서, 설득해서 면접까지는 기회를 줘보자 이렇게 해서 올린 팀도 있었고 오히려 400점이 넘었는데 다시 회의를 해보니까 또 이거는 너무 면접까지 가기에는 부족하지 않나 라는 팀도 있어서 이게 딱 사실 기준을 만들어서 시작했는데 또 얘기해보면 바뀌고 이렇게 있었던 것 같아요. (중간인터뷰2 청2)

〈표5-2〉 배분지원활동 선정 결과

[청소년사회참여분야] 청소년이 하는 활동

팀명	사업명
P	우리가 만드는 세상 : 청소년 정책제안 사업
PN	청소년, 연성(性)을 높이다 : 성평등인식개선 프로젝트
I	세상에서 가장 따듯한 버스 : 저상버스 알리기 캠페인
R	F.L.Y(Forth! Labor human rights for Youth) : 청소년 노동인권 교육 및 캠페인

[청소년인권분야] 청소년을 위한 활동

단체명	사업명
Q	색다른 색으로 마주하고 만나보기 - 청소년, 비청소년 성소수자 삶 이어보기(퀴어로운생활)
S	특성화고 I CAN SPEAK - 특성화고 청소년 권리인식 활동

미리 정한 기준 그리고 간절함과 시급함

열심히 쓰셔서 서류 보내주셨는데 막 탈락 이런거를 해야되니까 불합격 이거를 공지를 해야 하니 까 그 점이 조금 뭔가 마음에 걸렸어요. 그리고 저희가 전에 심사기준을 만들어 놔던게 있거든요. 그 기준에 따라서 심사를 했어요. (청2) 사실 근데 아 저희가 많이 봤던 것 중에 하나는 사실 중요하지 않은 문제는 없잖아요. 누구에게나 다. 가치도 다른거고, 다 중요한 문제인데 저희의 눈으로 봤을 때 지금 가장 저희의 지원이 간절하다, 급하다 이렇게 생각되는 걸로 마지막에 결국 결정을 했던 것 같아요. (중간인터뷰2, 청4,2)

단체/활동 선정

3월 24일의 면접을 통해 두 단체가 선정되었다. ‘청소년의 청자가 푸를 청이 될 수 있도록’ 이라는 우리의 취지와 이보다 더 걸맞을 수가 있을까? 다수와는 조금 다른 길을 걷는다는 이유에서 사회의 불편한 점들과 남들보다 더 일찍이 대면해야 하는 그들에게 그들의 청소년기가 더 푸르게 빛날 수 있도록 우리는 그들의 활동을 지원했다. (위원4 소감)

② 배분지원단체 오리엔테이션

참여위원은 선정된 청소년팀을 초청하여 오리엔테이션을 진행하였다. 청소년위원들이 직접 기획하고 진행하는 것이어서 긴장도 되고 어렵게 느끼기도 하였다. 학업과 병행하다보니 날씨는 잡아놓고 준비는 막상 부족한 것 같아 걱정도 컸었지만, 무사히 진행이 되었다. 청소년팀은 대표자만 참여하였는데, 다음에는 모든 팀원들이 함께 참여하는 것이 청소년배분위원회와 지원 사업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하였다.

〈사진11〉 청소년사회참여분야 : 청소년이 하는 활동팀 오리엔테이션



준비가 안되어 걱정했지만 친해짐:

청3: 잘됐다고 생각할 수 밖에 없었던게 진짜 준비를 너무 못 해가가지고 똥망할 거라 생각했는데

청1: 준비 그거 나름 잘한거야 그거

청2: 게임도 되게 좋았어요, 왜냐면 금방 친해질 수 있는 게임이었어요, 그 이름, 자기 얼굴 보고 막

별명. 제가 별명을 쓴 다음에 그 별명을 쓴 사람이 누군지 맞추는 거예요 (중간인터뷰, 청1,2,3)

계획이 일정도 나와야 되고 이래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는 상태였어요, 근데 청소년들은 오티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한 상태였고 그런 과정에서 내 나름대로는 만약에 이게 안 될 경우에 쓸 자료를 만들어 두기는 했었는데... 일단 최대한 청소년들이 이거를 헤쳐나가게 해보자 약간 이런게 있었었고 근데 또 그냥 그들이 준비한 대로 했어요. (중간인터뷰, 간사)

모든 참여자들이 함께 오티하는게 좋음

공모사업에 선정되고 나서 각 팀의 대표들만 배분위원회 오리엔테이션에 참여했었는데, 모든 참가한 팀들이 함께 관계형성 활동을 해도 좋을 것 같다. 우리 팀의 프로젝트뿐만 아니라 다른 팀들이 주목하고 있는 사회참여활동을 공유할 수 있는 시간이 되고, 사회참여에 관심 있는 청소년들이 서로 친해질 수 있는 기회도 될 것이다. 또한 마지막에 결과공유회에서 서로가 기획한 활동이 어떤 변화를 일으켰는지 비교할 수 있는 좋은 경험과 자극도 될 것이다. (청이팀 결과보고서, PN)

③ 플랜B의 준비

청소년배분위원회를 운영하는 재단의 입장에서는 모든 참여 청소년들에게 기회가 고르게 주어져 경험과 학습이 충분히 이뤄지도록 촉진하고자 하였다. 참여위원들(청소년이 하는 팀)이 오리엔테이션을 준비하여 진행하였기 때문에, 참여하는 청소년팀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였다. 플랜B를 늘 준비하고 있지만, 청소년배분위원들의 판단에 따라 오리엔테이션이 진행되도록 그들의 결정을 존중하였다.

편안하게 진행하도록 위안해 줌

(배분단체/팀 오티때) **가 너무 떠는 거예요. 진행을 해야되는데 너무 떨어져야 처음은 다 그럴 수 있어 선생님도 진행 처음 할 때 너무 떨고 앞이 안보이고 그랬어. 그런데 다 하게 되더라. 너도 그럴거야. 그리고 그럼 너가 양해를 구하면 되잖아. 나 처음이니까, 여러분들 처음이니까, 저 처음이니까 이해해 주세요 라고 말하면 아무도 너한테 말을 안 해. 너는 원래 재능이 있잖아. 잘 할 수 있어. 자기에게 위안을 좀 삼는 것 같더라구요. (중간인터뷰, 멘토)

개입 하고 싶을 때 안하려고 하는 인내

간섭하고 싶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싶고 이거를 되게 잘 참고 돌이켜 얘기 한게 그냥 알아서 하겠죠. 약간 이러면서, 플랜B도 준비하고 있었어야 했거든요. 왜냐하면 이 친구들이 준비한다고 했지만 안 될 경우에는, 왜냐하면 그때 오티 때 참여하는 팀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배분위의 경험과 학습을 위해서 또 이쪽을 희생시키면 안 되니까. 둘 다에게 의미 있는 활동이 되었어야 되기 때문에 플랜B는 준비하면서 어쨌든 청소년배분위원이 알아서 할 수 있도록 한다. 라면서 되게 잘 참았던 것 같아요. (중간인터뷰, 간사)

10) 배분 실행 및 모니터링

4월부터 7월까지, 4개월 동안은 지원금교부와 사업진행의 기간이었다. 배분지원을 받은 팀과 단체의 본격적인 활동이 이뤄졌다. 참여자들은 청소년배분위원으로서 지원단체/팀을 방문하기도 하고 요청사항에 대해 논의하며 의사결정을 해나갔다.

① 배분 실행 및 모니터링

배분이 결정되고 본격적으로 사업이 실행되었다. 계획대로 진행되기도 했고 참여자가 부족해서 진행이 안되기도 하였다. 청소년배분위원들과 지원단체/팀들도 전국적으로 퍼져있었기 때문에, 단체 특방을 만들어서 배분위원당 팀을 배정해서 신속하게 소통하도록 하였다. 또한 실제 행사에 직접 방문하여 지원 연설도 하였다. 이를 통해 서류만으로 알지 못했던 사업을 자세히 이해할 수 있었고, 행사 참여자에게 청소년배분위원으로 소개되는 기회를 갖기도 하였다.

지원팀/단체와 소통하는 SNS 창구 마련함

저희는 처음에 오리엔테이션 활동을 했거든요, 활동을 해서 거기 오신 분만 전화번호를 공유해서 전체 카톡방을 만들었어요, 카톡방에서 상호작용도 하고 공지 같은 것도 띄우고, 그리고 저희가 인원 수가 이렇게 되고 팀이 네 팀이 되다보니까 네 명이 각각 맡은 팀을 해서 개별적으로 카톡이나 대표님에게 연락을 드렸어요. (종결인터뷰, 위원1)

저희 단톡, 여기 배분위원들이 다 들어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저희 식은 그런 식이었어요, 만약에 궁금하신 점이 있거나 아니면 필요하신 점이 있다면 저희 배분위원들이 24시간 내에 대답해드리고, 그리고 담당자뿐만 아니라 다른 이런 배분위원들도 다 도와줄 수 있게끔 그런 식으로 했거든요. (종결인터뷰, 위원3)

방문하니 실감났고 자부심도 느낄 수 있었음

7월 28일, 우리의 배분을 받아 개최된 행사에 참여했다... 이 행사는 청소년배분위원회의 지원으로 이루어질 수 있었던 행사라는 말을 들었을 때 큰 자부심이 들었다. 그리고 내가 청소년 배분위원회의 이**이라며 자기소개를 할 때 나 자신이 자랑스러웠다. 그 행사를 청소년 성 소수자들과 함께하며 평소 알지 못했던 그들의 이야기를 생생하게 들을 수 있었다. (위원4 소감)

갔다 오고 나니까 솔직히 저희는 서류만 보고 뽑았고, 그리고 연락만 하고 알고 있었잖아요. 그러면, 이분들이 잘하고 계실까? 뭔가 힘든데 말을 못한 걸까? 아니면 안 한 걸까? 뭘까? 이런 생각이 엄청 많이 들잖아요? 그런데 딱 기관방문을 하고 보니까 아, 잘하고 계시구나, 그리고 뭔가 힘든 점이 있으면 계속 말해주고 계시구나, 이런 게 잘 느껴져요, 그리고 그때 한 번 보니까, 아 배분을 내가 했구나 하는 뿌듯함도 잘 느껴지고. (종결인터뷰, 위원3)

실감도 낮고, 되게... 실체는 어떤지 알게 되니까 저희가 배분을 했다는 게 실감도 많이 났던 것 같고, 저희는 사실 뒤에서 그냥 보고 있는 역할이었는데도 담당자분께서 저희가 행사 시작하기 전에도 저희 얘기를 해주시고 소개할 시간을 주셨어요. 그런 면에서 어떻게 보면 저희 역할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해주셨다는 느낌이 들어서 뿌듯했던 것 같아요. (종결인터뷰, 위원)

〈사진12〉 배분단체 방문지자: 행사지원



② 배분 모니터링

처음 진행해보는 배분지원은 실제 쉽지 않았다. 사업계획 변경이나 예산집행 변경 등 행정적 절차에 대한 청소년배분위원들의 이해가 부족하기도 하였고, 성인멘토는 재단 간사와 청소년위원 사이에서 의사결정이 복잡했다. 재단은 위원회가 결정해야 한다고 하고, 위원들은 재단과 상의해야 한다고 하는 상황이 반복되었다. 청소년들은 배분지원팀을 관리하는 '갑을관계'가 되는 것 같아 불편했다. 배분지원 과정에서 소통의 문제는 '청소년들의 시간 다름'에서 가장 크게 나타났다. 청소년들 대부분 학생으로 시험기간이나 학교일정과 활동일정이 겹치는 경우 사업이 미뤄졌고 제대로 진행되지 못했다. 배분위원들 역시 유사한 상황이어서 모니터링이 어려웠다. 청소년 인권사업의 경우에는 단체 운영시간(9시~6시 가능)과 청소년들의 소통시간(보통 밤10시이후 가능) 달라 오해를 빚기도 하였다. 청소년배분위원들과 지원단체 간 관계형성 그리고 소통시간 설정에서 시행착오를 겪었다.

갑을관계가 된 것 같아 불편해져 카톡방 활성화 안됨

(청소년에 의한 팀) 저희도 단톡방 만들어서 그렇게 활동이 돼있었잖아요? 저희도 물어보고 싶은 거 모두에게 말씀하시면 상관없고 그랬는데, 거의 물어보는 사람들이, 딱 담당자들이 소통을 하는 부분들이 그렇게 만들어져서 직접 물어보거나 간사님들에게 물어봐주시거나 그런 게 많았는데, 저희는 카톡방이 활성화되지는 않았어요. (종결인터뷰, 위원8)

개인적인 의견일수도 있는데 확실히 저희가 청소년이 관리를 하고 또 청소년이 그거에 대해 관리를 받는 입장이잖아요, 그래서 같은 청소년인데 저희만 약간 뭔가... 관리를 하는 입장이 뭔가, 좀 말하기 그럴 수 있는데 갑이 된 그런 약간 갑과 을이 된 관계인 거 같아서 그쪽에서 관리를 받는 입장에서 좀 불편하다고 솔직히 좀 느꼈긴 한 것 같아요. 저희가 이렇게 문답도 하면 이렇게 대답도 안 하시고 (종결인터뷰, 위원7)

청소년의 다른 시간들로 소통의 어려움

이쪽 같은 경우는 청소년이 하는 거였잖아요, 일단 시험기간 다 빼고 하면 실제로 남는 기간은 4개월 중 한 2개월 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 와중에 또 힘 빠지고 이러니까. 그리고 시험 마치고 나면 기운 짝 빠지고 아무것도 하기 싫고 하니까 (종결인터뷰, 위원4, 11)

학생이라서 연락을 잘 안 받는 것도 있었고, 약간 활동이 제대로 진행이 안 돼서 그거에 대해서 약간 얘기 꺼내는 게 꺼려졌는지 그래서 연락을 피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것 때문에 조금 소통이 잘 안 됐어요. (종결인터뷰, 위원11)

저희가 밤이나 주말에 연락을 하니까, Q**에서 본인들은 평일 낮에 일하시는데...(위원1) 일과시간 끝나고 해야하는데 부담감이 있었다. (위원3) 저희는 괜찮았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힘드셨겠죠.(위원4) (종결인터뷰, 위원1,3,4)

선정된 팀마다 따로 담당이 붙어가지고 직접적으로 활동을 하고 같이 참여하는 것으로 이해를 했거든요, 사실상 저희가 고등학생이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을 맞추기도 어렵고, 그래가지고 그런 것 때문에 연락을 자주한다고 해주는데, 제가 하는일이 좀 많아가지고 연락도 잘 못받고, 막 나와있다보니까 전화도 잘 안되고 (청이팀, P)

기대와 달라도 조언하기 어려움

그런데 거기서 터치하기가 좀 그런 게 그분들만의 생각이 있어서 그렇게 진행한 건데 거기서 '아, 이걸 좀 아닌 것 같아요' 이러면 약간 조금 그렇지 않을까? 그런 것 때문에 약간 좀... (위원1)
그분들도 생각해놓은 계획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일정 같은 거? 저희가 뭐라고 하기에는 약간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었어요. (위원2) (종결인터뷰, 위원1,12)

처음에 면접 때 페미니즘에 대해서 하시는구나 했더니 페미니즘 아니라고, 저희가 어쨌든 뭔가 사회의 변화를 기대하고 여기에 지원을 한거잖아요, 페미니즘이 너무 약간 사람들의 공격적인 부분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이니까 아예 고려를 안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추구하는 가치가 거기서부터 좀 갈렸어요. 그냥 이게 위험성 있는 주제니까 피하겠다(고 하셔서요). (종결인터뷰, 위원1,12)

11) 결과공유회 및 최종평가회

8월 25일 결과공유회를 가졌다. 청소년배분위원회와 지원단체/팀들이 그동안 어떤 활동을 해왔는지 소개하고 교류의 시간을 가졌다. 청소년배분위원회에서는 지원단체/팀에 감사장을 전달하였다. 2주 후 9월 9일에 지원단체/팀의 결과보고서를 검토하고, 배분위원회의 피드백을 정리하여 전달하였다. 또한 청소년배분위원회 활동에 대한 최종 평가회를 가졌다.

① 결과공유회

대학로에서 진행한 결과공유회에는 청소년배분위원회 활동을 처음으로 대외적으로 알리는 기회가 되었다. 청소년배분위원회가 어떻게 배분단체를 선정하고 지원했는지 과정이 세세하게 전달되었다. 지원 단체의 발표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지역사회에 어떠한 변화를 이끌었는지 청소년배분위원뿐 아니라 재단, 다른 단체(팀)들과 공유하는 시간이었다. 행사의 진행부터 정리까지 청소년들이 주체가 되었으며, 청소년배분위원회가 감사패를 지원단체(팀)에게 수여하면서, 지역사회 변화를 위해 애쓰는 분들을 지원하는 배분의 의미에 대해 공유하는 자리였다. 다만 모두가 참여할 수 있도록 사전에 공지하고 안내를 해주는 것이 필요했다. 참석하지 않은 팀이 있어서 아쉬웠다. 공유회 진행에서도 넉넉한 사업 내용을 공유하는 시간이었으면 하는 바람과 지루하지 않게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함을 느꼈다.

1년 활동의 성과 확인

그런데 저는 우리가 무슨 활동을 했는지 느낌을 확 알 수 있었고요, 무엇보다 저희팀이 있잖아요, 저희가 했던 팀이 되게 멋있는 성과를 냈구나, 했던 거를 그때 처음 알았거든요. (종결인터뷰, 위원4)

저희가 배분했을 때 나온 결과를 정리해서 발표한 거잖아요? 그러가지고 확실히 마무리 하는 느낌이 들었고, 그리고 이쪽 팀하고 다 같이 모여서 발표를 하니깐 깔끔하게 한 눈에 들어오는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저희가 흩어져서 활동을 했기 때문에 애네들이 뭐하는지 모르고 애네들도 저희가 뭐하는지 몰랐어요, 그런 걸 요약적으로 나중에 해주니까 취지가 어떻게 달랐고 지향하는 바가 어떻게 달랐고 이렇게 알게 됐어요. (종결인터뷰, 위원2)

1년 동안의 활동을 정리하는 기분이 들고 확 느껴졌어요, 그 결과 같은 게, 내가 한 결과 같은 게, 잘 안 느껴졌는데, 그걸 보면서 변화가 있구나 하고 살짝 느껴졌어요. (종결인터뷰, 위원2)

관심받을 수 있는 기회

저희가 배분한 단체 담당분 말고 아무도 안 올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생각보다 기자님도 오시고, 나 기사보고 깜짝 놀랐잖아, 내 이름이 여기 있어, 언니랑 나랑 이름 나와 있고... 이름도 나와 있고, 많은 관심들 주고 좋았던 것 같아요, 기사나왔던게 제일 신기했어요.(종결인터뷰, 위원2,3)

결과발표회가 활동을 정리하는 발표이기도 했었거든요, ‘저희 활동이 이거예요’ 도 맞는데 ‘저희 끝나가요’ 이것도 맞는 거거든요, 그래서 준비하면서 ‘우리도 이제 슬슬 끝나가는구나’ 이것도 많이 느꼈고, 오늘 결과발표 종이도 보면서 ‘아 정말 끝나가는구나’ 가 잘 느껴지는 시간이었어요, (종결인터뷰, 위원3)

모두 참석하지 못해 아쉬움

결과공유회 일정을 저희가 추후에 일정을 알려드린 거잖아요, 그래서 청소년들이 스케줄이 안 맞는다고 해서 많이들 참가를 못한 팀도 있었고 아예 안 온 팀도 있었고 그리고 오셔도 한 두 명 오셔서 이렇게, 저희는 다 마지막으로 결과보고회를 하는 거잖아요, 다 오셨으면 하는 바람이었는데 다 참가를 못하신 게 아쉬웠어요. (종결인터뷰, 위원8)

넉넉히 준비하지 못해 지루한 진행

그런데 솔직히 결과발표회랑 팀으로 결과를 발표한거랑 아이스브레이킹 때 잠깐 움직인 거 말고는 한 게 없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사실 듣다가 살짝 지루할 때가 몇 번 있었어요. 그래서 좀 더, 그때는 시간이 짧았잖아요. 그래서 좀 더 시간을 넉넉하게 잡고, 힘들더라고 시간을 넉넉하게 잡아서 좀 더 쉬엄쉬엄 하면서 활동을 좀 더 많이 다른 결과발표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했으면 (종결인터뷰, 위원3)

제 친구도 혼자 왔었는데 많이 지루했다고. 그런데 그 친구가 처음에 여기에 온 이유가, 그 친구가 사회변화에 관심이 많아서 했던 것도 있고 그런데 활동 때 준비하는 것도 시간이 지루했다고 말해가지고 (종결인터뷰, 위원8)

〈사진13〉 청소년배분위원회 결과 공유회



② 배분결과 평가

청소년배분위원회는 지원을 받은 단체(팀)들에게도 새로운 경험과 가능성을 열어주었다. 청소년을 위해 활동하는 팀들을 알게 되어 서로간 교류와, 청소년 배분위원들이 앞으로 동참할 수 있는 가능성을 찾을 수 있었다. 청소년배분위원들의 활동에 대해서 청소년(학생)임에도 시간을 쪼개어 꾸준히 노력한 모습에 대해 지원단체들의 긍정적인 평가가 있었다. 마지막까지 청소년배분위원들도 평가서를 통해서 계획에 대한 실행결과에 대한 의견을 전달하였다. 청소년의 시각으로 청소년의 상황에 대한 이해를 토대로 공감과 대안을 제시하였다.

열심히 준비하고 노력한 청소년배분위원회

배분위원분들이 정말 준비를 열심히 하셨다는 것을 느꼈고, 다른 활동을 하는 분들의 결과 보고를 들으면서 앞으로 많은 교류를 이어가도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결과보고에서)
학생들이 스스로 만들어낸 활동과 그로 인한 사회적 변화를 강조하고 싶습니다. (청위팀, S)

활동에 대한 꼼꼼한 점검과 제안

결과보고서를 보니 다행히 Q**활동을 했던 멘토, 멘티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던 것 같아 뿌듯합니다.(참가자들의 소감후기에서 가장 잘 느껴졌음) 다만, 대전행사가 취소가 되어 아쉬운데 그 이유에 대해 좀더 연구하여 다음에는 계획된 활동이 모두 진행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결과보고서검토의견, Q)

계획하고 실행한 것과 그에 대한 결과까지 파악이 잘 되었습니다. 금같은 시간을 쪼개서 노력한 것이 보였습니다. 그런데 계획했던 인쇄광고 진행이 왜 안되었는지 궁금합니다. (결과보고서검토의견, I)

청소년과 공감하는 배분위원

학생이라 시간이 별로 없었을텐데 스스로 하려한 활동을 꾸준히 하려고 노력한 점이 좋습니다. (결과보고서검토의견, P)

계획한 것들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은 점이 많이 아쉽지만, 팀원들이 슬럼프를 겪게 된 것이 이해가 되었습니다. 도움이 필요한 부분에 청소년배분위원들에게 요청을 하였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아쉽습니다 (결과보고서검토의견, R)

정책협약 등을 통해 이 문제를 알리고 실질적인 해결책을 만든 것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앞으로도 특성화고등학생권리연합 활동에 관심을 가질테니, 인문계 고등학생과 교류하는 프로그램이 있다면 꼭 참여하고 싶습니다 (결과보고서검토의견, S)

12) 전체 과정과 성장

① 온 몸으로 느끼며 조금씩 되어가는 길

청소년배분위원회는 처음 배분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시작한 일이었다. 낯설지만 사회에 관심을 가진 청소년들이 관련 비영리단체를 방문하고 고민하고 계획을 세우며 하나하나 만들어가는 과정이었다. 1년을 꾸준히 나와야 하는 만큼 청소년배분위원회는 단단히 각오를 하고 와야 하는 곳이었다. 더디지만 조금씩 만들어가는 활동이고 그 활동을 통해 온몸으로 배분위원이 되어가는 것을 느꼈다.

조금씩 되어가는 길

배분이 무엇인지, 활동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아무것도 몰라 어디에 초점을 두지 못했던 나는 이렇게 단체들도 방문하고, 우리팀 친구들을 만나 함께 논의하고 작업을 해나가면서 조금씩 조금씩 배분위원이 되었다. (위원5 소감)

하나하나 만들어가는 매우 더딘 과정

오리엔테이션을 하고, 첫모임, 두 번째 모임... 모임이 지속될수록 나에겐 또다시 많은 고민들이 밀려왔다. 우리가 처음이기에 우리가 하나하나 만들어 가야 했다. 그렇기에 내가 생각한 배분보다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나의 손을 거쳐 가야 하는 과정들이 많았다. 그리고 배분준비를 위해 사람들을 만나면서, 차근차근 계단을 쌓아간 줄 알았는데 뒤를 돌아보니 평지처럼 진전이 없는 것처럼 느껴졌다. (위원3 소감)

각오하고 와야함

청4: 마음가짐 단단히

청1: 솔직히 각오하고 와야 돼요. 진짜 가벼운 마음으로 왔었거든요

청4: 중간에 빠지지 말고 참석률 높아야 된다는 거

청2: 약간 그런건 좀 생각하고 올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일상속에 제가 학원, 학교, 친구들 만나고 약간 이런거를 뒤로 미뤄야 될 상황이 되게 많이 와요 (중간인터뷰, 청1,2,4)

배분을 몸으로 느낌

우리는 자꾸만 뭔가 언어로 규정하려고 하고 뭔가 이게 사회적으로 큰 의미가 있지 않으면 별로 효과적인 일, 꼭 필요한 일로 생각하지 않는데, '배분이 뭐예요?'라고 질문을 했었을 때 그 아이들이 한 마디로 정의 내리지는 못하지만 아이들이 그 경험을 통해서 1년 동안 배분이라는 그 일을 몸소 다 느끼면서 그걸 표현해내려고 하는, 거기서 하나하나 다 느껴지는 거예요 (최종인터뷰, 멘토)

2. 성과평가

아름다운재단 청소년배분위원회 활동은 참여한 청소년, 배분지원 받은 지역사회 비영리단체(팀), 함께한 성인멘토, 그리고 기획운영한 아름다운재단이 각각 목표를 두고 있다. 청소년들은 의사표현과 의사결정에 대한 신뢰, 자존감 향상, 다양한 문화와 의견을 존중, 민주시민으로서의 역량 향상, 기부와 자원봉사 등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시민참여를 목표로 하였다. 이를 위해 성인멘토가 '함께하는 어른'으로서 역할을 수행했다. 지역사회는 수동적인 청소년에서 주도적인 청소년으로 청소년에 대한 관점이 변화하고, 청소년들의 지속적인 참여를 경험하면서 이들과 함께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활동을 촉진하고자 하였다. 재단은 사회문제해결 방법이나 배분 방식에서 새로운 아이디어와 관점을 얻게 되고, 비영리단체와 재단의 역할에 대해 인식이 높아지며, 차세대 비영리활동가(실천가)를 양성할 수 있는 토양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본 절에서는 이에 대한 성과를 질적자료를 분석하여 제시하고자 한다.

1) 청소년의 성과

청소년배분위원회는 청소년들에게 청소년으로서의 모습을 확인하고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고자 하였다. 지역사회와 사회문제에 대한 이해를 높이며 이에 대한 실질적인 해결방안을 토론하고 배분이라는 방식으로 의사결정하는 과정에서 리더십과 비판적사고 역량을 향상시키고자 하였다. 나아가 비영리와 나눔에 대한 이해를 높여 자연스럽게 진로탐색으로 이어지도록 하였다.

(1) 새로운 일과 경험의 기회를 가짐

청소년배분위원회 활동을 하면서 청소년들은 감정보다는 논리적으로, 주관적보다는 객관적으로 배분을 하려고 노력하였다. 왜 그러한 결정을 내렸는지 이치에 맞게 말하는 방법을 배우고, 옳은 것이 무엇인지 의문을 던지며, 함께 고민한 답을 설명하고 설득하는 과정을 통해서 스스로가 성장함을 느꼈다. 나아가 배분신청양식을 만들고 그에 맞추어 지원한 서류들을 보면서 목적에 맞는지 판단하고, 평가서를 작성하고, 심사를 하면서 심사자로서 필요한 태도와 면접 준비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등 사회적 실무능력이 발굴되었다. 어른들이 하는 일이라 생각하고 청소년들이 할 수 있을까하는 의문으로 시작한 배분위원회 활동은 스스로에게 가졌던 청소년에 대한 편견을 깨는 과정이었다. 사회 속의 청소년 문제를 이해하는 과정에서 청소년이 가진 힘을 확인하고 청소년에게 기회가 주어진다면 책임감을 가지고 해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논리적으로 생각하고 말하고 설득하며 성장함

제가 주변 사람들에게 감정적이다, 감정에 호소하는 성향이 있다 이런 말을 되게 많이 들었는데 이번 활동을 하면서 딱 심사기준에 맞춰서 심사하고 또 면접심사 같은 것도 제가 마음에 든다고 해서 무조건 뽑을 수 있고 이런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객관적으로 생각하고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약간 이런 능력을 키운 것 같아요 (중간인터뷰, 청2)

공모가 시작되고 서류가 들어온 후 우리는 그 서류들을 보고 1차적으로 면접을 볼 사람들을 걸러 내는 작업을 했다. 이 과정에서 나의 성장을 가장 여실히 느낄 수 있었다. 바로 내가 원하고 옳다고 또는 그르다고 생각하는 것에서는 주장과 근거가 이치에 맞게 말하는 방법을 터득했던 것이다. 10년간 학교를 다녀오면서 정해진 답을 외우고 발표하고 시험을 쳤던 나는 '이게 과연 옳은 걸까?'라는 의문을 던지기 전에 먼저 답을 내뱉었다. 그러나 이번 활동을 경험하고 서류들을 검토하며 수많은 의문을 던졌고 남들은 관찮은 활동이라 생각했으나 나에겐 이해가 안 가는 부분에 많았던 서류에 대해 이해가 안 가는 이유를 설명하며 그들을 설득했다. 그러면서 내가 정말로 많이 성장 했구나 느꼈다. (위원4 소감)

저부터. 배분을 하면서 더 약간 뭔가 논리적으로 사고해보는 그거를 하고 직접 해보는 거잖아요 힘든 점을 직접 경험해 보고 약간 그걸 어떻게 극복하면 좋은지 약간 그런 점들도 알게 되고 팀원끼리 의견을 어떻게 조율하는가 그런것도 알게 되었어요. (중간인터뷰, 청4)

사회적인 실무능력이 발굴됨

힘들었던 배분신청양식을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배분위원으로서 심사나 평가를 할 때 생각할 가치와 같은 주요한 항목부터 예산안, 단체명, 향후 계획 같은 신청서의 기본 항목까지 배분위의 본래 목적을 직접 손으로 더듬어 상기시킬 수 있었던 의미 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이 활동을 통해서 그 전까지 결코 알지 못했고 어렵듯이 떠올리기만 했었던 사회에서 실무적인 서류들을 만들고, 다루는 작업을 조금이나마 알 수 있었습니다. (위원2 소감)

사실 지금 내 나이때에는 서류들을 접할 기회가 없는데 이 활동을 하면서 꽤 많은 서류들을 접하고, 그 서류를 토대로 만들어 보기도 하는 등의 활동으로 전보다 글쓰기 능력도 많이 향상되었다. (위원3 소감)

직접 정한 사업 주제에 맞게 직접 심사를 해보니, 면접을 당하는 입장에서 하는 입장이 되어 봐서 신기했다. 심사하는 입장이 되어보니, 심사기준에 대해서 더 잘 알게 되었고, 내가 면접을 볼 때 어떻게 해야 할지 감이 더 잘 잡혔다. 일단, 형식이 크게 정해져 있지 않은 면접에서는 필요한 대답을 잘 하고, 자발성을 보여주고, 면접을 준비하기 위해서 많은 것을 했다는 것을 언급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위원7 소감)

청소년도 충분히 해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줌

저도 그렇게 쓰긴 했지만 시작할 때 과연 이걸 할 수 있을까 의문을 가지고 시작했거든요. 솔직히 원래 서류심사 같은 건 어른들이 하는 거라는 고정관념이 박혀 있다가 하기 시작한거니까 우리도 할 수 있을까 했는데 할 수 있더라고요. 될까 될까 했던 게 됐다로 끝나니까. (위원4) 청소년에 대한 편견이 어느 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이걸 설마 우리가 다 하겠어? 다 시키겠어? 하는 생각이 있었는데 (종결인터뷰, 위원4)

저는 약간 청소년들도 할 수 있고 약간 청소년들도 이런 무거운 일을 할 수 없다는 편견을 가진 사람들도 있을 거잖아요? 그런 사람들에게 약간 편견을 깨는 하나의 사례? 약간 선구자적인 이런 사례로서 저희가 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랑 그 앞으로 또 약간 사회문제 같은걸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겠다는 그런 자신감 같은 거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중간인터뷰, 청2)

1년간의 배분위원회 활동은 세상에게, 그리고 나에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줬다. 거의 모든 것을 청소년 스스로의 힘으로 성공적으로 이뤄낸 청소년배분위원회 활동은 세상에 '청소년도 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주었다. 폐쇄적인 입시 체제 때문인지, 우리나라에서는 청소년에게 이렇듯 책임감을 요구하거나, 많은 시간과 노력을 필요로 하는 활동을 할 기회를 주지 않는다. 나 역시도 이런 활동을 해본 적이 없기에 두렵기도 했다. 하지만 청소년배분위원회 1기 활동을 통해, 우리는 보여주었다. 청소년도 충분히 해낼 수 있다는 것을! (위원 소감)

(2) 존중하고 편안한 협력적인 동료애를 키움

청소년배분위원회는 개인의 활동이 아니라 공동의 활동이었다. 치열한 토론을 통해서 자신의 생각을 정리하고 공유하며 새로운 생각들을 발전시켜나가는 과정이었다. 청소년 사이에, 청소년과 성인 사이에 서로 존중하고 존중받는 관계를 형성할 수 있었다. 모든 과정 하나 하나 세심하게, 만나는 사람 한 명 한 명 어색하지 않게 존중하는 것이 좋았다. 열심히 하는 모습에 가족과 친구들도 도움을 주니 활동이 존중받음을 느꼈다. 배분의 과정에서 팀원들과 의견을 서로 잘 들어주는 것은 의견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중요했다. 나이도 상관없이 평등하게 서로에게 배우는 협력적인 인간관계를 만드는 법을 배웠다. 치열하게 토론하는 시간들은 질문을 던지는 시간이고 각자의 생각대로 답하는 시간이며 그것을 듣고 수용하는 시간이었다. 전국에 흩어져 살고 있는 친구들이 서로 모여 충돌과 갈등 속에서도 합의를 이뤄가는 동료들 통해서 더 넓은 세상을 볼 수 있게 되었다. 학교에서는 나와 관심사가 비슷한 친구들이 거의 없었는데, 배분위원회 활동에서 만난 청소년들은 사회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서로 나눌 수 있다는 것이 좋았다.

존중하고 존중받는 관계 형성

이거 하면서 제일 좋았던게 뭐냐면은 지금도 그러시지만 되게 여기 같이 하시는 분들은 다 그니까 상호존중을 해 주시는게 되게 잘 느껴져요 약간 이렇게 좀 이렇게 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냥 아 존중받고 있구나 이런걸 느껴요 (중간인터뷰, 청3)

아니 그니까 사실 나이가 어리면 조금 자기도 모르게 약간 말하다가도 약간 무시할 법도 하고 좀 의견을 약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을 법도 한데 언니들이 다 얘기 할 기회 일일이 다 주고 저희가 나이가 어리다고 해서 무슨 의견 얘기한다고 이렇게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하지도 않고 약간 평등한 관계? 분위기도 되게 안 어색하게 막 좋게 해주고 그랬어요. 그래서 좋았어요. (중간인터뷰2, 청2)

서류심사나 면접심사 후에 우리팀은 모여서 하나하나 진지하게 각 단체에 대해 논의했다. 같은 내용을 보며 비슷한 생각을 하는 부분도 많았지만, 서로 다르게 느끼는 부분도 많다는 것이 놀라웠다. 다른 의견에 대해 어느 때보다도 오랜 시간 토론했고, 이 과정에서 서로 비난하지 않고 서로 존중하며 하나의 의견으로 만들어 가는 것을 통해 많은 것을 배웠다. (위원5 소감)

그래도 형들과 누나들이 잘 도와주고 아빠도 영상 작업 바쁜 시간 땡겨서 도와주고 참 어려운 일인 것 같았지만 벌써 심사도 끝내고 마지막을 준비하고 있다는 걸 생각하면 참 많은 시간동안 열심히 활동을 해왔다.(위원10 소감)

편안히 그러나 치열하게 토론하며 협력적 인간관계 만들

처음, 초반부터 시작할 때는 은근히 나이에 대해서 서열이 있었고 결정하는데 있어서 뭔가 나이가 있는 애에 의한 결정들이 이루어지는 그런 걸 좀 느꼈는데 점차 시간이 가면서 아이들이 나이가 어려도 의견을 내는데 똑 부러진 친구들이 있거든요, 그러다보니 그 친구들의 의사결정들이 점점 더 따라주게 되더라고요, 의사결정을 하는 거에 있어 말하는 것도 중요한데 못했다가 생각만 하고 있다가, 이제는 당당하게 그런. 그런데 그게 관계가 형성됐기 때문에 할 수 있었던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 친밀한 관계가 된 이후부터 (최종인터뷰, 멘토)

자기들끼리 되게 치열하게 토론을 했던 기억들이 되게 큰 어떤 경험, 성장이 된것 같아요, 어느 곳에서도 그렇게 자기 의견을 솔직하게 말하면서 '나 이거 해줘야 돼', '왜 그래야 돼?' 이렇게 얘기할 기회가 별로 없잖아요, 그런 걸 통해서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들을 줄 알고 수용할 줄 알고, 이런 부분들이 좀 더 성장하지 않았나...(최종인터뷰, 멘토2)

배분을 하는 과정 속에서 팀원들과 서로 협동하고 의견을 조율하는 과정을 통해 많은 것을 배웠다. 내가 팀에서 막내인데도 의견을 잘 들어주고 편하게 대해준 점이 너무 고맙다. (위원6 소감)

청소년배분위원회 활동을 통해 많은 사람들과 만나게 되었는데, 이로 인해 인간관계를 매끄럽게 할 수 있는 많은 점들을 선생님, 언니 오빠들, 동생 들을 통해서 많이 배울 수 있었던 것 같다. 선배들과 관계를 하는 법도 배우고 말이다. (위원7 소감)

관심이 비슷한 친구 만남

전국 각지에서 온 나잇대도 다양한 배분위원회 학생들과의 만남은 참 특별하다고 생각합니다. 전주, 대구에서 온 친구들도 있어서 처음에는 많이 놀랐지만 그만큼 평소에 이러한 주제에 관심을 가지고 살아간다 생각하니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학교도, 살아온 환경도 다르니 서로 의견을 낼 때 다른 생각을 하면서 낸다는 것이 신기하고도 재미있었습니다. (위원2 소감)

내 또래지만 자신의 생각을 가지고 산다는 게 정말 멋있어 보였고 다양한 사람들과 의견을 공유하면서 세상을 더 넓게 볼 수 있는 능력을 얻은 거 같다. (위원2 소감)

저는 제가 많이 변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좋았던 거는 사회적 문제에 관심 있는 친구들을 만난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사회에 관심이 많아서 뉴스 같은 것도 보고 주변 애들한테 '야, 너 이거 봤어?' 하면 '뭐야?' 이런 애들이 많아가지고, 그냥 '야, 나 혼자 관심 있는 건가?' 그냥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여기 와서, 제가 관심 있는 문제가 아니더라도 다양한 문제에 관심 있는 친구들을 만나고 같이 의견 나누고 했던 점이 좋았던 것 같아요. (종결인터뷰, 위원1)

그냥 저는 좋았던게 제 주변에는 저처럼 이런 쪽에 관심이 있는 애들이 별로 없어가지고 그냥 여기 와서 이런 쪽에 관심 있는 또래 애들 만나게 좋았어요... 사회참여하고 정치든 뭐든 애들 다 입시에만 매달려 있어서 정신이 나가있는데 그냥 여기 와서 제 관심사랑 비슷한 친구들 만나서 좋았어요. (중간인터뷰, 청3)

(3) 학생에서 청소년으로: 나와 사회를 연결함

청소년배분위원회는 '학생에서 청소년으로' 다시 찾을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청소년배분위원회 활동을 하면서도 학생의 신분으로 학업의 부담을 이중으로 질 수 밖에 없었다. 배분이 무엇인지 공부보다 중요한지 설득하기 어려워서 공부도 열심히 해야 했고, 자신이 선택한 배분위원회 활동은 더 열심히 하고자 했다. 사회는 인정해주지 않지만, 자신에게 중요한 일을 지키기 위한 노력은 자신이 될 좋아하는지 될 할 수 있는지 집중하게 도왔다. 그동안 학생이라고 주어지지 않았던 기회들을 경험하고 온전히 자기 자신에 집중하면서 자존감도 올라갔다. 다른 사람의 시선에 민감하고 자신감도 없었는데, 배분위원회 활동할 때는 열정을 발견하고 에너지가 가득한 자신의 모습을 되찾게 되었다. 청소년에게 자신감의 회복은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좋은 모습으로 이어졌다. 청소년배분위원으로서 당당하게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려 하였다. 더 많은 의견을 제시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개성을 드러내는 사람으로 변화되었다. 자신의 삶이 특별해짐을 느꼈고 이것이 사회를 변화시키고자하는 좋은 사람이 되었다.

학생으로서 요구하는 이중부담의 극복

제가 너무 답답했었는데 여기서 진짜 너무 좋은 경험인거예요, 저는 토요일 날 학원도 빠지면서 여기를 온 이유 중에 하나가, 솔직히 대학교 가는 공부도 중요하지만 이런 활동 같은 거는 솔직히 하기 힘들잖아요, 인생에서, 청소년 입장에서 이런 사회활동을 바라보고, 이런 기회도 진짜 쉽지 않고, 그래서 저는 진짜 여기 활동이 가치가 큰 것 같아요. (종결인터뷰, 위원7)

배분위도 페이스북에서 봤대요, 너무 하고 싶는데, 부모한테 허락을 받으려면, '엄마, 나 이렇게 할 테니까, 내가 이 정도는 할게요,' 그런데 부모님은, 공부는 하면서 해주기를 바라지 공부만 딱 쳐놓고 이것만 하기를 바라지 않거든요, 솔직히 미래가 보장된 게 아니니 부모도 그럴 수밖에 없는데, 이 아이가 이 활동을 하기 위해서 얼마나 그러면 두 개를 가져가느라 힘들겠어요. (최종인터뷰, 멘토1)

서류할 때 너무 열심히 하는 거예요, 서류준비 할때도 그렇고, 그리고 이제 평상시에는 연락하면 되게 무심한 듯 한데 보면 생각을 계속하고 있더라고요, 고민하고 있고, 다만 이제 적극적으로 하지 못한다는 걸 안타까워 한다는 것도 좀 느꼈어요, 네, 그래서 여기 계속 이렇게 빠지지 않고 나온다는게 저 사실은 그거 정리하면서 사실 되게 좀 놀라긴 했거든요, 진짜 배분을 하는 목적 그거 한 개밖에 없었는데 이렇게까지 해왔다는 것 자체가 엄청난 변화인것 같아요. (중간인터뷰, 멘토2)

한계를 뛰어 넘어 온전히 나에게 집중

청소년인 저도 약간 할 수 있다는 그런거? 여기 있는 단어로 다듬으면 자기효능감, 자기유능감 이런거가 되겠죠? 약간 살면서 나이가 적다는 이유로 이런 경험을 할 기회가 성인보다 적다고 느꼈었어요, 항상 그런 한계나 차별을 넘은 것 같아서 저희에게 소중한 기회를 주신 것 같아서 뜻깊은 심사였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제가 이번에 그 서류심사랑 면접심사를 하면서 느낀거였는데 제가 몰입해서 열정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일을 찾은 것 같았어요. (중간인터뷰, 청2)

고등학교 생활에 힘들어하며 잃어버린 자신감과 자존감이 한껏 낮아져 있었다. 내가 여태 한 활동 중 가장 나다웠고, 내가 뭘 좋아하는지 알 수 있었고, 열정을 갖고 모든 순간에 온전히 집중해 할 수 있는 일이었다. 나다운 게 뭔지, 내가 뭘 좋아하는지, 내가 열정을 갖고 집중해 할 수 있는 일이 뭔지, 잘 모르고 궁금한 친구들에게 배분위원회를 진심으로 추천해 주고 싶다. (위원1 소감)

나는 청소년배분위원활동을 하기 전 자존감이 많이 낮은 상태였고, 항상 걱정을 많이 하는 그런 상태였다. 청소년배분위원 활동을 하면서도 과연 내가 잘 하고 있는 것일까, 꾸준히 나갈 수 있을까, 다른사람들에게 말 실수를 하지는 않았을까, 했다면 어떡하지 라는 그런 수 많은 질문들을 스스로에게 하며 스트레스를 받는 악순환들이 많았다. 그래도 옆에서 잘 하고 있다고 말해주는 선생님들과, 항상 수고했다라는 말을 해주는 팀원들의 말을 들으면서 나에게 많은 위로가 되었다. (위원3 소감)

적극적인 능동적인 좋은 사람으로 변화

저도 아 되게 뭐라 그럴까. 저는 이걸 끝나고 가면 제가 더 평소에 의견 참여를 더 많이 할 것 같은? 평소에 이렇게 의견 참여를 하는 일도 없구요, 근데 진짜 이만큼 내 의견이 필요한 일도 없었는데 근데 이 일을 하고 나서 무슨 활동이 있으면 저도 모르게 제 의견을 내더라구요, 더 적극적이어진 저의 모습. (중간인터뷰, 청)

배분위원회라는 모습에 맞춰 나를 만들어갔다. 덕분에 나는 주변 친구들에게 이 활동을 시작하고 부터 먼저 말을 건네며 이어가는 모습이 어려워 보이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을 수 있었다. 청소년배분위원회 활동을 하면서 나는 조금 더 고등학생의 모습을 사랑하고 당당해졌다. 누군가를 처음 만난 자리에서 나는 내가 학생이라는 걸 먼저 밝히며 소개하고, 나를 독특한 학생이라고 말하는 그들에게는 학생들에게도 자신만의 개성이 있으니 나를 존중해달라는 말을 꺼낼 수 있게 되었다.(위원8 소감)

활동을 점점 하면서 배분을 시작하다 보니까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뭐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계속 생각해보니까 이게 사회참여 같더라고요, 이게 진짜로 사회적으로 뭔가 변화를 이끌어나가고 그런 방향으로 ?? 하는 활동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제 삶에도 특별함이 더해질 수 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계기를 발전시킬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좋은 사람이 되려고 노력을 하고, 모든 사람이 다 정직한 사람이 되려고 노력을 하잖아요, 이 일을 통해서 제가 아마 조금 더 뭐가 올바른 일인지 배울 수 있지 않았나 그러게 이해했어요. (종결인터뷰, 위원2)

(4) 사회문제에 직접 참여하는 시민이 됨

청소년배분위원회 활동에 참여한다는 것은 우물 안의 개구리를 밖으로 나오게 하는 것이었다. 사회문제에 관심이 많은 사람에서 사회문제를 제대로 알고 어떤 활동들을 지역사회에서 하고 있는 사람이 되었다. 해결된 것도 없이 잊혀진 문제들에 대해 다시 의식하고, 해결을 기다리기보다 작은 것이라도 실천하기 시작했다. 주변의 사각지대에 대해 직접 지원해본 경험은 청소년이라 못할 것 없고 변화시킬 수 있을 것 같다는 믿음으로 이어졌다. 비영리 그리고 사회문제에 대한 의식의 성장은 사회에 앞으로 더 많이 참여해야겠다는 진로에 대한 고민으로 이어졌다. 비영리 현장에서 일해보고 싶고, 사회에 대해 더 잘 알고 싶어서 사회학과를 지망하기로 결심했다. 단순한 호기심이아니라, 청소년배분위원 활동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목적을 세울 수 있었다.

우물 안의 개구리 밖으로 나오다

우물 안의 개구리처럼 내가 보이는 하늘이다라고 생각했던 나를 바깥으로 끄집어내 내가 보았던 하늘이 다가 아니라고 알려 준 것이다. 활동이 시작하기 전, 나에게는 사회적 문제에 대해 관심이 많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와서 보니 진짜 문제는 내 눈앞이 아니라 등 뒤에 숨어져 있었구나 라는 걸 느낀다. (위원4 소감)

청소년배분위원 활동은 나에게서 매우 현실성을 갖게 해주고 예상한대로 사회문제를 더욱더 잘 알게 해주었다. (위원10 소감)

내가 모르는 사회 문제에도 보다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는 사람들이 곳곳에 있다는 것, 사회를 바꾸기 위한 단체들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위원5 소감)

지금처럼 많은 부당한 사회 이슈에 관심을 가지고, 청소년에 대한 시각을 절대 잊지 말아야겠다. 청소년 시기에 모두가 청소년의 고충, 문제에 공감하지만 막상 그 시기가 지나면 청소년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많이들 생각하기 때문이다. 정작 해결된 것은 하나도 없는데 말이다. 이 활동으로 나의 사회적 의식이 많이 성장한 것 같아 너무 뿌듯하다.(위원7 소감)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는 기회를 가짐

저는 이번에 청소년배분위원회 활동을 하면서 제가 평소에는 약간 흔히 주변에서 보지 못했던,

인권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에 대한 그런 생각을 좀 더 많이 하게 되고 그런 것들에 대한 생각을 더 많이 하게 됐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이렇게 배분위원들 끼리 의견을 나누고, 언제 또 이렇게 사회문제에 관심이 많은 청소년들이 모여서 천만원이라는 큰 돈을 배분하고 그런 기회가 없잖아요. 이 기회가 되게 소중하다고 생각을 했고. (종결인터뷰, 위원6)

선생님이 그 이슈에 대해 이야기 해주시면 반 친구들과 서로의 의견을 그냥 '왜 도대체 그 일이 그렇게 된 거예요?'라고 묻는 식에서 끝났었는데 배분위원회를 하고 나서는 이렇게 관심 있는 이슈들이 생기거나 이 부분은 너무 화가 난다 하면 제가 직접 댓글을 달기 시작했고, 왜 이 부분이 이렇게 됐나, 기사에 댓글도 많이 달게 됐고, 웬지 이 문제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져서 활동을 하면 이게 변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내가 변화를 시킬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가능성이 생긴 것 같아요. (종결인터뷰, 위원8)

아직 사회의 어두운 면에 물들지 않은 청소년과 청년이 사회를 바꾸고자 한다면 이전보다 훨씬 깨끗하고 이상적인 유토피아가 건설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는 이번에 청소년이 사회 변화에 참여하는 활동을 지원하며 즐거웠다. (위원11 소감)

비영리와 연결된 새로운 진로 구체화

사회를 보는 눈이 커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도 옆에서 보는데 말하는 게 달라진 걸 느끼겠어요, 언어 쓰는 게. 처음에는 아까 얘기했듯이 '아, 갑질이다.'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는 씨앗을 얘기하듯이, 갑질에서 씨앗이 되기까지는 그 과정을 통해서 본인들도 그게 느끼는 게 있으니까. (최종인터뷰, 간사2)

저는 활동하기 전에는 사회문제나 이슈를 보면서 그냥, 지금 생각해 보면 그냥 지나쳤던 게 많았던 것 같아요. 이 활동을 하면서, 지금 사회문제를 보면서 바꾸고 싶다 이런 생각도 많이 들고 저 혼자 막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다 같이 이야기 하면서 다양한 관점을 이렇게 들으면서 생각을 바꿔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기회가 된다면 더 많이 참여하고 싶다 사회문제에 대해, 그런 참여 같은 것도 많이 할 수 있으면... (종결인터뷰, 위원5)

사실 애들이 비영리단체가 뭔지 제대로 잘 모르잖아요. 근데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냥 다들 진짜 마음이 쓰여서 이쪽으로 오신거고 열심히 일도 하시고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기회도 주시고 좋은 것 같아요. 여기 항상 오면 이런 곳에서 일하고 싶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중간인터뷰, 청23)

저는 처음으로 제가 가고 싶은 과가 생겼어요. 사회학과를 가고 싶다고 처음으로 생각하게 됐어요. 이 활동이 저에게 어떤 의미였는지, 이제 다 끝나니까 다른 걸 찾기 시작해야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에 새로운 동아리를 찾아서 시작했고, 계속 뭔가 이런 활동을 이어갈 수 있는 시작점 같은 게 돼요.(종결인터뷰, 위원)

이번에 서류심사를 처음 들어갔잖아요. 정말 많은 서류를 보면서 아 이런 사람들도 있어서 우리가 좀 더 편하게 살아갈 수 있는 거구나, 사회적 약자들이 그래도 살아갈 수 있는 거구나 라는 걸 느꼈고, 사회를 보는 눈이 넓어졌고 그래서 내가 사회학과를 가고 싶은 이유가 어떻게 보면 더 구체화됐죠. 어떤 대학을 가고 싶어도 이 활동을 하면서 더 구체화 됐고, 내가 커서 뭘 하고 싶다고 좀 더 정해진 것 같고 (종결인터뷰, 위원4)

2) 성인 멘토의 성과

청소년배분위원회는 청소년들 12명이 두 팀으로 나누어 활동하면서 성인멘토 2명이 함께 하였다. 처음 시도하는 청소년배분위원회라는 여정에 청소년들과 함께 새로운 길을 찾는 동행자의 역할을 하였다.

(1) 청소년을 이해하려고 먼저 변화함

청소년배분위원회와 함께 한 어른인 성인멘토들은 이 활동을 통해 현대 청소년을 온전히 이해하는 시간이었다고 하였다. 어른들이 만들어낸 청소년도 아니고 이상적으로 기대한 청소년도 아닌 현재의 모습은 달랐다. 학업과 병행하느라 시간이 없는 와중에도 해내고자 하는 의지가 있었지만, 자연스럽게 의견을 나누고 협력할 것이라는 기대를 현실화 하는데는 청소년만의 시간과 방식을 알아가야 했다. 청소년에 대한 현실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먼저 변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였고, 청소년의 언어와 생각을 따라가며 즐거운 모습으로 다가가려고 노력했다.

청소년과 함께 한다는 현실적 의미 이해

아이들 믿어주고 또 아이들을 기다려 준다는게 뭔지 조금, 아주 조금 알게 된 것 같구요. 아까도 말씀 드리긴 했지만 현실과 일상의 갭이 클 때 그걸 맞추어 가기 위해서 이거 불가능해 라고 하기 보다는 어떻게 같이 협력해서 의견을 나누면서 그걸 맞춰갈까. 그 어떻게 보면 이상적인

것도 사실 우리가 먼저 세운거일수도 있다 생각이 들거든요? 아이들도 한 번 논의하지 않고 그레 열어놓을 테니까 너네 마음대로 해. 그게 이상은 아닌 것 같아요. 사실 그럴 때 한 구성으로 인정하면서 어떻게 맞춰 가는게 좋을까 이런거에 대한 좀. 아이들과 함께 한다는 의미를 좀 찾은 것 같아요.(중간인터뷰, 멘토2)

즐거움 그리고 청소년 용어를 배움

즐거움 빼면 그게 좀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저는 항상 즐거운 요소를 많이 노력을 하고 그들 가까이 다가가려고 되게 노력을 되게 많이 했거든요. 제가 어떻게 비춰졌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항상 그래도 아이들 용어 쓰려고 노력하고 말할 때도 하는데 어느 순간에 그럴 때도 있잖아요. 내가 너무 저 아이들에게 어른스럽지 않게 보이는 면이 있지 않을까 생각하면서도 그래도 내가 이렇게 하는게 맞는 것 같애 생각을 항상 했었어요. 그런데 그런 반딧불이 활동을 했던게 배분위 하면서 많이 도움은 됐던 것 같아요. (중간인터뷰, 멘토)

자식이 변화되는 거는 엄마가 변하면 좋게 변하잖아요. 저는 그게 항상 머리에 담고 있거든요. 아 모든 거는 내가 하기 나름이고 내가 변해야 돼. 약간 그런 생각을 하고 이 활동을 하니까 좀 편한 마음이 있었던 거지 내가 저 아이를 어떻게 변화시켜보자 라고 했으면 전 못했을 것 같아요. (중간인터뷰, 멘토)

(2) 기다림과 인내를 배움

성인멘토로서 청소년들을 변화시키는게 아니라 지켜보는 것부터 시작하였다. 개입하기 보다는 무조건 믿고 기다려주는 '힘든' 시간이었다. 때로는 이 과정이 막막하고 답답하면 다른 멘토와 고민을 나누고 서로 지지하며 '함께 하는 어른'의 역할을 찾아갔다.

무조건 믿고 기다려줌

아이들에게 되게 끝까지 믿어주고 지지해 주시는게 되게 많으신 것 같아요. 저는 그냥 개입하고 저는 계속 개입하고 싶고 뭔가 이렇게 했는데 우리 그냥 아무것도 안하기로 했으니까. 그냥 기다려 주자. (멘토2) 저희는 이걸 마치고 집을 들어갈 당시에 얻는 거예요. 이걸 생각해봤거든요. 기다림의 위대함. 기다리면 정말 아이들이 뭔가 하는 구나. (중간인터뷰, 멘토1,2)

지지해주고 열어주고 이것들을 아이들의 입장에서 이게 충분할까를 계속 고민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게 맞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그런 활동, 이상적이라면 진짜 애네들이 하는 것 그냥 온전히 믿어주고 지지해주고 그게 진짜 이상적인 것 같아요. 청소년배분위원회 활동하면서 선생님 두 분 선생님이 그 역할 하시는 거 보고 되게 존경스러웠거든요. 개입하고 싶을 때도 있는데 고민하면서도, 고민하면서도 안하시려고 하고 막 그런 모습 보면서 아 진짜 힘드시지만 여기까지 너무 고생하셔서 오셨다. (중간인터뷰, 간사2)

멘토간의 지지

이끌어 나갈 때는 같이 하는 성인멘토가, 혼자 이거를 이끌어 나가는게 아니잖아요. 저도 똑같은 고민이에요 하고 말을 이렇게 한마디 건네면 저한테 이제 뭐라고 얘기를 해줘요. 그러면 아 그렇죠. 그 한마디가. 아니 그리고 활동을 할 때도 약간 막 아이들과 의미부여 할 때 선생님이 이렇게 해주시고 제가 딱 거 진행 할 때 제가 또 막고 이게 좀 맞아서 저는 되게 고마웠거든요. (중간인터뷰, 멘토1)

(3) 정서적으로 안전한 공간을 만들어 줌

청소년배분위원회 활동에서 중요한 '함께 하는 어른'의 역할은 청소년들이 모르게 묵묵히 주변을 만들어주는 것이었다. 청소년들의 토론이나 의사결정이 다른 길로 가거나 집중하지 못하게 될 때에는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알게 하는 촉진자의 역할을 하였다. 청소년들 개별적으로도 관심과 필요한 것을 챙겨주는 것을 통해서 서로 낯선 동료들과 경계하지 않고 편안히 소통할 수 있도록 도왔다. 직접적으로 지시하지 않고 청소년배분위원들과 함께하여 정신적으로 힘이 되어주는 세심함으로 1년동안의 활동에서 낙오되는 청소년들 없이 마무리되는 동기부여자의 역할이었다.

묵묵히 모르게 주변을 만들어줌

진짜 너무 고마웠던 것 같아요. 저희 진짜 저희 의견에 태클을 안거시고 어떻게 보면 하찮을 수도 있잖아요. 애들이. 근데 태클 안거시고 진짜 옆에서 묵묵히 도와주시고, 분명히 말 안 들어가치고 짜증나고 화나셨을 텐데 (청1) 중간에 자꾸 딴 길로 새가지고, 너무 사이가 좋아서, 자꾸 막 한번 딴 얘기 하면 우리 다 얘기하고 쌤은 막 애들아. (중간인터뷰, 청1,2)

제가 생각했을 때에도 선생님들이 뭔가 관심 보여주시고 계속 챙겨주시고 하니까 선생님들이 되게

고생을 많이 하셨던 것 같고, 그리고 두 분 안 계셨을 때 제가 선생님 두 분에게 말했듯이 배분위원 대부분이 자기들이 모든 걸 다했다라는 데에서 큰 걸 느끼고 있었는데, 사실 그 뒤에 그걸 하기 위해서 선생님들이 엄청 많은 노력들을 하셨잖아요, 주변을 만들어 주셨잖아요, 그거를 모르게 했다라는 게 저는 대단하다고 생각했어요. (종결인터뷰, 간사)

안전한 공간 그리고 정신적 지지자

뭘 어떻게 할지 몰라 했기 때문에 서로 그것 때문에 초반에는 약간 경계 아닌 경계를 좀 했었거든요, 내 의사를 정확히 말 못하는 부분도 있었어요, 내가 이렇게 얘기하면 저 친구는 어떻게 생각할까 이런 것 때문에 말을 좀 아낀다는 것도 제가 좀 느꼈었거든요, 그런데 점점가면 갈수록 자기가 하고 싶은 이야기 하는 걸 보면서 많이 우리 뭐 간사님이 말했듯이 아이들이 안전한 공간에 와 있는 느낌을 저는 후반에 느꼈었거든요. (중간인터뷰, 멘토1)

저는 아이들이 편하게 다가올 수 있는 사람이 돼야지 아이들이 또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 사람이 되려고 되게 노력은 많이 했는데, 그게 아이들이 어떻게 느꼈는지는 모르겠는데, 마지막 끝나고 어제 한 아이가 ‘정신적 지지였다고 선생님이 없었으면...’ ‘이렇게 받고 나니까, 그래도 내가 역할이 없는 건 아니었구나... 아이들이 그래도 나라는 존재가 있으니, 있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그냥 뭔가 든든한 사람이 되어준 느낌? (최종인터뷰, 멘토1)

〈표5-3〉 성인멘토의 주요 역할

활동의 의미, 가치, 동기 부여하기 : 모티베이터

1. 질문 던지기
- 청소년배분위원회 활동, 청소년배분위원으로 의미를 찾을 수 있도록 질문하기
2. 필요할 때마다 단체와 다른 청소년이나 전문가들을 연결하기
3. 의미있는 자료를 제공하기
4. 방향을 제안하기

기다리고 동의를 구하기 : 퍼실리테이터

1. 안전한 분위기, 정답 없음을 통해 의견이든 존중하는 환경 조성하기
2. 기록
3. 결정해 주지 않고 결정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

함께 어려움을 해결하기 : 트러블슈터

1. 상황을 관찰하기, 어려움과 고민을 들어주기
2. 청소년의 시간에 맞춰 연락하기
3. 청소년의 상황은 이해하고, 활동의 부담 덜어주기(모임시간내 충분히 조사, 공유, 자료제공)

3) 지역사회와의 성과

배분지원단체(팀)들은 청소년배분위원회와 함께한 과정들에 대해 지역사회의 변화를 이끄는 데에 중요한 계기가 되었음을 성과로 보았다. 특히 청소년이 현재의 모습으로도 기회가 주어지면 큰 기여를 한다는 것을 직접 체험하는 기회가 되었다.

(1) 청소년배분위원회의 특별함

청소년배분위원회는 청소년에게 사회에 직접 참여하는 기회를 주었다는 것이 특별하였다. 그동안 청소년들은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다는 사회에 살면서 기회조차 제한적이었는데, 청소년배분위원회는 ‘청소년이 할 수 있는 범위’라는 한계를 두지 않고 열어두고 함께 고민하여 결정하였다. 배분위원들은 직접 지원한 사업에 참여하며 세심하고 조심히 사업 전체를 이해하고자 노력하였다. 그 모습이 청소년의 새로운 역량을 드러내 보여주는 것이었다. 사회이슈를 고민하고, 주제를 선정해서, 배분사업을 공고하고 선발하고 지원하는 일련의 과정을 거친 청소년배분위원은 지역사회에서 기여하는 시민, 나아가 지역사회 시민단체에서 함께 할 동료임을 증명해 보여주었다.

청소년에게 선택의 기회를 줌

(학교에서) 교장선생님이 너희들 진짜 할 수 있는거 별로 없거든. 왜 이렇게 준비 열심히 해... 그 얘기를 듣고 얼마나 상처겠어요. 이거 그냥 형식적인거고 너희들이 실제적으로 뭔가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말라고 했대요. 청소년들에게 정치적으로 뭔가 자기가 선택하는 경험들이 삶에 있어서 선택들을 주어지지 못하니까... 배분위가 참 좋은 거 같아요. (방문인터뷰, Q2)

사회문제에 대한 감수성을 키울 수 있는 기회가 될

이번에 오셔서 말씀 하신것도 봤지만, 저렇게 말하고 글 쓰고 보면은 중간에 말을 실수하시잖아요. 거기서 보이거든요. 이 사람이 뭘 조심하고 있는지, 신경 쓰고 있는지, 근데 그런거 보면 되게 섬세하신 거예요. 말 토시하나도, 이 배분사업 전체를 이해하고 계세요. 우리가 뭘 지원하고 있는지, 그거와 비교해서 이야기 하시잖아요. 저는 그분이 뛰어난 역량인지 모르겠으나 좋은 기회인거 같아요. 그리고 그들에게 마이크가 주어지고 결정권이 주어지니까 잘한다라는 걸 계속 보여주는 계기인거 같고. (방문인터뷰, Q2)

지역사회의 시민단체에서 일할 자원이 됨

청소년 당사자에게도 큰 훈련이 되지 않을까. 내가 나중에 이 배분위가 끝나고 어쨌든 배분위를 한다는 것도 시민사회 단체 활동에 관심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활동들을 이어나갈 수 있는 좀 자원이 되지 않을까요? 경험적인 자원? 내가 직접적으로 필드에 있는 단체도 만나봤고 이렇게 일을 해봤고, 돈도 배분해봤고, 돈을 어떻게 운용할 수 있는지, 의사구조는 어떤지 한번 경험해본 거잖아요. 짧게라도, 그것도 큰 자원이 되지 않을까 (방문인터뷰, Q)

(2) 전폭적인 지지 속에 활동을 시작함

배분지원단체(팀)는 청소년배분위원회가 없었다면 ‘세상을 바꾸는 시도’ 조차 할 수 없었다고 하였다. 청소년사회참여분야에 선정된 활동들의 경우, 어른들의 사업계획 안에서 제한적으로 활동할 수 밖에 없었던 현실이 있었고, 청소년인권분야 선정팀의 경우, 사회적인 편견으로 순수하게 본인들의 활동을 이해받는 것부터 어려움이 있었다. 청소년배분위원회로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었다는 것은 기존의 배분 혹은 사업지원 체계의 장애를 비로소 벗어나는 기회가 된 것이었다.

청소년 참여를 시도할 수 있는 기회를 줌

아름다운재단 청소년배분위원회가 없었으면 P는 세상을 바꾸는 시도조차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아름다운재단 청소년배분위원회가 있어 P는 시도를 하여 금빛 같은 결과물이 나올 수 있었습니다. P에게는 아름다운재단 청소년배분위원회란? P와 함께 세상을 바꾸는 구성원이자 P를 도와주는 부모님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중결보고서, P)

지역사회에 영향을 미칠 기회를 제공해줌

아름다운재단 청소년배분위원회 지원은 많은 청소년들에게 지금까지 생각으로만 해오던 것을 현실에서 실현 시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아주 중요하고 소중한 사업인 것 같다. 특히 전 지역적으로 조금이나마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청소년이 주체가 되어 운영을 하는 것이 더욱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앞으로 이런 사업들이 더욱 많이 생겨나고 규모가 커져서 많은 청소년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게 되었으면 좋겠다. (종결보고서, R)

지역사회의 변화에 관심을 더 키움

캠페인을 하면서 만났던 사람들, 그리고 특히 우리 학교 학생들에게 피켓 운동과 모금 운동을 통해 소개하면서 사람들이 조금이나마 저상버스와 저상버스의 실태에 대해 들어보게 되고 관심을 갖게 될 수 있었다. 그리고 청각 장애인 영유아들에게 기부를 해서 아이들이 더 좋은 변화를 느낄 수 있게 하였다. (종결보고서, I)

(3) 기존의 접근방식을 변화하도록 이끔

청소년배분위원회와 함께한 과정에서 청소년인권분야의 지원단체의 경우 청소년 사업의 방향을 전환할수 있다는 아이디어와 새로운 방법을 찾게 되었다고 하였다. 청소년위원들이 던진 질문과 보여준 세심한 태도들은 청소년들의 현재의 모습을 알려주는 길잡이가 되었다. 청소년사회참여분야의 지원팀의 경우, 기존의 배분지원사업이 제시하는 단체(팀)의 조건이 너무 높아서 시도조차 하지 않았는데 청소년배분위원회 사업을 통해 지원받을 기회를 가질 수 있었고, 지원받기 위해 절차에 필요한 노력을 하면서 본인들의 활동에 대해서 정리도 하고 함께 하는 활동에 대한 책임감도 키울 수 있었다.

청소년 사업의 방향 전환: 청소년과의 면접에서 새로운 방법을 찾게 됨

그날 면접을 보고나서 방향을 바꿀려고 했어요, 그래서, 배분위원회 분들의 눈빛을 보니까 아 이거는 청소년 성소수자 당사자만의 문제가 아니다... 아 이거는 저분들도 궁금해 하는 사안이구나. 친구들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은 문화가 어떻게 성평등하게 바뀌어야 하는지도 그 사람들의 문제일수 있겠다. 당연한 그 눈빛을 보고 고민 했던거 같아요. (방문인터뷰, Q1)

지역사회 청소년의 성장: 처음으로 준 성취감과 책임감

청소년배분위원회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이렇게 참여활동을 하게 된 것은 성평등 인식개선이라는 주제로 우리팀에게 처음으로 성취감을 주었다. 100만원이라는 지원금을 받기 위해 신청서를 작성하고, 서울까지 가서 면접을 보는 평소에 접하기 어려운 경험을 한 것이 기억에 남는다. 또한 팀의 리더로서 성평등 인식개선이라는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여러명의 의견을 모으는데 있어 의견을 조율하고 발전방향을 생각하는 것이 참 책임감을 필요로 한다는 것도 더욱 느끼게 되었다. (종결보고서, PN)

4) 재단의 성과

아름다운재단은 10년 전부터 나눔교육의 다양한 방식에 대해 고민하고 시도해왔다. 청소년 참여형 나눔교육 ‘반디’를 시도한 것도 3년 전이었고 성공적으로 전국의 학교, 단체, 기관들에 청소년 나눔활동 모델로서 ‘반디’를 보급해왔다. 이러한 경험적 기반을 바탕으로 ‘청소년배분위원회’를 기획하였다.

(1) 청소년과 청소년 참여 활동의 재조명

나눔교육에 관한 경험과 2017년 미국의 청소년자문위원회 활동 방문이후 보다 청소년이 주체가 되는 나눔 활동을 한국적 모델로 발전시키고자 하였다. 청소년에게 기회가 주어지기만 하면 파격적으로 해낼 것이라는 이상적 기대가 처음 청소년배분위원회를 선발하고 운영하면서 실망감으로 다가왔다. 한국사회에서 요구되는 바람직한 모습으로 자란 청소년들에게 기존의 틀을 깨고 새롭게 방법을 찾아보라고 요구하는 것은 욕심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1년간의 시간을 기다리고 인내하며 청소년들이 그 길을 찾아가는 모습에서 한국적 현실과 그 안에서 자란 청소년들에게 기존의 틀을 깨기 위해서는 어떤 기회가 어떻게 마련되어야 하는지, 얼마나 인내해야 하는지에 대해 성찰할 수 있었다.

시작 전엔 이상적, 처음엔 실망, 나중엔 깨달음

배분위원회도 제가 상상했을 때는 뭐 처음에는 우리의 역할이 되게 클지는 몰라도 일단 우리가 애네들을 모이게 하고 그리고 뭔가 같이 위원들끼리 뭔가 되게 재미있는 작업을 같이하고 뭐 우리가 필요 없을 정도로 뭔가 이제 되게 적극적으로 참여할거라, 적극적으로 의견도 그냥 이렇게

할 거라고 되게 이상적으로 생각했던 것 같아요. (중간인터뷰, 간사)

처음에 기대했었던 거는 사실 재단에서 일하고 비영리에서 일하면서 되게 관습적으로 일하는 것들도 있잖아요. 다들 그렇게 해왔으니까 뭐 아니면 원래 이러니까 했던 룰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거를 전혀 이 분야에서 일하지 않았던 청소년들이 들어와서 되게 파격적으로 이거를 만들거라고 생각했던 것도 있는거예요. 심사기준도 되게 파격적일거고 그 지원금을 주는 방식도 되게 파격적일거라고 생각하고. (중간인터뷰, 간사)

청소년에 대한 긴 성찰의 시간을 가짐: '반디' 와 다름

예상했던 청소년들의 삶과 어쨌든 이런 것들이 되게 다르다 라는 것들 다시 한 번 확인하게 하잖아요. ... 청소년들이 참여하게 되는 것에서도 반디는 사실 되게 좀 단기 프로그램이었잖아요. 대부분 장기로 가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까지 생각을 길, 같은 청소년들을 두고 길게 생각해 본적은 없는 것 같았는데. 이거는 같은 청소년을 두고 굉장히 긴 호흡으로 가다보니까 더 청소년들의 사회참여의 의미나 더 생각을 많이 하게 되고 그때의 뭐 재단과 나의 역할에 대해서도 계속 고민하게 되었어요. (중간인터뷰, 간사)

인내심을 갖고 믿어주면 됨

'거기도 처음 시작했을 때는 우리와 똑같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왜냐하면 그때 미국에 갔었을 때 그랜드 래피즈 파운데이션 그 분을 만났을 때도 그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자기가 생각했을 때 아닌 결정을 애들이 했다. 본인이 분명히 맞다라고 생각했던 게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애들은 그 결정을 했고 그냥, 어쨌든 마음은 좀 그렇지만 그냥 하게 뒀더니 역시나 그건 실패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다시 애들이 성찰하고 뭔가 이게 좀 반복해서 가더라. 이랬거든요. 이렇게 선생님들의 인내심(성인멘토)과 그들의 인내심과 이거는 비슷했을 것 같아요. (최종인터뷰, 간사)

(2) 청소년 활동의 장으로서 지역사회 재발견

청소년배분위원회 활동은 청소년에게 비영리를 진로에 둘 수 있는 보다 직접적인 진로체험 활동으로 의미를 부여하였다. 학업과 입시 중심의 청소년 생활에서 지역사회에 참여하는 활동은 부수적으로 제한적으로만 인정받고 있는 현실에서 청소년의 사회참여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알려나가야 한다는 재단의 책임감도 재확인할 수 있었다. 무엇보다 청소년배분위원회 활동이 재단의 배분사업에 신선한

기여를 하였다. 기존의 배분사업에서는 들어오지 않았던 새로운 주제와 단체가 배분을 신청하였던 것이다. 기획부터 진행에 이르기까지 청소년배분위원회와 기존 성인 위원회가 함께 하는 과정이 마련된다면 지역사회 변화를 위한 새롭고 특별한 배분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였다.

비영리를 청소년의 진로로 인정하게 하는 기회

비영리라는 존재 자체를 굉장히 좀 되게 청소년 진로나 뭔가 되게 좀 의미를 둘 수 있는 뭔가 하나의 분야로 만, 이렇게 좀 하게해야 했나? 이런 생각이 좀 들고 그 청소년들이 하는 활동을 되게 좀 많이 이렇게 홍보? 알리는 것도 있고 (중간인터뷰, 간사)

청소년의 지역사회 참여에 인정을 구함

이 활동이 되게 의미 있고 본인들은 되게 좋긴 하지만 사회적으로는 아직 인정을 받지 못하는 측면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활동도 되게 하고 싶은데 애들은 학원이나 이런걸 놓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되게 이 활동을 되게 뭔가 더 부각시키는 거를 우리가 해야 되는 역할일 까?(중간인터뷰, 간사)

청소년배분위원회 공모의 특별함: 새로운 주제와 단체가 배분을 신청함

(기존 배분사업을) 재단에서 오픈했을 때 들어오는 이슈와 우리(청소년배분위원회)가 오픈했을 때 들어오는 이슈가 좀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청서를 냈던 사람들의 이슈를 보고 나서, '왜 우리는 이런 게 안들어오지?' 이런 고민을 했었거든요, 그런걸 보면서 이걸 계속 운영해야 되지 않을까? (최종인터뷰, 간사)

성인 배분위원회에 대한 성찰

재단 전체적으로는 어쨌든 이게 저희도 계속 고민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청소년배분위원회 만의 일이 아니라 재단 차원에서 배분사업 중에 위원들이 뭔가 좀 같이 결합해서 한다면 더 재단도 좋고 청소년위원들도 좋고, 그렇지 않을까, 방법은 어떤 게 있을까 고민을 하는데. (최종인터뷰, 간사)

(3) 아름다운재단의 기여와 책임

청소년배분위원회 활동은 이미 오래전부터 한국의 비영리조직들이 연구하고 고민해왔으나, 막상 실제 사업으로 실현시키지 못해왔다. 아름다운재단은 유스필란트로피의 가치를 구현하고자 청소년 배분위원회 활동을 처음으로 시도하였다. 청소년들과 함께 하는 활동이 가치와 다르게 실제는 어려움이 많다는 것을 알면서도 시작하였고, 청소년배분위원들이 기관방문을 하면서도 재단의 이러한 가치를 느낄 수 있었다. 다른 곳에서는 하지 않지만 꼭 필요한 일은 시작하는 아름다운재단의 기여를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처음의 시도에서 머물지 않고 다른 지역, 다른 단체들도 청소년배분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도록 고민하고 있다. 1년이라는 과정동안 시행착오 겪은 부분을 정리하여 청소년배분위원회가 재단내에서 그리고 재단 밖에서도 지속가능하도록 해야 한다는 책임감을 갖게 되었다.

아름다운재단이 처음 시도 함

특히나 청소년이 직접 하는 그 배분은 저희가 처음이다 보니까 아무리 자료를 찾으려 해봐도 없고 딱 청소년배분위. 아름다운재단 밖에 없고... (나눔교육을 함께 하는 지역의 비영리단체) 파트너분들이라든지 그 성인멘토분들을 만나게 되면 다들 청소년과 뭔가를 한다는 거를 되게 부담스러워 하시는 말을 많이 해요 너무 힘들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아이들을 이렇게 독려하고 이끌어서 뭔가를 쓰게 하고 적게 하고 의견을 말하게 하고 이런 것들이 사실 되게 큰 어려움인데...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또 이런 국내 처음으로 이걸 했다는 것 자체가 새로운 어떤 활동을 제시해줄 수 있는 거 같아요 (중간인터뷰, 멘토2)

고함20. 청년들은 함께 모여 청년의 문제를 청년의 목소리로 알리기 위해 열중하고 기사를 통해 더 많은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노력하는 모습이 멋있었다. 그리고 아름다운재단만이 고함20이 이런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인정해주시고, 지원을 해주셨다는 것을 알았다. (위원5 소감)

타기관도 적용할 수 있게 모델링

재단처럼 이렇게 배분하는 곳들에서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고민하고 있거든요. 재단에서만 이걸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재단 성격을 갖는 곳들은 똑같은 청소년위원들이 구성이 된다면 관촬치 않을까 생각이 들고, 또 한 가지는 (비영리단체에서) 청소년위원회를 만들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아름다운재단에서 이 모든 걸 다 하겠다

라기보다는, 우리가 이런 모델을 보여주고, 실제로 청소년들이 이렇게 활동을 하는 걸 보여주고 하면 다른 데들도 그런 위원이 구성이 되면 괜찮지 않을까(최종인터뷰, 간사)

‘처음 시작하는 것도 어렵지만 지속하는 것도 어렵다. 그러니 지속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거기는 어쨌든 뭔가 이게 실패든 뭐든, 성공과 실패를 계속 반복하면서 20년 넘게 이거를 운영하고 있다라는 것과 우리는 지금 막 시작했지만 우리가 이거를 어디까지 지속할 수 있는지 이거는 또 저희가 고민하고 뭔가 해야 될 일이지 않을까 생각했었어요. (최종인터뷰, 간사)

지속가능한 청소년배분위원회를 위한 구상

‘어, 이렇게 청소년을 믿어주기가 힘든데 어떻게 이렇게 해줬지?’ 라는 그 생각을 가졌다. (최종인터뷰, 멘토1) 10년 20년, 10년이 좀 넘어가야 비교가 가능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기수들이 연결되어 있고 서로 청소년들이 봐주고 또 기존에 했던 것들이 있기 때문에 되게 치열하게 공부한다고 들었어요. 어떤 이슈를 정할 때도 그렇고, 그런 것들이 좀 쌓여가야 비교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최종인터뷰, 멘토2)

2기를 위한 준비

1년에서 끝나지 않고 애네들이 선배가 돼서 다음 기수에 조금 더 멘토를 하는 거죠. 약간 2기 생기면 2기를 준비하면서 1기를 했던 애들 중에 뭔가 좀 같이 준비해 줄 친구나, 그런 것들을 좀 얘기해볼 생각은 하고 있어요. (최종인터뷰, 간사) 우리 1기 애들이 더 2기를 기대하고 있어요. (최종인터뷰, 멘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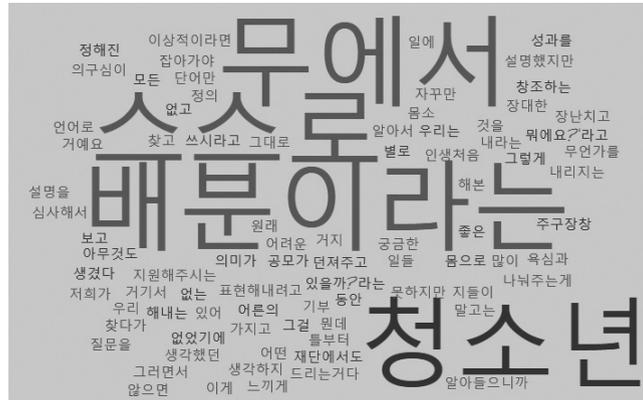
5) 청소년배분위원회의 의미

(1) 청소년의 속도대로 무에서 유를 창조함

처음엔 배분이 무엇인지 몰랐다. 주변에서 물어보면 ‘돈 나눠주는 거’ 라고 답했다. 좋은 일에 1천만원 을 쓴다는 정도 외에 언제까지 어떻게 무엇을 해야 하는지 가르쳐주는 것도 없이 청소년들끼리 고민하고 토론하고 결정하라고 하였다. 난생처음 정해진 것이 없는 일을 해내는 과정은 ‘의구심’ 만 가득했다. 처음엔 평지인 줄 알았다. 진전도 없고 헤매기만 하는 모습이였다. 서류를 만들고

지원단체탐을 만나면서 배분을 몸으로 느꼈다. 돌아보니 조금씩 올라가고 있었다. 짜여진 교육 틀에 익숙했던 청소년들이 힘들지만 스스로 만들어가면서 어른만의 일이라 여겼던 배분을 청소년도 잘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을 보여주었다.

〈그림14〉 배분위원의 경험



처음엔 장황하게 설명했지만 몸으로 느끼게 됨

저는 원래 그렇게 설명했거든요? 아름다운재단에서 기부 받은 돈을 가지고 저희가 공모를 올려서 지원해주는 단체 보고 심사해서 돈을 좋은 일에 쓰시라고 드리는거다 그러는데 공모가 뭔데? 아 저 진짜 처음에 얼마나 주구장창 설명 했었냐면, 정말 이렇게 장대한 설명을 했었는데 다 못 알아들이니까 돈 나눠주는게 있어. (중간인터뷰, 청1,2)

우리는 자꾸만 뭔가 언어로 규정하려고 하고 뭔가 이게 사회적으로 큰 의미가 있지 않으면 별로 효과적인 일, 꼭 필요한 일로 생각하지 않는데, ‘배분이 뭐예요?’라고 질문을 했었을 때 그 아이들이 한 마디로 정의 내리지는 못하지만 아이들이 그 경험을 통해서 1년 동안 배분이라는 그 일을 몸소 다 느끼면서 그걸 표현해내려고 하는, 거기서 하나하나 다 느껴지는 거예요 (최종인터뷰, 멘토1)

인생 처음 정해진게 없는 일을 해내는 과정

배분을 한다는 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도 어려운 일이었다. 모든 것을 청소년 배분위원들이 스스로 만들어 나가야 했다. ‘배분을 해야한다’는 것 말고는 정해진 게 아무것도 없었기에,

틀부터 우리 스스로 잡아가야 했다. 처음엔 하고 싶다는 욕심과 더불어 진짜 전부 우리가 할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이 많이 생겼다. (위원1 소감)

청소년배분위원회, 이상적인게 뭘까 어떤 생각해보면 배분이라는 단어만 던져주고 지들이 알아서 지지고 복고 북치고 장난치고 다 하는거예요. 그니까 뭐 재단에서도 언제까지 기약, 언제까지 해, 언제까지 무언가를 성과를 내라는 것도 전혀 없이 그냥 애네들 속도 그대로 애네들 궁금한 거 찾고 찾다가 뭘 또 발견하고 그러면서 만들어가는 거지. 진짜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것. 진짜 이상적이라면. 어른의 개입도 없고 그냥 자기네들끼리. (중간인터뷰, 간사2)

평지인줄 알았는데 계단

청위팀Q하고 만나고 청위팀S와 하고 만나고, 서류 만들고 하면서 '아, 이제야 시작이 되는구나. 내가 전까지 했던 것은 이걸 시작하기 위한 발판이었구나' 이게 딱 느껴지는 거예요. 제가 아마 그때 종이에도 써놓았을 거예요. 뒤돌아 봤는데, 평지인줄 알았는데 계단이었다고. 진짜 딱 그거였어요. 거짓말 안하고, 아니, 걸어가고 있는데, 나는 올라가는지도 몰랐는데 뒤돌아보니까 올라가고 있더라고요. 엄청 많은 걸 알게 됐어요. (종결인터뷰, 위원2)

힘들어했지만 길을 잘 찾아가는 청소년을 발견하게 됨

청소년들의 삶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하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반디활동을 할 때도 할 때는 되게 짧은 시간이니까 뭔가 내 마음처럼 안 되고 이런 게 보일 때는 '아, 왜 이렇게 밖에 안되지' 라고 되게 안타까운 게 좀 있었는데 이걸 하다보니까 이들이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들도 좀 알게 되는 것도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게 정말 뭔가 짜여진 교육 안이나 그런 거 없이 시작을 했는데 청소년들이 처음에는 되게 힘들어하긴 했지만 길을 잘 찾아가는 걸 보면서 청소년들이 뭔가 엄청 배우고 성장했다기 보다는 원래 이들이 갖고 있었던 건데 뭔가 그거를 조금 건드려주고 뭔가 한번 생각하고 정리하게 해주고 그런 시간과 장만 만들어 줬었던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청소년들에 대해서 그들의 힘든 삶에 대해서도 이해하게 되고, 사실은 청소년들이 이게 못하는 게 아니라 그럴 시간도 없고 그게 안 됐을 뿐이지, 이런 것들을 똑같이 어른과 비슷한 시간과 경험과 이런 것들만 있으면 더 잘할 수 있고 할 수 있다는 걸 좀 약간 더 느꼈던 같아요. (최종인터뷰, 간사)

으로 이루어진 배분금으로 배분을 해야 한다는 것, 서류 심사와 면접을 통해 '탈락'을 시켜야 한다는 것들이 내가 해본 일들 중 가장 무거운 책임감을 요구하는 것 같았다. (위원 소감)

청소년배분위원으로 더 엄격한 잣대

저희는 그냥 '어머, 그럴 수도 있고, 청소년들이 이 정도까지면 잘한 거야'라고 생각을 할 텐데 청소년이 청소년을 바라볼 때는 더 엄격한 것 같아요. 그래서 '왜 이렇게까지 안 해주는 거지?'라고 약간 더 엄격한 잣대가 있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최종인터뷰, 간사2)

스스로 이 활동에 대해서 책임감을 가지고 소중하게 생각했다는 거, 그게 많이 느껴졌어요. 그래서 저도 활동에 대한 보람을 좀 느꼈던 것 같고, 그리고 생각보다 우리가 배분이라는 전문적인 그런 일을 했는데, 그런데 어제 아이들의 입에서 배분이라는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중략) 사회적으로 얻었던 의미들이 원치, 아니면 본인들이 삶에 있어서 조금씩 변화된 것들 - 그걸 더 많이 생각하더라고요. (최종인터뷰, 멘토2)

기존 어른들의 방식을 반성하게 함

우리는 그러면 청소년처럼 그렇게 뭔가 심사를 할 때 저렇게 준비하고 막 그런 객관적으로 보려고 노력하고 이런 마음가짐으로 참여한 적이 있었던가? 약간 이런 생각이 들더라구요. 그런 면에 있어서는 저는 되게 파격적이었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청소년들이 서류만으로 알 수 없다.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을 그 인터뷰를 한 팀에 거의 20분씩 할애해도 그때도 애들이 거의 4시 아침에 와서 준비하고 4시 넘게 까지 끝났으니까 애들은 이거를 되게 잘 배분하기 위해서 엄청난 그 노력을 한 거고 본인들 스스로가 이제 되게 객관, 나름대로 공정하게 심사하기 위해서 되게 노력을 많이 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보면은 기존의 나를 포함해서 이렇게 일하고 있는 사람들이 저기 배분위원처럼 저렇게 했었나? (중간인터뷰, 간사)

(3) 어른들과 평등한 동업자 관계를 맺는 과정

배분은 지역사회와 공생하는 동업자로서 고마움을 전하는 과정이었다. 배분지원단체(팀)과 상호작용하면서 서로 동등한 관계를 만들기 위한 동업자 정신을 가졌다. 배분이라는 방식을 통해서 청소년끼리가 아니라 외부 지역사회 단체(팀)과 함께 공생 관계를 형성하는 과정이었다. 일방적으로 배분하고 관리하는 위치가 아니라 협력하는 파트너로서 관심을 표현하고 '고마움'을 서로 전하였다.

결과공유회에서 전달한 ‘감사패’는 청소년배분위원회의 이러한 태도를 상징한다. 지역사회에서 실천하는 분들과의 맺은 평등한 파트너십이 배분의 새로운 의미로 나타났다.

지역사회와 공생하는 동업자 관계로의 전환

솔직히 말하면 성인이랑 하다보니까 성인이 그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어, 아 청소년이니까 이런 식으로 낮게 보셨을 수도 있고 아니면 아 우리를 지원해주신 분인데 하면서 너무 높게 보셨을 수도 있는데 다행히 Q 담당자님이나 S단체 분들은 다 우리를 동등하다고 생각을 해주셔가지고, ‘아 담당자님 저희 이날까지 내기로 하셨는데 좀 늦으신 것 같아요, 혹시 다음 주까지면 주실 수 있으세요?’ 이렇게 하면 바로 피드백도 주시고 했거든요, 저랑 너랑은 동업자세요 라는 생각을 많이 해야 하는 것 같아요. (종결인터뷰, 위원3)

우리끼리만 만약 활동을 했었으면 오히려 거기 안에 갇혀있었을 수 있었을 텐데 그게 아니라 관계를 맺다보니까, 다른 청소년 단체들이라든지 아니면 모임이든지, 이렇게 관계가 맺어지고, 또 그분들을 존중하거나 그분들의 어려움들, 이런 걸 더 보게 되니까 ‘내가 일방적으로 줬다’ 이런 돈의 관계가 아니라 서로 공생하는 관계? 이런 걸 좀 막연하게나마 느끼지 않았나. 그래서 그런 데에 더 이 활동의 의미가 있었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최종인터뷰, 멘토2)

서로 고마움을 전하는 배분사업

우리에게 믿고 맡기는 그런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교육청은 예산을 담당한 사람이 따로 있지만 청소년배분위원회 그런게 따로 있는건 아닌거잖아요, 그리고 돈을 넣어주고 너희가 알아서 활동해라 그런게 아니고 정말 혹시 예산 변경된 사항이 있으면은 저희팀에 페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 이야기해주고, 그런 부분이 너무 고마운거예요, 그래서 감사패를 저희가 역으로 드리고 싶은거예요. (청이팀, P)

(중략) 정말 우리한테 지원을 해주고 이 프로젝트를 해서 되게 고마워서 감사패를 준다고 얘기를 한 걸 보면 애들이 오히려 배분에 대해서 이 단어나 기능보다는 실제 그 의미에 대해서 더 잘 알고 있는 것 같더라는 생각도 들었고(중략) (지원받은 팀들이) 너무 많은 일들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놀라워하고, 되게 고마워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배분의 역할은 그런것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최종인터뷰, 간사)

(4) 비영리가 더 잘하도록 지원해서 잘 키우는 일

배분은 사회에 필요한 일들이 움직일 수 있도록 씨앗을 심는 일이라고 하였다. 비영리단체에 대하여 몸으로 이해하고 배분이 무엇을 돕는지 이해하였다. 돈만 주는 것이 아니라 움직이고 성장하도록 지원하는 것이었다. 어른들이 해오던 배분이라는 일을 청소년이 직접 실천해 보면서 청소년에게 청소년이 힘이 되어준다는 것, 청소년이 주인이 되어 바뀌보는 세상이 있다는 것, 청소년이 진짜 사회를 변화시킬 큰 힘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배분은 이제 청소년의 단어가 되었다.

〈그림16〉 배분의 의미



사회에 필요한 일들이 움직일 수 있도록 씨앗을 심는 일

이런 사람들 때문에 사회가 더 나아지는구나 이걸 느꼈다고 하는 이런 거에 있어서, 우리가 지원했던 단체들, 이런 비영리단체들의 활동에 대해서 조금 더 몸으로 와 닿았던 것 같고, 자기들이 배분을 통해서 이걸 좀 더 도왔다, 좀 더 잘 할 수 있도록 역할을 했다, 자기들이 역할을 했다, 이거에 대해서 좀 뿌듯해하는 게 있었던 것 같아요. (최종인터뷰, 간사)

이게 배분이라는 단어나 기능적인 거는 이야기하지 않지만, 저는 실제 배분의 역할 - 이거를 체감했다는 건 조금 느껴지는 게 있거든요, 예를 들어, 사실 배분이라는 게 돈만 주는 거라기보다는 정말 사회에 필요한 일들이 움직일 수 있도록 지원을 주는 거잖아요. (최종인터뷰, 간사)

심사해서 돈을 주는 일이 처음에 배분인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잘 성장할 수 있는 씨앗을 심는 일이었다. (위원2, 결과보고회)

청소년의 힘으로 바뀌보는 세상

어른들도 어른들의 어떤 가치를 가지고 배분을 하겠지만 우리도 우리 나름대로 잘할 수 있다. / 어른의 눈이 아닌 청소년의 눈으로 보는 사회적 사건들이나 사회적 의식이 다르잖아요, 저희는 청소년의 시각으로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준 것 같아요. / 청소년들이 대학가는 입시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런 사회가 바뀌기 위해서는 저희가 어른이 되는 거잖아요, 어른이 되는 청소년들이 이런 사회참여를 해보는 게 중요하다는 것도 알게 된 것 같아요. / 저도 (다른 위원) 말처럼 청소년도 힘이 있다는 걸 보여준 것 같아요. (종결인터뷰, 위원46,8,12)

사회에 자신의 목소리를 내고 싶은 청소년, 사회변화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싶은 청소년, 청소년이라는 사회지위에 한계를 느꼈던 청소년, 청소년 문제를 청소년의 힘으로 해결하고 싶은, 그런 청소년들에게 청소년배분위원회는 큰 힘이 되어 주었다. 그리고 청소년이 주인이 되어 바뀌보는 세상 속에는 언제나 청소년배분위원회가 있을 것이다. (결과보고서, 멘토)

청소년배분위원회를 시작한 후 깨달은 점이 있다면 '청소년의 힘이 꽤 크고 많은 것들을 이끌어 나갈 수 있구나'였다. 앞으로 청소년이 하는 활동들이 있다면 관심을 가지고 바라봐 주어야겠다. (위원9 소감)

그동안 배분은 어른들의 단어였다. 청소년이 소감문에 남긴 말 한마디가 마음을 울린다. '배분은 이제 우리들의 단어이다.' 아직도 어른들만 가지고 있는, 입시로 잃어가고 있는 존재, 시간, 기회, 관계 등의 수많은 단어들이 청소년과 함께 만들어가는 우리들의 단어가 되어 가면 참 좋겠다. (결과보고서, 멘토2)

VI. 나가며

2017년 7월부터 2018년 8월까지 1년 동안 진행된 아름다운재단 청소년배분위원회 활동은 청소년들에게 그들이 가진 힘과 잠재력을 발휘하여 사회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시민으로서 실천하는 과정이었다. 배분의 의미를 처음엔 도움이 필요한 곳에 돈을 나눠 주는 것으로 알고 시작했지만, 1년의 청소년배분위원회 활동을 마치면서는 ‘비영리가 더 잘 성장하도록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동업자의 관계로 씨앗을 심는 일’이라는 의미를 찾아내었다.

처음으로 실시한 청소년배분위원회 활동은 첫째 ‘무에서 유를 창조’ 하는 과정이었다. 왜 그러한 결정을 내렸는지 이치에 맞게 말하는 방법을 배우고, 옳은 것이 무엇인지 의문을 던지며, 함께 고민한 답을 설명하고 설득하는 과정이었다. 충돌과 갈등 속에서 의견을 조율하며 나이와 상관없이 동료로서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고 협력적인 인간관계를 만드는 법을 익혔다. 그동안 청소년이라 못했던 일들을 경험하면서 온전히 자신에게 집중하여 자존감이 높아지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특별한 자신을 발견하였다. 이는 사전사후에 실시한 조사에서도 청소년들의 리더십생활기술 중 그룹활동기술, 자기이해기술, 인관계기술이 유의미하게 향상되어 일관성있는 결과임을 알 수 있었다.

둘째, 청소년배분위원회 활동은 청소년들에게 ‘우물 안의 개구리가 밖으로 나오는 것’을 의미하였다. 질적자료 분석 결과, 사각지대 이슈를 발굴하고 직접 지원단체를 선정하여 배분해본 경험은 비영리단체와 사회문제에 대한 의식을 높이고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진로를 개척하겠다는 목표도 세울 수 있게 도왔다. 사전사후 조사에서도 사회문제해결에 대한 인식과 참여의향 정도가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났다. 청소년에게 기회가 주어진다면 청소년이 가진 힘으로 청소년에 대한 편견을 깨고 책임감 있는 시민으로서 사회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다는 강한 믿음을 보여주었다.

이와 같이 청소년배분위원회가 성공적으로 청소년들의 변화를 이끌었음에도 불구하고, 앞으로의 청소년배분위원회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참여 청소년들이 대부분 학생이기 때문에 갖는 시간적 제약에 대한 고려가 되어야 한다. 격주 토요일 오전 2시간 활동이 제한적이기도 하고, 시험이나 방학 등의 일정을 고려하여 유연하게 설계될 필요가 있다. 여름방학에 시작하여 학년이 바뀌는 다음해에 마치는 것 보다는 1월에 시작하여 12월에 마치는 일정으로 기획하되, 학기 중보다 방학에 활동의 비중을 높이는 것을 대안적으로 제시하였다. 일상적인 의사소통 채널(SNS)도 학생들이 학원을 마친 10시 이후에나 가능하다는 것도 사전에 반드시 이해되어야 하며, 성인들의 근무시간과 청소년 활동시간이 달라 신속한 답변이 오지 않더라도 꾸준히 참여할 수 있도록 시간과 정보를 정확히 전달해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 배분주제에 따라 팀을 나누고서야 비로소 본격적인 배분활동을 할 수 있었다고 평가한 바,

사전 준비와 탐색을 위해 보냈던 3개월(8월~11월)의 기간을 단축하여 팀(소위원회)을 빨리 나누고 팀별로 주제에 맞게 기관 방문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는 것이다. 또한 배분 선정이후 실제 사업기간을 늘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셋째, 청소년배분위원회 활동에서 팀워크를 기반으로 의사소통하고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오리엔테이션은 워크숍의 형태로 하여 배분위원간 친밀감을 쌓을 수 있도록 기획해야 하며, 오리엔테이션에서 배분이 무엇인지 어떻게 활동하게 되는지 감을 잡을 수 있도록 설명이 필요하다.

넷째, 결과공유회에서는 배분사업에 활동한 모든 팀과 구성원들이 참여하여 서로 교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고, 외국의 청소년배분위원회와 연결하여 활동을 공유하는 것도 제안하였다. 2기 청소년배분위원회를 위한 선배로서 함께 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되어야 한다.

아름다운재단은 기본적으로 청소년배분위원회가 미리 짜여진 프로그램이 아니어야 한다는 원칙이 있었다. 가상이 아닌 실제의 배분을 통해 청소년의 힘을 확인하고 그들이 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자 하였다. 성인멘토에게 안내한 것도 '실패해도 괜찮다' 였다. 청소년배분위원회 활동에서 성인들의 역할은 '곁에서 있어주기' 였다. 그러나 실제 성인멘토와 재단은 '함께 한 어른'으로서 배분위원회가 실현가능하도록 뒤에서 지원하고 청소년의 결정에 따라 행정적인 일들을 수정해주고 정보를 제공하였다. 미리 짜여진 프로그램이 없는 유연한 활동이었으나, 앞으로 '함께 하는 어른'을 위해서는 사전에 배분과정에 대한 기본적 이해는 반드시 공유해야 한다. 전체적인 큰 그림을 공유하면 청소년들의 세밀한 질문들에 여유를 가지고 답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또한 청소년배분위원회는 현재의 청소년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보여주는 활동이므로 성인에게는 '인내심'이 필요하다. 청소년의 파격을 기대하거나 모범적인 모습에 실망하거나 편견이 있는 만큼 어른들의 입장에서 일이 되게 하기 위해서 초조해지기도 하였다. 온전히 청소년을 이해하는데 시간이 걸린다는 것이다. 성인들이 알고도 모른 척 할 수 있도록 배분에 대한 전체적인 이해를 돕는 최소한의 커리큘럼을 마련하고, 청소년에 대한 편견과 선입견을 나눌 수 있는 시간을 가져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멘토의 역할을 하는 성인들의 의사결정 권한이 어디까지인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반드시 청소년 배분위원, 성인멘토, 재단 운영자의 의사결정 범위와 내용에 대한 사전 이해가 되어야 할 것이다.

지역사회에서 배분받은 지원단체(팀)은 기존의 배분사업에서 경험해보지 못했던 존중과 지지를 얻을 수 있었다. 청소년의 입장에서 청소년을 위한 사업에 지원하는 과정은 청소년 문제와 해결방식의 대안을 찾는 데 도움을 주었고, 청소년에 대한 이해를 넓히는 기회가 되었다. 하지만 향후 청소년배분위원회 활동에서는 배분지원을 받은 단체/조직/팀이 '청소년배분위원회'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도록 안내가 필요하다. 동반자적 관계로서 배분위원과 지원단체팀이 어떻게 함께 할 수 있을지, 상호작용과 의사결정의 방식을 어떻게 할지, 서로 신뢰를 쌓을 수 있는 방안, 배분에 대한 성찰적 접근에 대한 공유의 시간을 배분단체 오리엔테이션 시간에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배분방식도 3~4개월의 1회성 사업보다 지속적으로 지원해 주는 방법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아름다운재단 청소년배분위원회는 지역사회의 청소년과 어른이 함께 일구어내는 과정이었다. 청소년이 사회가 보다 더 잘 성장하도록 씨앗을 심는 일에 책임있는 시민으로 되어가는 길을 보여주었다. 배분이라는 과업 속에서 청소년에게 주어졌던 무한한 의사결정의 기회들을 통해 실제 지역사회를 만나고 소통하며 협력하여 문제를 해결해나가는 여정이었다. 그 길 위에서 청소년에 대해 가졌던 편견이 깨지고 새로운 모습으로 만나면서 앞으로 더 나은 사회를 위해 당당히 자신의 역할을 일구어가는 청소년을 발견하였다.

첫 청소년배분위원회로 모든 걸 새롭게 틀을 만들어야 한다는 점은 어려웠지만 청소년이 직접 배분을 해보고 누군가를 지원하면 그들을 응원한다는 점은 정말 짜릿하게 매력 있고 멋진 일이다. 처음 배분위원회라는 단어는 나에게 ‘어른들의 단어’로 입력되었고 무언의 장벽이 존재하는 무거운 자리 같았다면 지금은 배분위원회는 ‘우리들’이고 나는 자랑스러운 아름다운재단 청소년배분위원회 김**이다. (위원8 소감)

〈사진14〉 1기 청소년배분위원회 청소년들



〈참고문헌〉

- 김기헌·장근영 (2009) 한국 청소년 핵심역량 진단조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김윤정·김민정 (2015) 프로젝트 기반 학습에서 강점 활용 피드백 유형이 학습성취도와 학습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교육방법연구, 2015, 27: 229-252.
- 김혜경 (2015) 교과기반평가를 위한 성과중심 교과목 평가설계모형 개발. 공학교육연구, 18(6), 24-31.
- 박한나 (2013) 세상을 바꾸는 유스필란트로피. 한국스카우트연맹 나눔교육 교재
- 박효선 (2016) 프로젝트기반학습에서 문제해결력, 협력적 자기효능감, 협력적 자기조절, 인지된 성취도 간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엄완용 (2006). 청소년 리더십 생활기술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연구. 명지대학교 청소년지도학과 대학원 교육박사학위 논문
- 여홍진 (2018) 프로젝트 기반 체육수업이 초등학생의 비판적 사고와 대인관계에 미치는 영향,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이민영·윤민화 (2016) 아름다운재단 나눔교육 평가보고서. 아름다운재단.
- 임영식·문성호·정경은·강태신·문호영·진은설(2008) 2008년 청소년 인증수련활동 영역별 효과성척도 개발 연구. 한국청소년진흥센터.
- 임영식·정경은·진은설·정미나 (2011) 청소년 비판적 사고력 프로그램 개발과 효과성 연구. 청소년학연구 18(5), p435-458
- 조아미·김정희·설현수·정재찬 (2009) 청소년 생애핵심역량 개발 및 추진방안 연구Ⅱ : 사고력영역.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명지대학교 산학협력단.
- 조정원·김지혜 (2010) 프로젝트기반 학습 방법을 적용한 협동프로젝트 교과과정. 한국산학기술학회 논문지, 2010, 11.1: 214-219.
- 최윤진 (2016) 청소년 인권의 쟁점과 청소년 참여운동, 시민청소년학연구, Vol 7, No.2, 24-2
- 황여정·전현정 (2017) 청소년의 지역사회 참여 모형개발 연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 1-402.
- Alavi, S. B., & McCormick, J. (2008). The roles of perceived task interdependence and group members' interdependence in the development of collective efficacy in university student group contexts. *British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78(3), 375-393.
- Astroth, K. A.(1996). leadership in Nonformal Youth Groups: Does Style Affect Youth Outcoms?.*Journal of Agricultural Extension* 34(6).
- Blumenfeld, P. C., Soloway, E., Marx, R. W., Krajcik, J. S., Guzdial, M., & Palincsar, A. (1991). Motivating project-based learning: Sustaining the doing, supporting the learning. *Educational psychologist*, 26(3-4), 369-398.
- Boyd, B. L.(1991). Analysis of 4-H participation and leadership life skills development in Texas 4-H club members doctoral dissertation(PH,D)Texas A & M university.
- Community Research Institute & Johnson Center. (2013). Michigan Community Foundations' Youth Project(MCFYP) 20th Anniversary Report.
- Dormody, T. J. & SeEVERS, B, S(1994). predicting youth leadership and life skills among FFA members in Arizona Colorado, and New Mexico *The journal of Agricultural Education*35(2),65_71.
- Jen Bkioff & Amanda Dillon, (2014). Scanning the Landscape of Youth Philanthropy. Foundation Center
- Katz, L., & Chard, S. C. (1989, 2000). Engaging children's minds: The project approach. Greenwood Publishing Group.
- Kleon, s., & Rinehart, S.(1998). Leadership Skill Development of Teen Leaders *Journal of Agricultural Extension* 36(3) Youth Leadership Institute, (2001). Changing the Face of Giving : An Assessment of Youth Philanthropy. The James Irvine Foundation
- Larmer, J., & Mergendoller, J. (2015). Why We Changed Our Model of the "Essential Elements of PBL". The Buck Institute for Education.

Linden, J. A., & Fertman, C. I. (1998). Youth Leadership: A Guide to Understanding Leadership Development in adolescents. San Francisco, California: Jossey-Bass Inc.

Molly Cretsinger. Youth Philanthropy: A Framework of Best Practice. Kellogg Foundation Publication.

Morris, J. C. (1996). Self-perceived youth leadership life skills development among Iowa 4-H members. doctoral dissertation (Ph.D.) Iowa State University.

Texas Workforce Commission Youth Program Initiative (2003). Getting Your Youth Advisory Group from Here to There, School & Main Institute, Boston, MA; Denver, CO; and Austin, TX

Wingenbach, G. J. (1995). Self-perceived youth leadership and life skills development among Iowa FFA members. doctoral dissertation (Ph.D.) Iowa State University.

Youth and Philanthropy Initiative. Summary of Evaluation Report. Youth and Philanthropy Initiative England.

〈참고사이트〉

Learning to Give - www.learningtogive.org

Michigan Community Foundations Youth Project - www.michiganfoundations.org

Youth Leadership Institute - www.yli.org

부 록

아름다운재단 청소년배분위원회 설문지 _사전/사후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이 이 시간을 통해,
이웃과 사회를 이해하고 문제해결을 위해 창의적인 방법들을 일구어나가길 바랍니다.

이 설문지는 여러분들이 청소년배분위원회 활동에 참여하기 이전,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한 것입니다.

설문지의 질문들은 결코 정답이나 좋은 답이 있지 않습니다.
솔직하게 고민하지 말고 여러분의 생각을 체크해주세요.

여러분이 응답한 내용은 학문적 연구를 위해서만 사용되며 철저히 비밀이 보장됩니다.
또한 설문결과는 이후 본 프로그램 발전에 소중한 자료로 활용될 것입니다.

아무썸록 여러분이 애써 작성한 설문지가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빠짐없이 성실하게
써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이 설문에 참여해주어 진심으로 고마운 마음을 전합니다. ^^

2017. 9.

2018. 8.

아름다운재단 청소년배분위원회 성과평가팀

ID 이름: _____

성별	① 남자 ② 여자	출생연도	_____년
지역	_____시/군/구 _____동/읍/면		
종교	① 기독교 ② 천주교 ③ 불교 ④ 무교 ⑤ 기타()		
학력	① 중학생 ② 고등학생		

▣ 다음 중 나의 성향에 대해 잘 설명하고 있다고 생각되는 내용에 체크(V)해 주세요.

no	내용	전혀 아니다	아니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내가 속한 단체에서 필요로 하는 것을 잘 결정할 수 있다.					
2	나는 나 자신에 대해 전반적으로 긍정적으로 생각한다.					
3	나는 다른 사람에게 나의 감정을 잘 표현하는 편이다.					
4	나는 어떤 일을 할 때 목표설정을 잘 하는 편이다.					
5	나는 다른 사람을 대할 때 항상 진실한 마음을 가진다.					
6	나는 문제해결을 위해 많은 정보를 효과적으로 사용할 줄 안다.					
7	나는 어떤 일을 행할 때 각 구성원에게 책임을 맡기는 편이다.					
8	나는 우선순위를 정하여 일을 처리한다.					
9	나는 다른 사람에게 대단히 호의적인 편이다.					
10	나는 어떤 지식이든지 배울 자세가 되어 있다.					
11	나는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12	나는 내가 한 실수를 잘 수습하는 편이다.					
13	나는 매사에 재치 있게 일을 처리하는 편이다.					
14	나는 일처리 과정에서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다.					
15	나는 다른 사람들과 잘 화합하는 편이다.					
16	나는 나의 주장이나 생각을 타인에게 명확히 설명할 수 있다.					
17	나는 감정에 치우치지 않고 합리적으로 사고하는 편이다.					
18	나는 어떠한 변화도 수용할 자세가 되어 있다.					
19	나는 직접적 명령보다는 요청하는 편이다.					
20	나는 다른 사람을 신뢰하는 편이다.					
21	나는 어떤 일을 행할 때 다른 사람의 요구를 잘 고려한다.					
22	나는 어떠한 일에도 책임 있는 태도를 가지고 있다.					
23	나는 타인에게 칭찬과 감사의 말을 아끼지 않는 편이다.					
24	나는 내가 속한 집단 성원들이 제기한 요구사항을 잘 수용한다.					
25	나는 타인의 말을 주의 깊게 듣는 편이다.					
26	나는 여러 가지 대안들 중 적절한 것을 잘 선택하는 편이다.					
27	나는 나 이외의 다른 사람들도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28	나는 의견이 잘 받아들여지도록 집단의 분위기를 잘 조성한다.					
29	나는 어떤 일을 할 때 여러 가지 대안을 생각한다.					
30	나는 항상 다른 사람들을 존중하는 태도를 가지고 있다.					

▣ 다음 중 사회문제 해결에 대한 나의 생각을 체크(V)해 주세요.

no	내용	전혀 아니다	아니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사회문제들에 대해 잘 알고 있다					
2	나는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단체들에 대해 알고 있다					
3	나는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단체와 그 활동들을 지지한다					
4	나는 내가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긍정적 변화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한다					
5	나는 앞으로 사회문제해결을 위한 활동에 참여할 의향이 있다.					
6	나는 미래에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단체에서 일할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 다음 글을 읽고 자신의 생각과 가장 가깝다고 생각되는 곳에 체크(V)해 주세요.

no	내용	전혀 아니다	아니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만일 내가 잘못 생각한 것이 확실하다면 기꺼이 인정한다.					
2	내 생각이 틀리다는 증거가 있다면 내 생각을 바꾼다.					
3	친한 친구의 말이라도 틀린 것은 틀렸다고 말한다.					
4	나는 사람들이 내 의견에 찬성하도록 하기 위해 어떤 말이라도 해서 설득한다.					
5	나는 널리 알려진 주장이라도 뒷받침할만한 증거가 부족하면 받아들이지 않는다.					
6	내 생각을 뒷받침할만한 증거가 부족하면 계속 주장하기보다 다른 대안을 찾는다.					
7	나의 생각이 항상 옳은 것은 아니다.					
8	나는 나에게 불리하더라도 옳은 것은 옳다고 말한다.					
9	나는 어떤 상황이 내 생각과 다르더라도 진실이라고 밝혀지면 그것을 받아들인다.					

no	내용	전혀 아니다	아니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0	어떤 논의에서 내가 강력히 주장하는 의견에 오류가 있을 수 있음을 인정한다.					
11	나도 편견을 가질 수 있다.					
12	어떤 문제에 대해 다양한 관점에서 생각해 보는 것은 중요한 일이다.					
13	두 사람의 생각이 다르다고 해서 반드시 둘 중 하나의 생각이 틀린 것은 아니다.					
14	나와 다른 생각을 하는 사람을 보면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를 이해하려고 한다.					
15	아무리 완벽해 보이는 주장도 다른 입장에서 보면 그렇지 않을 수 있다.					
16	사교육에 대한 다른 사람의 생각은 나와 다를 수 있다.					
17	다양한 문화에 대해 관심이 많다.					
18	사람들은 각각 다른 견해를 가질 수 있다.					
19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에 대해 흥미가 있다.					
20	사람들이 나와 다른 의견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					
21	나는 잘 모르는 것이 있으면 그것에 대해 잘 알고 싶다.					
22	평생 동안 새로운 것을 계속해서 배우고 싶다.					
23	잘 모르는 것이 있으면 그것을 아는 사람에게 질문한다.					
24	새로운 것에 도전하는 것을 좋아한다.					
25	모르는 문제가 있으면 알게 될 때까지 노력한다.					
26	내가 모르는 일들이 어떻게 되어가는지 밝히는 것이 즐겁다.					
27	답이 없어 보이는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것은 재미있는 일이다.					

no	내용	전혀 아니다	아니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28	가능한 많은 것을 배우고 알고 싶다.					
29	나는 다양한 문제에 관심이 많다.					
30	여러 가지 생각을 가진 이들과 접하면서 많은 것을 배우고 싶다.					
31	나는 확실한 증거의 유무에 의해서 결론을 내린다.					
32	어떤 결정을 하기 전에 가능한 많은 증거나 정보를 수집한다.					
33	의견을 제시할 때는 그에 대한 근거도 제시해야 한다.					
34	정확한 근거에 기초해서 판단하려고 노력한다.					
35	여러 의견 중에서 하나를 선택할 때에는 근거가 확실한 의견을 선택한다.					
36	다른 사람의 의견에 동의하지 않으려면 그에 합당한 근거가 있어야 한다.					
37	어떤 의견을 받아들이기 전에 그 내용이 정확한 것인지를 확인한다.					
38	다른 사람의 말을 받아들이기 전에 그 말이 앞뒤가 맞는지 생각해 본다.					
39	모든 신념에는 근거가 있어야 한다.					
40	자신의 주장에 대해 증거가 확실하고 믿을만한지 알아본 후 주장을 밝혀야한다.					
41	사람들은 내가 논리적이라고 한다.					
42	나는 체계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					
43	나는 생각들을 쉽게 체계화한다.					
44	나는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체계적인 계획을 세우는 것을 잘한다.					
45	나는 생각들을 잘 조직할 수 있다.					

no	내용	전혀 아니다	아니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46	나는 논리적으로 생각하려고 노력한다.					
47	복잡한 질문에 대해 순서를 정해서 생각하기를 잘한다.					
48	나는 생각을 잘 정리한다.					
49	나는 순리대로 복잡한 문제에 접근하는 법을 알고 있다.					
50	나는 논리적으로 사물과 현상에 대해 생각한다.					
51	나는 내가 합리적 판단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52	사람들은 내가 내린 결정을 신뢰한다.					
53	문제가 생기면 사람들은 내가 해결해주기를 바란다.					
54	나는 내가 올바른 결정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생각한다.					
55	어떤 문제를 해결할 때, 나 자신의 추론(문제의 결론을 이끌어내는)능력을 믿는다.					
56	사람들은 내가 모든 일을 공정하게 처리하기 때문에 판단을 할 때 나에게 부탁한다.					
57	나는 사물을 바르게 생각할 수 있는 내 능력에 자신감이 있다.					
58	어떠한 현상에 대해 정확하게 판단하는 것에 자신이 있다.					
59	창의적인 대안을 생각해내는 내 자신이 자랑스럽다.					
60	나는 다른 사람들의 의견이나 생각을 이해하는 능력이 있다는 것이 자랑스럽다.					

**여러분의 성실한 응답에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

〈부록 2: 미시간 청소년자문위원회의 Best Practice〉

미시간 지역재단위원회는 20여년 간의 노하우를 축약한 ‘청소년자문위원회 활동을 위한 최고의 실행방법(Best Practice)’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는 다음과 같다.

- Best Practice 1. 미팅 빈도
- Best Practice 2. 멤버십
- Best Practice 3. 성인조언가(Advisor)
- Best Practice 4. 오리엔테이션과 훈련
- Best Practice 5. 청소년 이슈에 대한 사정(Assessment)
- Best Practice 6. 기금조성
- Best Practice 7. 수혜자 심사평가
- Best Practice 8. 지역사회 프로젝트 참여
- Best Practice 9. 기금 개발
- Best Practice 10. 이사회 내의 청소년
- Best Practice 11. YAC와 지역재단과의 관계
- Best Practice 12. 의사소통과 출판
- Best Practice 13. YAC 자가 평가
- Best Practice 14. 컨퍼런스와 훈련

활동 평가 일지 (양식)

청소년배분위원회는 청소년들이 사회문제해결을 위한 프로젝트를 선정 하여 기금을 배분하는 활동입니다. 함께 생각하고, 경험하고, 나누며 청소년의 목소리로 사회변화를 위한 프로젝트를 세우고자 합니다.

오늘의 활동에 대해 여러분들은 무엇을 배우고 경험하고 느끼길 기대하며 참여를 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보다 알찬 청소년배분위원회 활동을 위해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함께 고민해주세요. 정답이 있는 것이 아니니, 본인의 생각과 느낌을 자유롭게 작성 부탁드립니다.)

1. 오늘 활동하기에 앞서 무엇을 배우고 경험하고 느끼길 기대했나요?

2. 그 기대는 어느 정도로 채워졌다고 생각하나요?(달성정도를 1-10점 중 가장 적합한 점수에 표시해주세요)

-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 ⑦
- ⑧
- ⑨
- ⑩

2-1. 잘 달성되었던 것은 무엇이고, 왜 그렇게 생각했나요?

2-2. 잘 달성되지 않았던 것은 무엇이고 왜 그렇게 생각했나요?

3. 오늘 활동이 더욱더 잘 이뤄지기 위해서는 어떤 점이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나요?

활동 의사결정과정 일지 (양식)

청소년배분위원회는 함께 하는 멤버들간의 의사결정으로 이뤄집니다. 다양한 연령대와 지역, 배경을 가진 청소년들이 멤버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무엇인가 정하기 위해 토론할 때 한번에 합의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닐거예요.

오늘 활동의 의사결정과정에서 여러분들 스스로 얼마만큼 참여를 했다고 느끼는지 만약 참여의 어려움은 무엇이었는지 궁금해요. 참여의 어려움이 있다면 나의 적극적인 참여를 위해 나아가 청소년 배분위원회의 원활한 의사결정을 위해 무엇을 준비하고 개선해야 하는지 이야기해주세요.

1. 의사결정과정에 나는 얼마만큼 참여했다고 생각하나요?(달성정도를 1-10점 중 가장 적합한 점수에 표시해주세요)

- ①
- ②
- ③
- ④
- ⑤

2. 어떤 부분(어떤 이슈, 상황 등)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었나요?

3. 참여가 어려웠다면 그 이유(어떤 이슈, 상황 등)는 무엇인가요?

4.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위해서 나는 어떤 준비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나요?

5. 청소년배분위원회의 원활한 의사결정을 위해 어떤 점이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나요?

■ 인터뷰 가이드 – 아름다운재단 청소년배분위원회 성과평가 (청소년용)

프로그램운영자명 : 아름다운재단 연구교육팀

프로그램평가자명 : 이민영 (고려사이버대 사회복지학과 부교수), 구지윤 (광운대학교 외래교수)

〈목적〉

아름다운재단의 청소년배분위원회는 유스필란트로피(Youth Philanthropy)를 실천하는 한 방법으로 청소년들이 지역사회의 문제를 분석하고, 우선순위에 따라 문제들을 해결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활동입니다. 배분위원회 활동은 청소년들이 자신이 가진 자원과 강점으로 지역사회의 문제를 발견하고 해결해가는 과정을 통해 임파워링하여 지역사회 리더로 성장해 나가도록 돕습니다.

[[1부]] 과정평가

〈개별작성〉

[청소년배분위원회 활동 기록]

1. 이 배분위원회 활동을 하기에 앞서 무엇을 배우고 경험하고 느끼길 기대했나요?
2. 그 기대는 어느 정도로 채워졌다고 생각하나요?
(달성정도를 1-10점 중 가장 적합한 점수에 표시해주세요)
 - 2-1. 잘 달성되었던 것은 무엇이고, 왜 그렇게 생각했나요?
 - 2-2. 잘 달성되지 않았던 것은 무엇이고 왜 그렇게 생각했나요?
3. 오늘 활동이 더욱더 잘 이뤄지기 위해서는 어떤 점이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나요?

[청소년배분위원회 의사결정과정 기록]

1. 의사결정과정에 나는 얼마나 참여했다고 생각하나요?
(달성정도를 1-10점 중 가장 적합한 점수에 표시해주세요)
2. 어떤 부분(어떤 이슈, 상황 등)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었나요?
3. 참여가 어려웠다면 그 이유(어떤 이슈, 상황 등)는 무엇인가요?

4.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위해서 나는 어떤 준비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나요?
5. 청소년배분위원회의 원활한 의사결정을 위해 어떤 점이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나요?

[배분위원회 활동 과정에서 본인의 참여정도]

나의참여정도	매우잘하였다	잘하였다	다소부족했다	매우부족하였다
오리엔테이션				
배분가치발견: 배분위원장만남				
활동계획세우기/사회이슈탐색: 영화 아이캔스픽				
기관방문: 아름다운가게, 고탐20				
배분이슈선정: 2개팀으로 구성				
배분주제구체화/재단 배분가치과정 이해				
배분계획,방법, 심사기준 선정				
공모최종준비 /심사계획준비				
서류심사				
면접심사/최종선정단체 논의				
발표/활동팀OT				
기타				

[청소년배분위원회 활동에 대해 느낀점]

- 각각의 과정에 대한 구체적 평가 후 개선해야할 점과 바램 등을 논의

1) 어떤 것이 가장 재미있었는가?

2) 어떤 것이 가장 힘들었는가?

3) 자신에게 어떠한 변화가 있는가?

예, 자기효능감과 유능감, 비판적 사고력 변화, 학업과 진로에 대한 인식 변화 등

-2018년 8월말 1년의 배분위원회활동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당신이 얻은 것은 무엇인가요?

(상상의 장면)

[[2부]] FGI 성과평가

[‘이상적인 청소년배분위원회 활동’에 대한 생각]

1) DISCOVERY 발견하기

〈무엇이 생명력을 주는가? 가치발견하기〉

예전의 청소년 활동 경험 속에서 겪었던 최선의 청소년 (나눔) 활동 경험은?

- 가장 참여감이 높았고 효과적이었으며 열정이 넘쳤던 활동은 무엇이었는가?

- 무엇이 그렇게 성공적으로 만들었는가?

- 그러한 성공경험을 되돌아 봤을 때, 당신의 최고의 강점은 무엇인가?

2) DREAM 꿈꾸기

〈무엇이 될 수 있는가? 모두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결과에 더한 상상하기〉

아무런 제약이 없을 때 자신이 생각하는 최선의 배분위원회 활동 모습은?

3) DESIGN 설계하기

〈무엇이 가장 이상적인가? 협력적 구성하기〉

현 상황에서 최선의 배분위원회 활동을 이끌기/만들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은?

4) DESTINY 실현하기

〈미래 실현하기 어떻게 권한부여/학습/조정/개선할 것인가? 지속강화하기〉

최선의 배분위원회 활동을 발휘할 수 있도록 (앞으로) 무엇을 어떻게 한번 해볼까?

[사회문제와 비영리단체(기관)에 대한 생각]

1) 우리 사회에서 시급히 해결되어야 하는 문제들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 이 활동을 통해서 어떠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참여하고 싶나요?

- 사회문제 해결 과정에 '청소년의 참여' 는 어떤 의미가 있나요?

2) 비영리단체(기관)는 어떤 일을 하는 곳이라 생각하나요?

- 당신에게 비영리단체(기관)는 어떤 의미가 있나요?

3) 아름다운재단은 어떤 일을 하는 곳이라 생각하나요?

- 만일, 아름다운재단에서 일하게 된다면 어떤 일을 하고 싶나요?

■ 인터뷰 가이드 – 아름다운재단 청소년배분위원회 성과평가 (성인어드바이저/운영자)

프로그램운영자명 : 아름다운재단 연구교육팀

프로그램평가자명 : 이민영 (고려사이버대 사회복지학과 부교수), 구지윤 (광운대학교 외래교수)

〈목적〉

아름다운재단의 청소년배분위원회는 유스필란트로피(Youth Philanthropy)를 실천하는 한 방법으로 청소년들이 지역사회의 문제를 분석하고, 우선순위에 따라 문제들을 해결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활동입니다. 배분위원회 활동은 청소년들이 자신이 가진 자원과 강점으로 지역사회의 문제를 발견하고 해결해가는 과정을 통해 임파워링하여 지역사회 리더로 성장해 나가도록 돕습니다.

[[1부]] 과정평가

[청소년배분위원회 활동에 대해 느낀점]

- 각각의 과정에 대한 구체적 평가 후 개선해야할 점과 바램 등을 논의

1) 어떤 것이 가장 재미있었는가?

2) 어떤 것이 가장 힘들었는가?

3) 자신에게 어떠한 변화가 있는가? (성인지도자들의 변화)

-2018년 8월말 1년의 배분위원회활동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당신이 얻은 것은 무엇인가요?
(상상의 장면)

[[2부]] FGI 성과평가

['이상적인 청소년배분위원회 활동' 에 대한 생각]

1) DISCOVERY 발견하기

〈무엇이 생명력을 주는가? 가치발견하기〉

예전의 청소년 활동 경험 속에서 겪었던 최선의 청소년 (나눔) 활동 경험은?

- 가장 참여감이 높았고 효과적이었으며 열정이 넘쳤던 활동은 무엇이었는가?

- 무엇이 그렇게 성공적으로 만들었는가?

- 그러한 성공경험을 되돌아 봤을 때, 당신의 최고의 강점은 무엇인가?

2) DREAM 꿈꾸기

〈무엇이 될 수 있는가? 모두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결과에 더한 상상하기〉

아무런 제약이 없을 때 자신이 생각하는 최선의 배분위원회 활동 모습은?

3) DESIGN 설계하기

〈무엇이 가장 이상적인가? 협력적 구성하기〉

현 상황에서 최선의 배분위원회 활동을 이끌기/만들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은?

4) DESTINY 실현하기

〈미래 실현하기 어떻게 권한부여/학습/조정/개선할 것인가? 지속강화하기〉

최선의 배분위원회 활동을 발휘할 수 있도록 (앞으로) 무엇을 어떻게 한번 해볼까?

[**끝으로, 깊은 잠에 빠져들었다가 10년 뒤인 2028년에 깨어났다고 상상해봅시다.**]

2028년 _____ 세의 나는 _____ 모습을 가지고 있어서, 10년전에 참여했던
청소년배분위원회 활동에 대해서 자랑스러울 것이다.

■ 인터뷰 가이드 – 아름다운재단 청소년배분위원회 성과평가 (배분지원단체_이메일용)

프로그램운영자명 : 아름다운재단 연구교육팀

프로그램평가자명 : 이민영 (고려사이버대 사회복지학과 부교수), 구지윤 (광운대학교 외래교수)

〈양식: 이메일 인터뷰 청소년하는팀〉

아름다운재단 청소년배분위원회와 함께한 과정 중심으로 질문을 드립니다.

편한 마음으로 생각나는대로 질문 아래 적어주세요.

〈인터뷰 질문지〉

1. 배분지원에 대한 홍보안내를 알게되었을때 왜 지원을 결심하게 되었나요?
- 청소년배분위원회란 말을 처음 들었을때 어떤 것이 떠올랐나요?
2. 서류합격 통보 후 면접을 준비하며 어떤 것에 중점을 두었나요?
3. 청소년 배분위원들과 면접을 한 경험은 (다른 면접과) 어떻게 달랐나요?
4. 결정 후,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청소년 배분위원들과의 의사소통에서 느낀 점은 무엇인지요?
5. 결과보고회때 어떠셨나요?
6. 결과보고서를 제출하면서, 어떤 부분을 강조하고 싶었나요?
7. 끝으로, 청소년배분위원회에게 해주고 싶은 말, 앞으로 발전을 위한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아름다운재단 청소년배분위원회 성과연구

발행일 2018년 12월 31일
발행처 아름다운북
발행인 박종문
지은이 이민영, 구지윤
기획·편집 아름다운재단
주소 03035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 19길 6(옥인동)
전화 (02)766-1004
전송 (02)6969-5196
웹사이트 www.beautifulfund.org
디자인·인쇄 해튼D&P

아름다운재단 청소년배분위원회 성과평가



비매품/무료
93370



ISBN 978-89-93842-45-6